

저자 楊士瀛

국역 이정현

해제 이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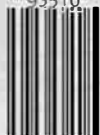
국역
仁齋直指小兒方論
【一】

비매품

95510



9 788959 705757



ISBN 978-89-5970-575-7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인재소아방론 서문 仁齋小兒方論序	1.1
신간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 권1 新刊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卷之一	1.2
갓난아이의 병 初生	1.2.1
갓난아이의 금풍, 찰구, 제풍에 대한 설명 初生噤風、撮口、臍風 方論	1.2.1.1
금풍, 찰구, 제풍의 증상과 치료법 噤風、撮口、臍風證治	1.2.1.2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는 증상과 치료법 初生不乳證治	1.2.1.3
변(變)과 증(蒸) 變蒸	1.2.2
변(變)과 증(蒸)에 대한 설명 變蒸方論	1.2.2.1
변(變)과 증(蒸)의 증상과 치료법 變蒸證治	1.2.2.2
경풍 驚	1.2.3
급경풍, 만경풍, 만비풍 총론 急風、慢風、慢脾風總論	1.2.3.1
호구(虎口)와 삼관(三關)의 핏줄에 대한 노래와 설명 虎口三關紋訣 法	1.2.3.2

경풍의 이론 驚風方論	1.2.3.3
경풍의 증상에 따른 치료법 驚風證治	1.2.3.4
경열 驚熱	1.2.3.5
태경 胎驚	1.2.3.6
경풍을 진정시킴 定驚	1.2.3.7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향	2.3

仁齋小兒方論序

인재소아방론 서문

虹橋涉川, 足以爲福田乎? 溱洧濟人, 不足爲惠, 然成者有時而壞也. 紅粟振飢, 足以爲陰德乎? 翳桑待哺, 不能家給, 然利者有時而病也. 人生天地間, 溥万物爲一體, 參大造爲全仁, 盍思所以廣其濟. 余每見人以疾痛爲憂, 財匱者無力召醫, 力到者無醫能療, 雜藥徧嘗, 付性命於一擲, 未嘗不爲之扼腕焉.

무지개 다리로 냇물을 건너게 해주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진수(溱水)나 유수(洧水)에서 몇몇 사람을 건너게 해주는 것은 은택이라고 하기에 부족하지만, 다리를 만들어도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비축했던 곡식으로 기근을 구제해주면 음덕을 쌓을 수 있을까? 굶주릴 때 먹여주기를 바라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호의도 언젠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람이란 이 땅에 태어나 만물을 섭렵하여 일체가 되고 천지조화에 참여하여 인(仁)을 완성하는 존재이니 어찌 구제 방법을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나는 늘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근심했다. 재물이 많더라도 의원을 호출할 힘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호출할 힘이 있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온갖 약재를 잔뜩 먹으며 목숨을 걸어보지만 대부분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곤 했다.

於是竊暇燈窗研精脉法, 上稽靈素之書, 下及湯液之論, 張長沙鳴於漢, 孫地仙鳴於唐, 與夫晉宋而下諸賢之所撰次者, 搜覽迨盡, 將以推廣, 不忍人之仁, 就是而得三昧, 竊謂大科傷寒法度爲甚嚴, 小科驚風方論爲難盡. 傷寒治法表裏陰陽出入傳變, 若網在綱, 固不容紊, 若夫嬰兒驚風急轉而慢, 實俄而虛, 形似實非, 尤難臆度, 自非審脉驗證, 達變知幾, 鮮有不以嬰兒爲戲, 此驚風証治指要之所由作也. 證以言驚風之狀, 治以言驚風之方, 指者直訣以曉人, 要者精義以致用.

그래서 혼자 시간을 내어 밤까지 맥법(脉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상고시대 의 《영추》나 《소문》부터 시작하여 《탕액》 같은 책이나 한(漢) 대에 명의였던 장중경의 책이나 당나라에 명의였던 손사막의 책이나 후진(後晉)·송(宋) 대 이후 명의들의 책까지 모두 찾아보았다. 이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아픈 사람을 차마 두고보지 못하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집필에 착수하였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성인의 상한(傷寒) 치료법은 매우 정교한 수준이고, 소아의 경풍 치료법과 이론은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상한의 치료법 중 표리·음양·출입·전변에 대한 내용은 그물코가 버리에 달린 듯 체계적이니 결코 어지럽힐 수 없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경풍(驚風)은 갑자기 악화되어 만경풍이 되거나, 실증이었다가 금세 허증으로 되거나, 보이는 증상은 실증같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나 하는 등 성인에 비해 파악하기 몹시 어렵기 때문에 맥을 짚어 병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변화나 조짐을 알아채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경풍의 증론과 치료법'이라는 글을 지은 이유이다. 증론에는 경풍의 증상을 적었고, 치료법에는 경풍의 처방을 적었다. 설명은 구체적으로 적어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니, 필요한 사람은 의미를 꼼꼼히 생각하면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王氏非無家傳, 然方粹而證不詳, 錢氏非無訣法, 然義深而方難用. 是編所作, 本之前聖大賢之方論, 參之聞人高士之見聞, 得之先疇已試之效, 虛實補瀉之辨其証, 參苓桂朮之隨其方, 覽者歷歷可曉, 惠之方來傳之同志, 使據病可以識證, 因證可以得方, 爲天下挾提回生立命, 起憊扶衰, 倘執此以登盧扁之門, 或可爲消埃萬分之助, 周流人間, 衛生救物, 獨不得如封君達之用心乎? 徑刻諸梓, 嘉與四方共之, 庶幾廣濟於無窮也.

왕도(王燾)는 《외대비요》를 남겼으나 처방에 집중하여 증론이 소략하며, 전을(錢乙)은 《소아약증직결》을 남겼으나 의미가 심오하여 처방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 책은 옛 성현의 이론을 근본하면서 뛰어난 제자들의 견문을 참고하였고, 의학계에서 시험하여 효과 있는 처방을 얻어서 만들었다. 허실에 따라 보할지 사할지는 증론을 보고 감별하면 되고, 인삼이나 복령을 쓸지 계지나 백출을 쓸지는 처방을 따라가면 되니 독자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세에 혜택을 주고 동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증상에 근거하여 어떤 병인지 알 수 있게 하고 그 병을 따라서 처방을 쓸 수 있게 되면 천하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아픔과 슬픔에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집어 편작(扁鵲)의 문하에 오른다면 혹시 나의 과오를 없애는 데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듯하다. 인간세상에 살면서 의술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어찌 봉군달(封君達)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마음을 쓴 것과 같지 않겠는가. 이제 서둘러 책을 찍어 즐겁게 사방의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영원토록 널리 구제할 수 있을 것 같다.

或曰, 子胡不私諸己爲家傳計? 余應之曰, 喜捨方便, 釋氏書第一義也, 政使學者復之熟之, 推是以及人之幼耳, 若南陽一書, 余嘗紬繹其說, 目曰活人摠括, 嗣此以求其傳, 堂上呼盧喝六作五, 小子則不敢知.

혹자가 "자네는 왜 혼자만 가지고 비책으로 삼지 않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보시와 방편은 불가에서 말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저 의술을 배우는 자들이 자꾸 익숙히 보게 만들고, 그들이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미치면 그만입니다. 《남양활인서》같은 책은 내가 전에 그에 대한 설명을 엮어 《활인총괄》이라고 불렀으니 그 책에 이어서 이 책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당상에서 진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6등으로 호명되지만 5등이 되리라는 꿈 이후에 허숙미(許叔微)가 5등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의학서 편찬으로 음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으로 음덕을 쌓을 수 있을지 소생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景定庚申開朔三山郡北后曹楊士瀛登父自序.

경신년(1260) 정월 초하루 삼산군북후조(三山郡北后曹)에서 양사영 쓰다.

新刊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卷之一

신간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 권1

三山名醫 仁齋楊士瀛登父 撰次

삼산명의 인재(仁齋) 양사영(楊士瀛, 자는 등보登父) 지음

新安後孝 惠齋朱崇正宗儒 附遺

신안후학 혜재(惠齋) 주송정(朱崇正, 자는 종유宗儒) 보충

† 初生 갓난아이의 병

小兒病證, 惟驚疳瀉痢, 四者難治, 古語有之. 急慢脾風, 與夫諸風種類, 余於驚風證治指要, 言之詳矣. 諸疳方論, 於此又詳備焉, 所闕者, 惟瀉痢兩件而已. 然小兒病狀, 亦不止乎瀉痢, 如直指方論前後編, 集諸病證治, 小兒類有之, 但病各有原, 治各隨證, 由博而約, 不過大人方法推之也. 雖然小兒多熱, 用藥不可過溫, 惟小小分劑調而平之, 毋至以藥勝病則得之矣. 其他嬰幼證類, 大人所無者, 併與各方駢集于後.

소아의 병 중에 경풍과 감병과 설사와 이질 4가지는 치료하기 어렵다는 게 옛부터 하던 말이다. 급경풍(급비풍)과 만경풍(만비풍)을 비롯하여 각종 풍증(風證) 중 나는 경풍의 증론·치료법·지침을 상세히 언급하였고, 여러 감병에 대한 이론은 이보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남은 관건은 설사와 이질 2가지 뿐이다. 그러나 소아의 병은 설사와 이질에 그치는 것도 아니니 《직지방론》의 앞뒤 편에 각종 병의 증론과 치료법을 모아놓은 것처럼 소아에 대한 편도 있다. 다만 병에는 각각의 원인이 있고, 치료는 각각의 증상을 따라야 하니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더라도 성인의 치료법으로 추측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소아는 원래 열이 많으므로 지나치게 따뜻한 성질의 약을 쓰지 말고 그저 조금씩 조금씩 용량을 나누어 먹이면서 평소의 상태로 돌아오도록 조리해야지 약으로 병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 외에 갓난아이의 증상 중에 성인에게는 없는 경우는 각각의 방법을 뒷부분에 모아 놓았다.

【附】小兒初生總說

〔주승정 추가〕갓난아이에 대한 총론

夫人稟陰陽二氣而生，得患起自三焦，然冠壯易明，童幼難治，古云不能察其幼小者，是以別爲一家調理耳。小兒所稟形質壽命長短者，全在乎精血，二者和而有妊，在母之胎中十月而生。【一月】如珠露，【二月】似桃花，【三月】男女分，【四月】形像具，【五月】筋骨成，【六月】毛髮生，【七月】遊其魂，兒能動左手，【八月】遊其魄，兒能動右手，【九月】三轉身，【十月】受氣足。又顱顙經云，【一月】胎胞精血凝也。【二月】胎形成胚也。【三月】陽神爲三魂。【四月】陰靈爲七魄。【五月】五行分五臟。【六月】六律足六腑。【七月】精關竅通光明也。【八月】原神具降眞靈也。【九月】宮室羅布，以定生人也。【十月】受氣足，萬象成而生也。大抵壽夭窮通，聰明愚癡，皆以預定，豈能逃乎？小兒所稟，全習父母之餘氣，以長形質，故肥不可生瘦，瘦不可生肥，大小與父母不等則難養也，初生雖多患，若形体相稱則壽也。小兒回舒轉首遲滯，稍費人雕琢者，壽之兆也。若小兒預知人意，身輕力懦者，難養也。古人有言，譬如【梅花】早發，不覩歲寒，【甘菊】脫榮，終於年事，故知晚成者，壽之兆也。若小兒陰大而黑，與身相等者，可養之子，若陰小而白者，難養也。若小兒形体弱，頭面多青脉，精神昏瘁者，難養也。若小兒剛悍，眼目俊朗，神氣爽健，髮紺而澤者，壽之兆也。若小兒精神實則少病，故易養長成也。若形瘁而多病者，難養也，若小兒眼內黑珠少白睛大，面色晄白者，非壽之相也，縱長不及天年，若眼中黑珠大而白睛少，面色黑，形不淡者，亦要觀其小兒眼中，黑白分明，表裏相稱，曰壽曰康，若黑珠動搖，光明閃爍，縱長亦憂目疾，壽亦不及四旬矣。凡嬰孩始生，坐婆急以【綿】裹指拭兒口中【惡物】，令淨方可浴穢，若不急拭，啼聲一出，嚥下則生百病矣。如或浴水未到，且以【綿絮】包裹，暖大人懷中，浴

湯極須調和, 若冷熱失所, 則令兒驚, 亦致五臟疾矣. 雖浴出亦當煖之, 若遇暑月, 亦未可去其【綿絮】, 乍出母腹, 不可令冒寒氣也, 宜以預先煎下【沸湯】, 以瓶收之, 臨時漸煖, 不犯生水, 則兒不生瘡, 如此一月爲佳, 自然長而少病矣. 初生小兒未乳之先, 用【黃連】些少浸汁, 調乾【臙脂】一蜆殼, 抹兒口中, 去其腹中舊糞, 方可與兒乳之. 一日內, 以少【硃砂】, 入【蜜】些少調, 灌半蜆殼. 一臙, 以【牛黃】少許, 徐徐抹兒口中, 若兒多睡, 慎勿強與乳之. 初生浴兒, 用【猪膽】一枚取汁, 和入湯中浴兒, 則終身不生瘡疥. 又用【五根湯】浴兒亦可, 【五根】者【桃】、【柳】、【棟】、【梅】、【槐】, 加之【苦蔘】、【白芷】, 煎湯浴之, 辟諸不祥. 大凡小兒, 冬不可久浴, 浴則傷冷, 夏不可久浴, 浴則傷熱, 頻浴則背冷而發驚, 若遇熱, 時以軟【絹】蘸湯拭之. 小兒肌膚未成, 不可煖衣, 煖則令筋骨軟弱, 時常宜見風日, 若愛惜不見風日, 令兒肌膚脆軟, 便易傷損, 當將父母穿過舊絮着衣, 少假父母之餘氣, 幸勿以【新綿】着兒. 遇其天氣和暖無風之時, 令人抱向日中嬉戲, 數見風日, 則血凝氣剛, 肌膚堅密, 堪耐風寒, 不致疾病, 若藏帷帳之中, 重衣溫煖, 譬如草木生於陰地, 不見風日, 軟脆不耐風寒. 又當消息衣服, 無令衣多, 多則令兒汗出, 汗多則致虛損, 風邪易感. 夫小兒當慎風池, 在頸項¹筋兩轅之間, 諸疾從此而發. 小兒臍帶未脫, 不可頻浴, 頻浴則臍中入水, 撮口、臍風, 皆從此起, 不可不慎, 此乃前人之成說, 實後人之龜鑑者歟!

사람은 음과 양 2가지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니 병에 걸릴 때는 삼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성인은 쉽게 치료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데 비하여 아이들은 치료하기 어렵다. 옛 말에 '작고 어린 아이를 제대로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 분야를 두어 조리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소아의 신체와 기질과 수명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정(精)과 어머니의 혈(血)에 달려 있으니 2가지가 합해지면 임신이 되고,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머물다가 태어난다. 1개월 된 태아

는 이슬 방울 같다. 2개월이 되면 복사꽃 같다. 3개월이 되면 남녀가 구분되고, 4개월이 되면 사람의 모양이 갖추진다. 5개월이 되면 살과 뼈가 생기고, 6개월이 되면 머리카락이 난다. 7개월이 되면 혼이 생겨 왼손을 움직이고, 8개월이 되면 백이 생겨 오른손을 움직인다. 9개월이 되면 3번 몸을 돌리고, 10개월이 되면 품부받은 기운이 가득 찬다.

《노신경 顙顙經》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임신 1개월에는 뱃속에 정과 혈이 엉겨있고, 2개월에는 태아의 형체가 모양을 이룬다. 3개월에는 정신이 3가지 혼(魂)으로 되고, 4개월에는 영혼이 7가지 백(魄)으로 된다. 5개월에는 오행의 기운이 오장으로 나누어지고, 6개월에는 육율(六律)의 기운이 육부를 채운다. 7개월에는 몸의 구멍들과 시력이 생기고, 8개월에는 인지력이 생기고 영혼이 깃든다. 9개월에는 출산 공간을 마련하면서 출산을 돕는 사람들을 정하고, 10개월에는 품부받은 기운이 가득 차서 모든 형태가 완성되고 태어난다.'

소아의 수명·성공·지능은 모두 예정된 법이니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소아가 타고 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기질에서 나온다. 부모가 자신의 기질대로 아이의 몸과 정신을 키우기 때문에 똥똥한 부모가 아이를 마르게 키우지 못하고, 반대로 마른 부모가 아이를 똥똥하게 키우지 못한다. 아이의 몸집이 부모와 같지 않으면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다. 갓난아이 시절에 병치레가 잦더라도 아이의 체형이 부모와 비슷하면 오래 산다. 뒤집기나 쪽쪽이나 고개를 가누는 시점이 남들보다 늦거나 어른의 손이 덜 가는 아이는 장수한다. 눈치가 빠르거나 몸이 마르고 힘이 약한 아이는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다.

옛 현인들이 소아를 식물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매화가 일찍 피면 겨울 풍경을 보지 못하고 떨어지고, 들국화가 떨어지면 해야 할 일이 끝난다.'

그러니 늦게 성장하는 게 장수의 징조임을 알 수 있다.' 고추가 크고 검으며 체형도 그와 비슷한 아이는 건강하게 클 테지만, 고추가 작고 허연 아이는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다. 몸이 여리하거나 얼굴에 푸른 핏줄이 많거나 정신이 흐리멍텅한 아이는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다. 성격이 강하거나 눈이 툇망툇망하거나 정신이 또렷하거나 머리카락이 윤택한 경우는 아이가 장수할 징조이다. 아이의 정신이 또렷하면 병치레가 적으니 건강하게 키우기 쉽고 또 무럭무럭 자란다. 몸이 마르면서 병치레가 잦은 아이는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다. 검은자위가 작으면서 흰자위가 크거나 낮빛이 창백한 아이는 장수할 관상이 아니니 장성하더라도 천수를 누리지는 못한다. 검은자위가 크면서 흰자위가 작거나 낮빛이 검거나 체형이 야무지지 못한 경우에도 눈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눈에 흑백이 분명하거나 몸집과 성격이 걸맞으면 장수하고 건강할 것이다. 검은자위가 흔들리거나 촛점이 갈팡질팡하면 장성하더라도 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오래 살더라도 40살을 넘지 못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가 재빨리 손가락에 천을 감아 입속에 있는 찌꺼기를 닦아내고 깨끗이 씻겨야 한다. 찌꺼기를 닦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울음이 터져 그것을 삼키게 되면 온갖 병이 생길 것이다. 혹시 목욕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솜이불로 아이를 싸맨 채 어른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해야 한다. 목욕물은 반드시 적절해야 하니 온도가 맞지 않으면 아이가 놀라게 되고 결국 오장에 병이 생긴다. 목욕 후에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여름철이더라도 솜이불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니 어머니 품에서 잠깐 나올 때라도 한기를 씌게 해서는 안 된다. 미리 백비탕을 끓여서 병에 담아 두었다가 마실 때 살짝 데워 찬물을 먹이지 않으면 아이에게 창(瘡)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 달을 하면 효과가

좋으니 자라면서 차차 병치레가 줄어들 것이다.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전에 황련 우린 물에 연지(臙脂) 가루 1술을 개어 입속에 발라주면 뱃속에 있는 찌꺼기를 없앤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사와 꿀을 약간씩 섞어 0.5술 정도 아이 입에 흘려 넣어 준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면 우황 약간을 천천히 아이 입속에 바른다. 아이가 계속 잘 때는 억지로 젖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목욕시킬 때 저담 1개를 즈내어 목욕물에 넣고 씻기면 종신토록 아이에게 창개(瘡疥)가 생기지 않는다. 또는 다섯 가지 뿌리 달인 물로 아이를 씻겨도 효과가 있다. 다섯 가지 뿌리는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멀구슬나무, 매화나무, 회화나무의 뿌리이다. 고삼과 백지를 추가하여 달인 물로 목욕을 시키면 온갖 불길한 것을 물리친다. 아이를 목욕시킬 때 겨울철에는 냉기에 상할 수 있으니 오래 씻기지 말아야 하고, 여름철에는 열기에 상할 수 있으니 오래 씻기지 말아야 한다. 너무 자주 씻기면 등에 냉기가 달아 경풍이 발작할 수 있다. 혹시 열이 나면 부드러운 천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자주 닦아주어야 한다. 소아의 피부는 아직 영글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덥게 입히지 말아야 하니, 덥게 입히면 근골이 연약해진다. 자주 바람과 별을 쏘이는 게 좋다. 너무 애지중지하여 바람과 별을 쏘이지 않으면 아이의 피부가 연약해져서 잘 손상된다. 떨어진 부모의 솜옷을 입혀서 부모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니 혹시라도 아이에게 새옷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 날씨가 좋고 바람 없는 날에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안고 별에서 놀게 해야 하니 바람이나 별을 자주 쏘이면 혈기가 튼튼해지고 피부가 단단해져서 풍한에 잘 견디게 되므로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아이를 장막 속에 놓고 두꺼운 옷을 입혀 덥게 만드는 것은 초목이 그늘에서 자라면서 별이나 바람을 보지 못하는 것

과 비슷하다. 연약해져서 풍한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옷가지는 숨쉬기 편하게 입혀야지 많이 입히지 말아야 한다. 많이 입히면 아이가 땀을 흘리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소모되어 풍사가 쉽게 침입하게 된다. 아이들은 풍지혈(목 뒷덜미 양쪽)을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 각종 질병이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땀줄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주 목욕시키면 안 된다. 자주 목욕시키면 배꼽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찰구나 제풍 같은 병이 이 때문에 시작되니 꼭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적은 말이 바로 옛 사람들의 설명이니 실로 후세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附】相兒壽夭歌

(주송정 추가) 상아수요가(아이의 수명을 보는 법)

身軟陽痿頭四破 臍小臍高肉不就

髮稀色脆短聲啼 遍體青筋俱不壽

尻腫臍骨若不成 能踞能行能立死

臍深色老性尊持 方是人家長命子

몸이 연약하거나 고추에 힘이 없거나 솟구멍이 닫히지 않는 아이 / 배꼽이 작거나 혹은 튀어나오거나 살이 붙지 않는 아이.

머리술이 적거나 낮빛이 창백하거나 울음소리가 중간에 끊기는 아이 / 온몸에 푸른 핏줄이 모이는 아이는 모두 장수하지 못하리.

엉덩이가 붓고 정강이뼈가 영글지 못한 아이 / 앉거나 걸거나 혼자 서더라도

죽는다네.

배꼽 속이 어두운 색이거나 성격이 고집이 센 아이 / 바야흐로 그 집안에서 오래 살 아이라네.

【附】乳子調護歌

〔주송정 추가〕유자조호가(젖을 먹이고 돌보는 법)

養小須調護 看承莫縱馳

乳多終損胃 食壅卽傷脾

衾厚非爲益 衣單正所宜

無風頻見日 寒暑順天時

아이를 기를 때는 모름지기 잘 돌봐야 하니 /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살피라.

젖을 많이 먹이면 끝내 위기(胃氣)가 손상되고 / 음식이 체하면 비기(脾氣)가 손상되네.

두꺼운 이불은 유익이 되지 않고 / 얇은 옷이 딱 적당하네.

바람 없을 때 자주 별을 쏘이고 / 춥고 더울 때 날씨에 알맞게 해야 하네.

【附】小兒無患歌

〔주송정 추가〕소아무환가(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법)

孩兒常體貌 情態兒殊然

鼻內乾無涕 喉中絕沒涎

頭如青黛染 唇似點珠鮮

臉方花映竹 頰綻水浮蓮

喜引方纔笑 非時口不宣

縱哭無多哭 雖眠不久眠

意同波浪靜 性若鏡中天

此患俱安吉 何愁患再纏

갓난아이의 몸은 / 어린이의 몸과 전혀 다르네.

코속은 말라 있어 콧물이 없고 / 목구멍은 가래도 전혀 없지.

머리는 청대로 물들인 듯 까맣고 /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선명하네.

광대뼈는 꽃 앞의 대나무처럼 단정하고 / 뺨은 물에 뜬 연꽃처럼 피었지.

계속 웃기면 방긋 웃고 / 입은 아무 때나 벌리지 않네.

울긴 하지만 계속 울지는 않고 / 잠도 자지만 오래는 아니지.

의식은 고요한 물결 같고 / 본성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 같네.

지금의 걱정은 오로지 건강 뿐이니 / 어찌 다시 병 걸릴까 걱정하리오.

【附】小兒常安

〔주승정 추가〕아이는 늘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四時欲得小兒安 常要一分飢與寒

但願人皆依此法 自然諸疾不相干

사계절 내내 아이가 건강하길 바란다면 / 늘 조금이라도 배고프거나 춥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저 원하노니 사람들 모두 이 방법 따르면 / 자연히 온갖 병 침범하지 못하리.

【附】視証

〔주송정 추가〕병증을 보는 법

三因曰, 經云視精明者, 五臟精明聚於目, 精全則自明, 神定則視, 當察其面之五色, 乃氣之精華也. 赤欲如帛裏朱, 不欲如【赭】, 白欲如白玉光澤, 不欲如堊, 青欲如蒼玉之澤, 不欲如藍, 黃欲如羅裏雄黃, 不欲如黃土, 黑欲如【漆】重澤, 不欲如炭. 察五色精敗, 則生死見立談間矣.

《삼인방三因方》의 내용이다. '눈의 충기를 살펴야 한다는 《소문》의 구절은 오장의 정기가 눈에 눈에 모여드니 정기가 온전하면 저절로 촛점이 있을 테고, 정신이 안정되어 있으면 저절로 사물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낮빛의 색깔을 살펴야 하니 얼굴이 기운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낮빛은 비단으로 싼 구슬처럼 붉어야지 적토처럼 붉지 말아야 하고, 광택 나는 백옥처럼 희어야지 백악토처럼 하얗지 말아야 하며, 윤택한 청옥처럼 푸르러야지 쪽빛처럼 푸르지 말아야 하고, 비단으로 싼 옹황처럼 누레야지 황토처럼 누렇지 말아야 하며, 은근히 윤기 있는 울칠처럼 검어야지 숯처럼 까맣지 말아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색깔이 윤기 있는지 칙칙한지를 살피면 잠깐 사이에 아이의 생사가 드러날 것이다.'

【附】觀形氣

〔주승정 추가〕신체와 기운을 살피는 법

觀形觀氣要精通 稟受元來自不同

細察盈虧明部分 隨機用藥見奇功

아이의 형체와 기운을 살피려면 정통해야 하니 / 천부적인 부분은 원래 차이가 난다네.

좋은지 나쁜지 세밀히 살펴 부위별 특징에 흰해지면 / 상황에 따라 약을 써서 신기한 효과를 본다네.

【附】面部觀形察色圖

〔주승정 추가〕얼굴의 관형찰색도



〈形色圖 形色圖〉

附 察病形色歌

〔주승정 추가〕찰병형색가(각 부위의 색깔로 병을 살피는 법)

大病唇紅不可醫 看來眼慢不相宜

睛青頰赤并青黑 髮直鵝聲轉淚啼

手足無紋指頭白 鼻乾燥熱口角垂

昏沉口豎不開眼 便是神仙難治之

중병에 입술이 붉으면 치료하지 못하고 / 눈동자가 느리면 좋지 못한 징조네.

눈동자가 푸르면서 뺨이 붉거나 낯빛이 검푸르거나 / 머리카락이 곧두서면서

깍깍거리거나 떼굴떼굴 구르며 우는 경우.

손발에 주름이 없어지면서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거나 / 코가 마르면서 열이 나

거나 입꼬리가 내려가는 경우.

정신이 혼미하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거나 눈을 뜨지 못하면 / 이럴 땐 신선

이 와도 치료하기 어렵지.

【形色總歌】

五臟精明面上窺 假如肝病面青時

三春白氣如形見 此候須亡餘傲之

소아의 몸과 낯빛에 대한 총괄

오장의 상태는 얼굴에서 알 수 있으니 / 가령 간장이 병들면 낯빛이 푸르게 변

하네.

봄철에 얼굴이 창백해지면 / 분명 죽으리니 나머지 오장도 비슷하네.

【面目】

目如赤白并青黑 面若黃時病亦瘳

目黑與青并赤白 面無黃色救無由

얼굴과 눈

눈이 살짝 붉으면서 청흑색이 돌 때 / 낫빛이 누렇다면 병을 치료할 수 있네.

눈이 청흑색이면서 살짝 붉은 색이 돌 때 / 낫빛이 누렇지 않다면 치료할 방법이 없네.

【正口】

正口常紅四體和 青黃必定積驚多

乾燥脾家皆有執 黑色來時怎奈何

정구(正口, 입술)

입술이 늘 붉으면 사지가 편안하고 / 푸르거나 누런 빛이 돌면 분명 적취나 경풍이네.

건조한 입술은 비위가 약한 사람들 모두 해당되고 / 검은 입술은 앞으로 어찌할꼬 어찌할꼬.

【人中】

人中若有點點黑 只因瀉痢難逃厄

若還平滿出分明 任是盧醫救不得

인중

인중에 검은 점들이 있으면 / 설사나 이질 때문이니 병에서 벗어나기 어렵네.

인중 둘레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으면 / 편작에게 맡겨도 치료하지 못하네.

【鼻】

鼻頭無病要微黃 黃甚長憂入死鄉

黑色必當煩燥死 靈丹何必救其殃

코

코 끝이 살짝 노랗아 병이 없고 / 노란 빛이 진하면 오랫동안 아파서 죽음으로 들어가리.

검은 빛이 돌면 필시 번조로 죽을 것이니 / 영약인들 어찌 죽음에서 구하겠는가.

【山根】

山根黑者死來侵 紫色曾因飲食驚

青色必添人叫喚 醫士子細辨其形

산근(山根, 콧마루 아래쪽)

콧마루 아래쪽이 검으면 죽음이 닥칠 것이고 / 보랏빛이면 예전에 음식 때문에 경풍이 있는 것이네.

푸른빛이면 필시 사람들이 울 것이니 / 의원들이여 이곳의 색깔을 자세히 살피게나.

【印堂】

印堂青色受人驚 紅白皆緣水火侵

若要安然無疾病 鎮驚定搐使安寧

인당(印堂, 미간)

미간이 푸른빛이면 사람에게 놀란 것이고 / 붉거나 창백하다면 한사나 열사 때
문이네.

미간이 편안해야 병이 없으리니 / 경풍이나 축닉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해야 하
네.

【額】

額上青紋先受驚 忽然紅白命逡巡

何如早早求靈藥 莫使根源漸漸深

이마

이마의 푸른 핏줄은 예전에 경풍에 걸린 것이며 / 갑자기 붉어지면 목숨이 위
태롭다네.

어떻게 하나. 일찌감치 영약을 구해놓았다면 / 병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지 않
았을 텐데.

【兩眉】

兩眉紅色夜多啼 紫色由遭風熱隨

若見赤紅千萬死 何須苦苦拜伸醫

눈썹

눈썹 부위가 붉으면 밤에 계속 울고 / 보랏빛이면 풍사나 열사가 침입한 것이

네.

흑시라도 새빨강게 되었다면 천 번 만 번 죽을 병이니 / 어찌 굳이 고생스럽게

의원 찾아다니는가.

【兩眼】

兩眼根源本屬肝 黑瞳黃色定傷寒

白睛黃色皆因積 黑白分明仔細看

눈

눈은 간장에 뿌리를 두고 있고 / 검은자위가 누레지면 상한에 걸린 것이네.

흰자위가 누레지면 분명 적취 때문이며 / 눈의 흑백이 분명한지 자세히 살피시

오.

【太陽】

太陽若有兩紋青 此是皆緣第二驚

若要安然無疾病 驚紋入耳不惺惺

태양혈

태양혈에 2개의 푸른 핏줄이 있으면 / 이는 2번 놀랐기 때문이네.

아이가 건강하게 질병 없길 바라니 / 놀라서 생긴 핏줄이 귀까지 연결되면 정

신이 혼미해지리.

【風池】

風池若有青黃色 其子必然多吐逆

青色呼爲小小驚 醫士何用千金力

풍지혈

풍지혈에 푸르거나 누런 빛이 돌면 / 그 아이 분명 자주 토하거나 구역질 하네.

푸른 빛이 돌면 아주 약한 경풍이라 부르니 / 의원이 어찌 천금의 노력을 들여
야겠나.

【金匱】

金匱望之青 却緣先受驚

用藥宜先早 何勞辨其形

금궤(金匱, 눈 밑 애교살)

애교살을 보아 푸른 빛이 돈다면 / 예전에 놀랐기 때문이다.

약을 쓰려면 일찍 써야 하니 / 그 모습 분별하기가 어찌 어려우리.

【兩頰】

兩頰赤色曾驚熱 多哭多啼無休歇

醫士見者不須憂 一服清涼便喜悅

뺨

뺨이 붉으면 예전에 경풍으로 열이 나면서 / 계속 울며 쉬지 않았을 것이네.

의원이 보았으면 걱정 없었을 테니 / 청량음자 한번 먹이면 금세 편안해지리.

【年上】

年上微黃爲正色 若平更陷夭難禁

忽然痢疾黑危後 霍亂吐時黃色深

연상(年上, 콧마루 위쪽)

콧마루 위쪽은 살짝 노랗야 정상이니 / 주위보다 옅록 꺼지면 요절을 피하기

어렵네.

갑작스런 이질에는 검은 빛이 돌고 / 객란토사에는 샛노래지네.

【鼻準】

鼻準微黃赤白平 土黃燥黑死兼并

人中短縮亡因痢 蛔咬心烏 [黑主蛔死] 唇反傾

비준(鼻準, 코끝)

코끝은 살짝 누렇고 살짝 붉어야 정상이니 / 흙처럼 노랗거나 윤기 없이 검은

면 모두 죽을 징조네.

인중이 짧고 선명하면 이질로 죽고 / 회충이 물면 가슴이 까맣게 되면서 입술

이 뒤집히네.

【承漿】

承漿青色食時驚 黑主驚風所感生

吐逆心黃紅則痢 要須子細與推尋

승장혈

승장혈이 청색이면 음식을 먹을 때 놀란 것이고 / 검은색은 경풍에 걸려서 생긴 것이네.

구토와 구역에는 가슴이 누레지고 승장혈이 붉으면 이질이니 / 반드시 자세하게 살피고 미루어 짐작해야 하네.

【白睛】

白睛青色是肝風 若是黃時有積攻
或見黑睛黃色現 傷寒病證此其蹤

흰자위

흰자위가 푸른 빛이면 간풍(肝風)이오 / 누런 빛일 때는 적취 때문이네.

혹시 검은자위에 누런 빛이 돌면 / 상한의 증상이 곧 따라오리.

【風氣二池】

風氣二池黃吐逆 若還青色定爲風
驚啼煩燥紅爲驗 兩頭如連客熱攻

풍지(風池, 눈썹 위)와 기지(氣池, 눈 아래)

풍지와 기지 부근이 누런 빛이면 구토나 구역을 하고 / 도리어 푸른 빛이면 풍사가 침입한 것이네.

경풍이나 야제나 번조에는 붉어지는 법이며 / 양 눈썹이 연결되면 열사가 침입한 것이네.

【地閣】

地閣赤色號滿順 冷積痰涎久在脾

喘叫至眠方得息 下涎去積莫遲疑

지각(地閣, 턱 아래)

지각이 붉으면 약한 창만이라고 부르니 / 냉적(冷積)이나 담연이 비위에 오래
있기 때문이네.

혈떡이며 울다가 잠이 들면 그제야 숨을 쉬니 / 담연을 대변으로 빼내고 적취
를 없애는 데 주저 마시게.

【顙門】

顙門未腫忽如吹 五臟風熱早宜醫

速與瀉踈爲大妙 腫痛須知是死期

신문(顙門, 솟구멍)

멀쩡한 솟구멍이 갑자기 부풀면 / 오장의 풍사나 열사 때문이니 조기에 치료해
야 하네.

신속히 하법을 써야 가장 좋으니 / 부은 곳이 아프면 죽을 때임을 알아채야 하
네.

【兩頤】

兩頤赤色應南方 積氣來朝恰似湯

早用涼心調五臟 何須更向別求方

面上春白夏中黑 秋赤冬黃爲鬼色

若還有患卒難襟 五行相逆爲死厄

양쪽 팔자주름(頤)

양쪽 팔자주름이 붉으면 화(火)에 해당하니 / 쌓였던 열기가 내일 아침 끓어오르리.

심장을 식히는 약을 조기에 써 오장을 조리한다면 / 뭐하러 다른 처방을 찾을까.

얼굴이 봄에 창백하거나 여름에 검거나 / 가을에 붉어나 겨울에 누렇다면 귀신 불 낫겠네.

이때 병이 들면 갑자기 위독해지리니 / 오행이 서로 맞지 않아 죽을 액운이 되리.

【天門】

天門有色發如針 入目須知死氣臨

勸君不用勞心力 魂已飄揚不可尋

천문(天門, 이마 중앙)

천문에 바늘 모양의 무늬가 생겨 / 눈썹으로 향하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려야 하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힘쓰지 말게나 / 혼이 이미 떠나 찾지 못하니.

【臉堂】

臉上青紋來入口 性命難存如木朽

餘色寬時亦大凶 此候誰人先下手

검당(臉堂, 안쪽 광대뼈)

검당의 푸른 핏줄이 입쪽으로 이어지면 / 썩어가는 나무처럼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네.

얼굴 전체로 넓게 퍼져도 대단히 흉조니 / 이 상황에 누가 먼저 손을 대랴.

【武臺】

武臺紅脉欲來尋 吐瀉之候漸漸成

却又驚風爲惡候 明醫良藥便惶惶

무대(武臺, 바깥쪽 광대뼈)

무대에 싹핏줄이 나타나면 / 구토와 설사 증상이 점점 생기네.

게다가 경풍까지 생기면 위중할 테지만 / 현명한 의원의 약이라면 곧 정신을

차리리.

【附】察雜病生死證

〔주승정 추가〕각종 증상으로 생사를 살피는 법

內外俱虛, 身體冷, 汗出微嘔而煩擾, 手足闕逆, 體不安靜者死. 形羸不能服藥, 穀氣

絶也, 一病纔已, 一病復生, 五行勝復相乘也, 其人必死.

몸 안팎이 모두 허하거나, 몸통이 따뜻하지 않거나, 땀이 나면서 구역질을 살

짝 하고 부들부들 떨거나, 손발 끝부터 차가워지거나,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

는 경우는 죽는다. 너무 말라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것은 곡기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증상이 겨우 멎더라도 다른 증상이 다시 생기는 것은 오행의 기운이 돌아가면서 강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필시 죽게 된다.

【附】尅絶歌

〔주승정 추가〕극절가(사증을 이겨내는 법)

五臟相形尅 推之數可量

耳焦并鼻黑 戊己丙丁當

目陷唇枯縮 庚辛甲乙方

舌青并紫腫 壬癸入泉鄉

오장은 상생·상극하는 법이라 / 미루어 생각하면 계산할 수 있네.

귀가 마르거나 코가 까맣게 되는 증상은 / 무기(戊己, 오행 중 토土)나 병정(丙丁, 화火)의 기운으로 대처하리.

눈이 썩거나 입술이 말라 비틀어지는 증상은 / 경신(庚辛, 금金)이나 갑을(甲乙, 목木)의 방법을 쓰라.

혀가 파래지거나 보랏빛으로 붉는 증상은 / 임계(壬癸, 수水)의 방향이니 황천으로 들어가리.

尅絶者, 病在心, 證主舌絶, 壬癸水, 病在肝, 證主目絶, 庚辛金, 病在脾, 證主唇絶,

甲乙木, 病在肺, 證主鼻絶, 丙丁火, 病在腎, 證主耳絶, 戊己土.

극절(尅絶)이란 병이 심장에 있어 혀에 사증이 생기면 수(水, 임계壬癸)의 기운으로 이겨내고, 병이 간장에 있어 눈에 사증이 생기면 금(金, 경신庚辛)의 기운으로 이겨내며, 병이 비장에 있어 입술에 사증이 생기면 목(木, 갑을甲乙)의 기운으로 이겨내고, 병이 폐장에 있어 코에 사증이 생기면 화(火, 병정丙丁)의 기운으로 이겨내며, 병이 신장에 있어 귀에 사증이 생기면 토(土, 무기戊己)의 기운으로 이겨내는 원리이다.

【附】候氏絶證

〔주송정 추가〕 후씨(候氏)가 말한 사증

吐瀉驚風眼上膜 風在掌中抓不覺
急驚過了喘無休 慢驚過了皮膚薄
盤腸氣過心中狐 嗽吐嘔逆心凹惡
傷寒赤脉青相交 結熱面黑皮毛落
痘子入腹眼不開 熱瀉出蟲口乾惡
鎖口腰低唇鼻青 積痢脾毒唇卷縮
此病因驚兼有積 豈有神仙留妙藥

구토와 설사에 경풍과 눈의 예막까지 있고 / 피부병이 손바닥에 있으니 긁어도 느끼지 못하네.

급경풍이 지나가면 심한 기침이 멎지 않고 / 만경풍이 지나가면 피부가 약해지네.

반장(盤腸)이 지나가면 항문에 호흑증이 생기고 / 기침을 하면서 구토나 구역

질을 하면 가슴이 심하게 움푹 들어가네.

상한으로 붉은 핏줄과 푸른 핏줄이 함께 생기거나 / 뭉친 열로 얼굴이 검어지면서 피부가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네.

두창의 수포가 뺨속으로 들어가면 눈을 뜨지 못하고 / 열성 설사로 회충이 나오면 입이 심하게 건조해지네.

입을 악다물고 허리가 주저앉으며 입술과 코가 파래지는 경우와 / 적취나 이질로 비장이 손상되어 입술이 뒤집혀 말리는 경우가 있다네.

이 병은 경풍이 있을 때 적취까지 생긴 것이니 / 신선이나 영약이 있다 한들 어찌하겠나.

【附】漢東王氏絶證

〔주승정 추가〕한동(漢東)의 왕씨가 말한 사증

小兒死候卒難側 滿口痰涎喉中塞

吐瀉無時加咳嗽 身上皮膚死血色

汗出如油頭巘峻 目無光彩鼻中黑

浮胃心突牽撮口 手足如冰脚面直

搐搦眼斜連唇口 將手抱頭難可改

眼眶青色多焦渴 飲水百盞猶不歇

臉腫眼浮脉不來 是物粘身將口呬

啼哭無淚及鴉聲 喉中牽鋸口吹沫

此疾誠難可療之 免彼時人道醫殺

소아가 죽을 징조는 갑자기 돌아눕기 어렵고 / 입속 가득 담연이라 목구멍까지 막히는 경우네.

설새없이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기침까지 하거나 / 온몸의 피부 색이 죽은 사람 같은 경우네.

기름진 땀이 나면서 머리가 뽀족해지거나 / 눈에 생기가 없으면서 코가 까매지는 경우네.

가슴은 부풀고 심장 부근이 튀어나오면서 활구까지 생기거나 / 손발이 얼음장 같으면서 다리와 얼굴이 경직되는 경우네.

축늑이 생기고 사팔이 되면서 입까지 뺨뚫어지거나 /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네.

눈 주위가 푸르스름해지면서 갈증이 심해져 / 물을 계속 마셔도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네.

뺨과 눈이 붓고 맥이 잡히지 않아 / 아무 물건을 몸에 붙여도 입으로 빠는 경우네.

울기만 하고 눈물이 나지 않아 까마귀 소리 같으며 / 목구멍에서는 톱 끄는 소리가 나면서 입에서는 거품을 뱉는 경우네.

이런 증상들은 참으로 치료하기 어려우니 / 사람들에게 의원이 환자를 죽였다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하리.

【附】風髓絶證

〔주송정 추가〕골수에 풍사가 침입한 사증

眼上赤脉, 下貫瞳人 [水火困絶], 顙門腫起, 無及作坑 [心絶]. 鼻乾黑燥 [肺絶], 肚大青筋 [脾絶, 氣不榮], 目多直視 [五臟俱絶], 靨不轉睛 [止注]. 指甲黑色 [肝氣絶], 啼作啞聲 [氣有出無入, 脉絶也], 虛舌出口 [心絶], 嚙齒咬人 [腎絶也]. 魚口氣急 [口如魚呿水之狀, 是氣急肺絶也], 啼不作聲 [肺絶], 蚘蛭既出 [消食蛭是脉, 胃冷熱皆出來], 必是死形, 用藥連救, 十無一生.

눈 표면에 핏줄이 생겨서 눈동자 속까지 뚫고 들어가거나(수화水火의 흐름이 끊긴 것이다), 솟구멍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움푹 들어가지 않거나(심장의 기운이 끊긴 것이다), 코가 마르면서 까맣게 되거나(폐장의 기운이 끊긴 것이다), 배에 굵고 푸른 힘줄이 튀어나오거나(비장의 기운이 끊겨서 온몸에 영양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눈에 찻점이 자주 없거나(오장의 기운이 모두 끊긴 것이다), 시선을 끌어보아도 눈동자를 굴리지 못하거나(주목만 하는 상태이다), 손발톱이 까매지거나(간장의 기운이 끊긴 것이다), 울 때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숨을 내쉬기는 하지만 들이쉬지 못하는 상태니 맥이 끊긴 것이다), 이유 없이 혀가 나와 있거나(심장의 기운이 끊긴 것이다), 이를 짹 물거나 다른 사람을 깨물거나(신장의 기운이 끊긴 것이다), 물고기 입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숨이 급하거나(물고기가 물을 머금는 듯한 입모양이니 숨이 급해지기 때문이다. 폐장의 기운이 끊긴 것이다), 울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폐장의 기운이 끊긴 것이다), 몸에서 회충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소화불량이나 회충이 있을 때 맥을 짚으면 위부가 냉하거나 뜨거울 때의 맥이 모두 잡힌다) 이 경우들은 필시 죽을 증상이니 연달아 약을 써도 열에 하나도 살지 못한다.

【附】驗五臟氣絶証論

〔주송정 추가〕오장의 사증에 대한 경험

- 【心】絶病証
- 심장의 기운이 끊어졌을 때의 증상

顙腫顙陷, 汗出不流, 汗出如珠如油, 舒舌出口, 舌腫發驚, 瀉黑黯血, 髮直如麻, 皮膚無色, 並死壬癸日.

숫구멍이 붓거나 함몰되거나, 땀이 맺히면서 흐르지 않거나, 땀이 구슬이나 기름방울처럼 나가거나, 혀가 늘어져 밖으로 나오거나, 혀가 부으면서 경풍이 발작하거나, 검은 피를 설사하거나, 머리카락이 삼대처럼 곧추서거나, 피부에 생기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모두 임계(壬癸)에 해당하는 날 죽는다.

- 【肝】絶病証
- 간장의 기운이 끊어졌을 때의 증상

病重啼哭無泪, 病重不哭下淚, 爪甲青黑, 眼深如陷, 舌卷囊縮, 發搐目斜, 連唇口動, 手如抱頭之狀, 或脚面直. 素問云, '其華在爪, 其充在筋', 並死庚辛日.

병이 심각한데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울지는 않지만 눈물만 흘러거나, 손발톱이 검푸른 색이 되거나, 눈이 움푹 패인 듯이 들어가거나, 혀가 말리면서 고환이 쪼그라들거나, 축늑이 생기면서 사팔이 되면서 입술까지 돌아가고 입이 떨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을 하면서 간혹 다리와 얼굴이 경직되는 경우가 있다. 《소문》에서 '간장의 상태는 손발톱에 드러나고, 간장의 기운이 가득 차면 힘줄에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모두 경신(庚辛)에 해당하는 날 죽는다.

- 【脾】絶病證

- 비장의 기운이 끊어졌을 때의 증상

人中滿, 人中黑, 唇縮翻張, 唇焦枯燥, 唇乾紫黑, 唇不盖齒, 血腫尿血, 舌縮或卷, 鼻孔開張, 齒噤, 冷涎如油, 撮口如囊, 面如土色, 四肢逆冷, 如濕石之狀, 喫乳不收, 瀉糞赤黑, 並死甲乙日.

인중이 붓거나 혹은 까매지거나, 입술이 오그라들면서 뒤집히거나, 입술이 바싹 마르거나, 입술이 마르고 검붉은 색이 되거나, 입술이 벌어져 이빨을 완전히 덮지 못하거나, 혈종(血腫)이 생기면서 요혈을 누거나, 혀가 오그라들거나 혹은 말리거나, 콧구멍이 넓어지면서 이를 악물거나, 따뜻하지 않고 기름처럼 끈적한 침이 나오거나, 자루 입구처럼 입을 오무리거나, 낮빛이 흙 색깔 같거나, 사지 끝부터 서늘해지면서 물에 젖은 돌덩이 같아지거나, 젖을 빨지만 삼키지 못하고 옆으로 흘리거나, 검붉은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갑을(甲乙)에 해당하는 날 죽는다.

- 【肺】絶病證

- 폐장의 기운이 끊어졌을 때의 증상

有熱, 嚥湯水并藥食喉中鳴, 是胃官直, 水不能蔭肺, 此證醫書罕有, 盖累曾有驗, 必死不治. 目直青鮮, 目直氣喘下回, 喫食多噎, 嗽痰頑涎塞口, 喉中鳴響, 鼻乾黑燥, 鼻塞不通, 肺脹胃膈, 頭汗肢冷, 並死丙丁日.

열이 날 때 따뜻한 물을 약이나 음식과 함께 삼켜서 목구멍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는 위부가 경직되어 수기(水氣)가 폐장을 적셔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증상은 의학서에 잘 나오지 않지만 예전부터 누차 경험해보니 필시 죽게 되어 치료하지 못하는 듯하다. 눈에 촛점이 없으면서 푸른 빛이 선명하게 돌거나, 눈에 촛점이 없으면서 숨을 헐떡이고 대변에 회충이 나오거나, 음식을 먹으면 자꾸 목이 막히거나, 걸쭉한 가래 섞인 기침을 하면서 담연이 목구멍을 막거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거나, 코가 까맣게 마르거나, 코가 완전히 막혀서 숨이 통하지 않거나, 가슴과 흉격이 부풀거나, 머리에 땀이 나면서 사지가 싸늘해지는 경우가 있다. 모두 병정(丙丁)에 해당하는 날 죽는다.

• 【腎】絶病證

- 신장의 기운이 끊어졌을 때의 증상

面黑神昏, 眼黑睛腫, 目無光彩, 耳輪青黃, 耳輪焦枯, 牙齒焦枯, 疳牙齒落, 髮疎黃燥, 膚黑皮燥, 驚風咬妳, 驚風戛齒洩屁, 發驚, 黑色遶口, 並死戊己日.

얼굴이 까매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눈이 까매지면서 눈알이 붓거나, 눈에 생기가 전혀 없거나, 귓바퀴가 파래지거나 혹은 누레지거나, 이빨이 바싹 말라 윤기가 없거나, 감병(疳病)으로 이빨이 빠지거나, 술이 적어지면서 머리카락이 누렇게 말라가거나, 피부가 까맣고 건조하거나, 경풍으로 젖을 물릴 때 젖꼭지를 깨물거나, 경풍으로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방귀가 나오거나, 경풍이 발작했을 때 입 주위가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모두 무기(戊己)에 해당하는 날 죽는다.

【附】五臟相尅雜證

〔주송정 추가〕오장이 상극하는 여러 가지 증상

心病²且黑, 腎尅心, 壬癸日絶.

심장에 병이 있으면 혀가 까맣게 된다. 신장의 기운은 심장을 억누르므로 임계(壬癸)에 해당하는 날 사증으로 된다.

肝病³且黑, 肺尅肝, 庚辛日絶.

간장에 병이 있으면 눈이 까맣게 된다. 폐장의 기운은 간장을 억누르므로 경신(庚辛)에 해당하는 날 사증으로 된다.

脾病唇青, 肝尅脾, 甲乙日絶.

비장에 병이 있으면 입술이 파래진다. 간장의 기운이 비장을 억누르므로 갑을(甲乙)에 해당하는 날 사증으로 된다.

肺病頰腫目赤, 心尅肺, 丙丁日絶.

폐장에 병이 있으면 뺨이 붓고 눈이 빨개진다. 심장의 기운이 폐장을 억누르므로 병정(丙丁)에 해당하는 날 사증으로 된다.

腎病面腫唇黃, 脾尅腎, 戊己日絶.

신장에 병이 있으면 얼굴 전체가 붓고 입술이 누레진다. 비장의 기운이 신장을 억누르므로 무기(戊己)에 해당하는 날 사증으로 된다.

【附】小兒形症歌

〔주승정 추가〕소아형증가(증상으로 소아의 병을 아는 법)

搖頭揉目 肝熱生風

眵淚憎明 三焦積熱

鼻生清涕 肺受其寒

頰赤面黃 風傷⁴肺熱

霍亂吐逆 胃積氣傷

瀉痢不常 氣攻腸滑

面青呵欠 驚氣傳疳

盜汗頻頻 臟腑虛熱

傷寒驚搐 風盛發狂

胃熱生班 氣傷冷厥

長吁齧齒 風盛氣生

上竄搖頭 延高胃結

肺壅氣傷 咳嗽咯血

涎盛發齩 積傷風熱

小便淋赤 熱聚膀胱

疳氣因啼 胎中積結

妳脾痞癖 因物所傷

喉閉丹瘡 肺之受熱

愛喫泥土 脾臟生疳

嘔逆痰涎 蛔蟲上出

脫肛瀉血 冷熱積傷

消渴口瘡 心家受熱

面黃浮腫 積氣所攻

鶴膝鮮顱 因風腑熱

行遲語澁 胎積氣傷

項硬肝風 氣傷木舌

醫經要略 病源辨別

審而用之 細詳使藥

머리를 떨면서 눈을 비비면 / 간장의 열로 생긴 풍증이네.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나면서 빛을 싫어하면 / 삼초에 쌓인 열 때문이네.

맑은 콧물이 나면 / 한사가 폐장에 침입한 것이네.

뺨만 붉고 나머지 얼굴 전체가 누렇다면 / 풍사가 폐장에 침입해 열이 나는 것이네.

곽란토사는 / 위부가 적취에 손상되었기 때문이네.

설사나 이질이 예사롭지 않으면 / 적취가 대소장을 공격하기 때문이네.

낮빛이 푸르고 소리내면서 하품을 하면 / 경풍이 감병(瘖病)으로 변한 것이네.

도한(盜汗)이 자주 나면 / 오장육부의 허열 때문이네.

상한으로 경풍이나 축닉이 생기면 / 풍사가 왕성해져 광증이 발작하네.

가슴이 뜨겁고 반점이 생기면 / 냉궤(冷厥)에 손상된 것이네.

길게 한숨 쉬며 이를 갈면 / 풍사가 왕성해져 숨이 많이 생긴 것이네.

눈을 위로 치켜 뜨면서 머리를 떨고 / 고개가 들리면 위부가 울결된 것이네.

사기가 폐장에 정체되면 / 기침을 하거나 피를 뱉네.

담연이 많고 콧소리가 심하면 / 풍사와 열사에 한참 손상된 것이네.

소변이 쪼르르 나오면서 붉으면 / 열사가 방광에 모여있기 때문이네.

산증(疝證)으로 우는 것은 / 뱃속에서부터 적취로 울결되었기 때문이네.

젖이나 음식을 먹고 비괴나 벽적이 생기는 이유는 / 음식물에 상한 것이네.

목구멍이 막히거나 단독이 생기는 이유는 / 열사가 폐장을 침범했기 때문이네.

진흙을 자꾸 먹는 경우는 / 비장에 감병(疳病)이 생겨서라네.

구역질하고 담연이 많으면 / 회충이나 고독이 올라오는 것이라네.

항문이 빠지고 피고름을 설사하는 것은 / 주변의 냉기나 열기에 오래 상했기 때문이네.

소갈로 입속에 창이 생기면 / 열사가 심장을 침범했기 때문이네.

낮빛이 누렇게 뜨면서 붓는 것은 / 적취가 공격하기 때문이네.

학슬풍이 생기거나 솟구멍이 닫히지 않는 것은 / 간장에 있는 열사 때문이네.

걸음이 더디거나 말을 더듬는 것은 / 뱃속에서 적취에 상했기 때문이네.

뒷목이 뻗뻗해지면 간장의 풍사 때문이고 / 풍사에 상하면 목설(木舌)도 생기네.

의학서의 요점은 / 병의 원인을 판별하는 것이라.

책을 찾고 처방을 사용할 때 / 상세히 살펴서 약을 쓰시오.

【附】小兒諸雜病狀論

(주송정 추가) 소아의 각종 병에 따른 증상 설명

小兒驚哭聲沉不響者, 是病重, 用藥難痊, 若聲浮者輕, 調驚即痊. 頭皮乾枯, 筋脉緊急, 唇外赤而肉白, 有瘡痍如無津至者, 兼驚而難痊, 此是熱過極矣. 赤眼, 是肝積熱, 怕明, 心肝有驚, 牙疳, 妳食之毒, 喫食不消, 是脾積冷, 耳聾, 是腎之積, 胎癰, 是肺積風, 潮熱, 是因驚而得, 喉內如鋸, 是膈上客風入肺, 及因驚入大腸而得, 或悲或要歌, 是邪入脾, 口瘡肚脹疳氣逆吐蟲, 心與大腸熱, 瘡疾, 是脾之積, 開口睡, 是五臟毒盛. 多哭, 是驚風入肺, 愛喫泥土, 是脾生蟲, 夜多盜汗, 是虛熱疳, 氣不順五心熱, 是疳勞, 停耳, 是腎積風, 腹脹惡心, 是肺中積, 愛喫布脚, 是肺生蟲, 愛喫夫炭, 是肝生蟲, 愛喫, 腎生蟲, 愛喫茶末, 是心生蟲, 愛喫酸物, 是膽生蟲.

아이가 놀라서 우는데 목소리가 잠겨 잘 나지 않는 경우는 병이 위중한 것이니 약을 써도 낫기가 어렵다. 목소리가 크게 나면 병세가 가벼운 것이니 잘 조리하면 금세 좋아진다. 두피가 바싹 마르거나 힘줄이 긴장되어 있거나, 입술 주위는 빨갛지만 입술은 창백하거나, 창이 생겼으나 진물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경풍이 겹치면 치료가 어렵다. 이는 열이 극심해서 생긴 것이다. 눈이 빨개지는 증상은 간장에 쌓인 열 때문이고, 빛을 싫어하는 증상은 심장과 간장에 경풍이 생겼기 때문이다. 주마아감 및 젖이나 음식에 손상되거나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은 비장에 쌓인 냉기 때문이다. 이룡은 신장에 사기가 적체되어 생기고, 태선(胎癰)은 폐장에 풍사가 적체되어 생기며, 조열(潮熱)은 경풍 때문에 생긴다. 목구멍에서 톱을 끄는 소리가 나는 증상은 흉격의 풍사가 폐장으로 들어가거나 경풍에 걸렸을 때 사기가 대장으로 들어가서 생긴다. 슬퍼하기도 하다가 자장가를 불러달라고도 하는 증상은 사기가 비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구창이나 복창이나 감병이나 기억이나 회충을 토하는 증상은 심장과 대장에 열이 있기 때문이고, 학질은 비장의 기운이 정체되어 생긴다. 입을 벌

리고 자는 것은 오장의 독기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계속 우는 이유는 경풍이 폐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진흙을 자꾸 먹는 이유는 비장에 회충이 생겼기 때문이다. 밤에 도한이 자꾸 나는 증상은 허열로 감병이 생긴 것이며, 숨이 고르지 못하거나 오심번열이 나는 증상은 감로(瘡勞)이다. 정이(停耳,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는 신장에 풍사가 쌓였기 때문이고, 배가 똥똥해지면서 헛구역질이 나는 것은 폐장에 사기가 쌓였기 때문이다. 천의 가장자리를 자꾸 씹는 것은 폐장에 회충이 생겼기 때문이고, 밀기울 태운 재를 자꾸 먹는 것은 간장에 회충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금을 자꾸 먹는 것은 신장에 회충이 생겼기 때문이고, 찻입을 자꾸 먹는 것은 심장에 회충이 생겼기 때문이며, 신 음식을 자꾸 먹는 것은 담부에 회충이 생겼기 때문이다.

【貴】膏粱之腹, 與藜藿之腹不同. 【賤】葦市之軀, 與純綿之軀各異.

부자집에서 고량진미를 먹는 아이의 배는 거친 음식을 먹는 아이의 배와 같지 않다. 가난한 집에서 거친 옷을 입는 아이의 몸은 솜옷을 입는 아이의 몸과 다르다.

1. 頓項 𠂔 頸項 ※문맥상 ←

2. 目 𠂔 舌 ※문맥상 ←

3. 脾 𠂔 目 ※문맥상 ←

4. 腑 𠂔 肺 ※문맥상

脾 ※보제방 ←



初生噤風、撮口、臍風方論 갓난아이의 금풍、찰구、제 풍에 대한 설명

初生噤風、撮口、臍風, 是三者, 一種病也. 噤風者, 眼閉口禁, 啼聲漸小, 舌上聚肉如粟米狀, 吮乳不得, 口吐白沫, 大小便皆通. 盖由胎中感受熱氣, 流毒於心脾, 故形見於喉舌間也, 抑亦生下復爲風邪擊搏致之. 自滿月至百二十日見此, 名曰犯風噤, 依法將護, 防於未然, 則無此患.

○撮口者, 面目黃赤, 氣息喘急, 啼聲不出. 盖由胎氣挾熱, 兼風邪入臍, 流毒心脾之經, 故令舌強唇青, 聚口撮面, 飲乳有妨. 若口出白沫而四肢冷者, 不可救藥, 其或肚脹青筋, 吊陽卵疝, 內氣引痛, 皆腸胃鬱結不通致之, 治法貴乎踈利. 撮口最爲惡候, 一臍內見之尤急.

○臍風者, 斷臍之後, 爲水濕風冷所乘, 風濕之氣入於臍而流於心脾, 遂令肚脹臍腫, 身軀重着, 四肢柔直, 日夜多啼, 不能吮乳, 甚則發爲風搐, 若臍邊青黑, 撮口不開, 是爲內搐, 不治, 爪甲黑者, 卽死. 其或熱在胃堂, 伸引弩氣, 亦令臍腫, 可與【千金龍膽湯】.

如前三者, 受病之源, 非一朝夕. 大抵裏氣鬱結, 壅閉不通, 並用取下胎毒, 【天麻圓】、【定命丹】、【朱銀圓】輩, 可量與之. 【千金論云】, 小兒始生, 其氣尙盛, 若有微患, 卽須下之, 若不時下, 則成大疾, 疾成則難療矣. 【紫霜圓】可量用之, 【紫圓子】. [方見變蒸門]

갓난아이의 금풍(噤風)·찰구(撮口)·제풍(臍風) 3가지는 같은 병이다. 우선 금풍(噤風)은 눈이 감기고 입을 악다물며, 울음소리가 점차 작아지고, 헛바닥에 좁쌀 같은 살덩이가 생겨서 젖을 빨지 못하며, 입에서 흰 거품을 뱉고, 대소변은 잘 나오는 증상이다. 이는 뱃속에서 열사에 감촉되어 심장과 비장으로 열독이 흘러들어가 생겼기 때문에 증상이 목구멍과 혀 부근에 나타나는 것이고, 간혹 태어난 후 추가로 풍사에 감촉되고 나서 열사와 풍사가 부딪혀 생기기도 한다. 생후 15일에서 120일 사이에 이 병이 나타나므로 범풍금(犯風噤, 바람을 맞아 생긴 구금)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육아법에 따라 잘 보호하여 미연에 방지한다면 금풍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찰구(撮口)는 얼굴과 눈이 누렇거나 붉어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급하게 쉬며,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는 증상이다. 이는 뱃속에서 열이 있을 때 풍사가 배꼽으로 들어가 비장의 경맥에 풍독이 흘러들어가 생겼기 때문에 혀가 강직되고 입술이 파래지며 입을 오무리고 이목구비를 모아서 젖을 먹을 때 방해가 된다. 입에서 흰 거품이 나오면서 사지가 싸늘해지는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하지 못한다. 간혹 배가 똥똥해지면서 푸른 힘줄이 튀어나오고, 천조나 산증이 생기며, 내기(內氣)로 당기면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장위(腸胃)에 기운이 울체되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치료할 때는 소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찰구가 가장 안 좋은 징후이니 생후 21일¹ 안에 이 병이 나타나면 매우 위급한 상태이다.

○제풍(臍風)은 탭줄을 자른 후에 물이나 습기나 바람이나 냉기가 침범하여 그 사기가 배꼽으로 들어가고 심장과 비장까지 흘러들어가 생긴다. 증상은 배가 똥똥해지면서 배꼽도 붓고, 몸통에 힘이 없으며, 사지가 힘없이 쭉 펴지고, 밤

낮으로 계속 울며, 젖을 빨지 못하는 것이다. 증상이 심하면 발작하면서 경풍이나 축닉이 된다. 배꼽 주위가 검푸른 색이면서 입을 오무린 채 벌리지 않으면 몸속에서 축닉이 생긴 내축(內搐)이니 치료하지 못하고, 손발톱이 까맣게 되면 곧 죽게 된다. 간혹 명치에 열이 있고 사지를 폼다 접었다 하면서 성질을 부리는 경우도 배꼽이 부어서 그런 것이니 천금용담탕을 먹어야 한다.

이 3가지 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대체로 몸속에서 기운이 울결되는 경우나, 꼭 막혀서 소통되지 못하는 경우나 모두 태독을 대변으로 빼주는 방법을 써야 한다. 천마원이나 정명단이나 주은원 같은 약을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인다. 《천금방》에 이런 설명이 있다. '아이가 갓 태어나면 기운이 매우 왕성해야 한다. 혹시나 약간의 이상이 있다면 즉시 대변으로 빼내야 한다. 빼낼 시기를 놓치면 큰 병이 되고, 병으로 발전하면 치료하기 어려워진다. 자상원을 아이 몸집에 따라 쓴다. 자원자 [처방은 변증문(變蒸門)에 나온다] 를 쓴다.'

1. 21일 : 《동의보감》에는 '납(臘)은 21일이다.'이라고 했고, 《산림경제》에는 '납(臘)은 3일이다.'라고 했다. ←

噤風、撮口、臍風證治 금풍、찰구、제풍의 증상과 치료법

【風噤方】. 先用【控痰散】吐風涎, 次與【益脾散】和胃, 又用【辰砂膏】利驚即愈. 或手捉拳, 噤口不開者, 不治.

금풍을 치료하는 처방. 우선 공담산을 써서 풍사로 생긴 담연을 토하게 하고, 다음으로 익비산을 먹여 위부를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 진사고를 써서 경풍을 배출시키면 금세 좋아진다. 혹여 주먹을 쥔 채 입을 꼭 다물고 벌리지 않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 【空痰散】

- 공담산

蝎尾、銅青 各半錢, 朱砂 一錢, 膩粉 一字, 麝 少許.

갈미、동청 각 0.5돈, 주사 1돈, 이분 1자, 사향 약간.

右爲末, 每服一字, 臘茶清調下, 先吐風涎, 然後和胃. 或後段【甘草方】吐痰, 隨輕重用.

이상을 가루 낸다.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납차청에 타 넘긴다. 먼저 풍사로 생긴 담연을 토하게 한 후에 위부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 혹은 아래에 나오는 감초방으로 담연을 토하게 한 후 증상의 경중에 따라 쓴다.

- 【益脾散】

- 익비산

白茯苓、人蔘、草果、木香(濕紙裹, 熱灰內煨)、甘草(炒)、陳皮、厚朴(製)、蘇子(炒).

백복령、인삼、초과、목향(습지에 싸서 뜨거운 잣불 속에 묻어 익힌다)、감초(볶는다)、진피、후박(법제한다)、소자(볶는다).

右等分, 爲末, 每一錢, 姜棗煎服.

이상 각각 같은 분량을 가루 낸 후 1돈씩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 【辰砂膏】

- 진사고

辰砂 三錢, 鵬砂、馬牙硝 各一錢半, 玄明粉 二錢, 全蝎、眞珠(末) 各一錢, 麝 一字.

진사 3돈, 봉사、마아초 각 1.5돈, 현명분 2돈, 전갈、진주(가루) 각 1돈, 사향 1자.

右爲末, 和畢, 用好單包起, 自然成膏, 每服一豆粒許. 治諸驚, 【金銀】、【薄荷】湯下, 潮熱, 【甘草】湯下. 月內用【乳汁】調, 傅妳上令吮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잘 섞고 훌겁의 질 좋은 종이로 싸 놓으면 자연히 고약처럼 된다. 한 번에 콩 1알 만큼씩 복용한다. 경풍의 각종 증상을 치료하려면 금이나 은과 박하 달인 물에 넘기고, 조열을 치료하려면 감초탕에 넘긴다. 생후 1달 이전의 갓난아이는 젖에 개어 젖꼭지에 바른 후 빨아 먹게 한다.

- 【僵蚕方】

- 강잠방

治撮口.

찰구를 치료한다.

直僵蚕二枚(去觜, 略炒), 爲末, 蜜調, 傅唇口中.

곤은 강잠 2개(부리를 제거하고 살짝 볶는다)를 가루 내고 꿀에 버무려 입술과 입 속에 바른다.

- 【甘草湯】
- 감초탕

治撮口取吐.

찰구가 있을 때 토하게 하여 치료한다.

甘草(生) 一錢.

감초(생것) 1돈.

右剉, 煎服, 令吐出痰涎, 却以【猪乳】點入口中, 卽瘥.

이것을 썰고 물에 달여 복용하면 토하게 되면서 담연이 나온다. 즉시 저유(猪乳)를 입속에 뿌려주면 곧 좋아진다.

- 【撮風散】
- 찰풍산

治撮口.

찰구를 치료한다.

赤脚蜈蚣 半條(炙), 釣藤 一分, 朱砂、直僵蚕(焙)、血蝎稍 各一錢, 麝 一字.

다리가 붉은 오공 0.5개(굽는다), 조구등 1푼, 주사·곧은 강잠(겉불에 말린다)
、혈갈초 각 1돈, 사향 1자.

右爲末, 每服一字, 取【竹瀝】調下. 竹瀝解熱.

이상을 가루 낸다.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죽력에 타서 넘긴다. 죽력은 열을 내린다.

- 【蜈蚣方】
- 오공방

治口噤不開, 不能收乳.

구금(口噤)으로 입을 벌리지 못하여 젖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赤足蜈蚣半枚(去足, 炙令焦).

다리가 붉은 오공 0.5개(다리를 떼고 까맣게 굽는다).

右爲末, 入【麝】少許, 以【猪乳】一合和之, 分參服. 【猪乳】主小兒口噤不開最良.

이상을 가루 낸 후 사향을 약간 넣고 저유 1홉과 섞는다. 3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저유는 구금으로 입을 벌리지 못하는 아이의 증상에 가장 좋다.

- 【蜘蛛方】
- 지주방

治口噤不開, 不能吮乳.

구금(口噤)으로 입을 벌리지 못하여 젖을 빨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蜘蛛壹枚(去足及口, 炙令焦, 細研).

지주 1개(다리와 주둥이를 떼고 까맣게 구운 후 곱게 간다).

右用【猪乳】一合調和, 爲參服, 徐徐灌之, 神妙. 【牙疳】亦用【蜘蛛】并【麝香】.

이것을 저유 1홉에 개어 3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천천히 입에 흘려 넣으면 신평하다. 아감(牙疳)이 있으면 지주와 사향을 함께 쓴다.

- 【牛沫方】
- 우말방

取東行【牛口沫】, 塗兒口及額上, 卽效.

동쪽으로 가는 소의 침을 받아서 아이의 입과 이마에 바르면 즉시 효과가 있다.

- 【立聖散】
- 입성산

治小兒口噤.

소아의 구금(口噤)을 치료한다.

蝎梢 七箇, 乾蜘蛛 一个(去口足, 先以新竹於火上炙, 取竹油一蛤殼許, 乃竹瀝也, 浸蜘蛛一宿, 炙令焦).

갈초 7개, 말린 지주 1개(주둥이와 발을 댄다. 미리 푸른 대나무를 불에 구워서
죽력을 조개껍질 1개 정도 마련한다. 죽력에 말린 지주를 하룻밤 담가 두었다
가 까맣게 굽는다).

右同末, 研極細, 入【膩粉】少許, 每壹字用【乳汁】調, 時時滴入口中.

이상을 한꺼번에 가루 내고 아주 곱게 간 후 이분을 약간 넣는다. 한번에 1자씩
젖에 타서 아이의 입 속에 자주 떨어뜨린다.

• 【安臍散】

- 안제산

小兒斷臍後, 便傳之.

갓난아이의 탯줄을 자른 후에 바로 바른다.

赤蜈蚣 一寸(畧炒), 鈴羊角 一錢(畧燒), 亂髮 一團(燒令烟欲斷不斷, 各存性), 麝 少
許, 雀甕 三枚.

붉은 오공 1촌(살짝 볶는다), 영양각 1돈(살짝 태운다), 난발 1뭉치(연기가 끊
길 듯 말 듯할 때까지 태운다. 2가지 모두 약성이 남게 태워야 한다), 사향 약
간, 작옹 3개.

右爲末, 斷臍後, 便傳之.

이상을 가루 낸 후 탯줄을 자른 후에 바로 바른다.

【傳臍方】

부제방(배꼽에 바르는 처방)

瓜蒂、南星、白斂、赤小豆 等分.

과체, 남성, 백렴, 적소두 각각 같은 양.

右爲末, 每參錢用芭蕉自然汁調, 傳臍四邊.

이상을 가루 낸다. 한번에 3돈씩 파초 자연즙에 타서 배꼽 주변에 바른다.

【臍風鏤口方】

제풍쇄구방

金頭蜈蚣 一个, 蝎梢 五箇, 直僵蚕 七箇, 瞿麥 半錢.

황금색 머리를 한 오공 1개, 갈초 5개, 곧은 강잠 7개, 구맥 0.5돈.

右爲末, 每壹字, 吹入鼻內, 啼則可醫, 仍用【薄荷湯】調壹字服.

이상을 가루 낸다. 한번에 1자씩 코에 붙어 넣는다. 재채기를 하면 치료할 수 있으니 바로 박하탕에 1자를 타서 복용한다.

- 【千金龍膽湯】[方見胎驚門]
- 천금용담탕 [처방은 태경문에 나온다]
- 【朱銀丸】[方見胎驚門]
- 주은환 [처방은 태경문에 나온다]
- 【天麻丸】、【定命丹】急驚下劑.
- 요마환, 정명단은 급경풍일 때 하법을 쓰는 처방이다.

【附方】

〔주송정 추가〕처방

- 【秘傳立聖散】
- 비전입성산

治臍風、撮口.

제풍(臍風)이나 찰구를 치료한다.

赤蜈蚣 一條(酒炙), 蝎梢 七个, 瞿麥 五分, 僵蚕 七个(炒), 蟬退.

붉은 오공 1개(술에 축였다가 굽는다), 갈초 7개, 구맥 5푼, 강잠 7개(볶는다), 설향¹.

右爲末, 先用【鵝毛管】吹少許入鼻內, 啼則可醫, 仍用【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우선 거위 깃털의 대롱을 써서 가루 약간을 아이 콧속에 넣어 넣는다. 재채기를 하면 치료할 수 있으니 바로 박하탕에 가루를 타서 넘긴다.

- 【秘傳蝎梢散】
- 비전갈초산

治胎風及月內撮口、臍風.

태풍(胎風)이나 생후 1달이 되지 않은 갓난아이의 찰구、제풍을 치료한다.

蝎梢 四十玖个, 僵蚕 四十玖箇(生薑汁炒干, 去觜爪絲), 腦子(另研)、麝 各少許.

갈초 49개, 강잠 49개(생강즙에 담갔다가 볶은 후 말리고 부리와 실같은 부분을 제거한다), 뇌자(따로 갈아 둔다)、사향 각각 조금씩.

右先將【蝎梢】每壹箇,用【薄荷葉】包定,以線札,放砂銚內炒,令【薄荷】乾爲度,同【僵蚕】研細,入【腦】、【麝】末研勻,用【紫雄】、【雞肝】二片,煎湯調下.

우선 갈초를 1개씩 박하엽으로 싸고 실로 묶은 후 사기술에 넣고 볶는다. 박하 잎이 마르면 강잠과 함께 곱게 갈고 뇌자와 사향 가루를 넣고 다시 곱고루 간다. 복용할 때는 암탉과 수탉의 간 각각 1개를 넣고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秘傳神效方】
- 비전신효방

治臍風.

제풍(臍風)을 치료한다.

取【蟪蟪蟲】一條,將尾鬚二根剪斷,自然出水,滴入臍內,少刻即愈.其【蟲】在多年牆毛內取,人家水缸底亦有.

제조 1개를 잡아 양쪽을 자르면 물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을 배꼽에 떨어뜨리면 조금 후에 좋아진다. 제조는 오래된 담장에 있고 털 같은 것 속에 있을 때 잡는다. 집의 물항아리 바닥에도 있다.

¹. 용량이 빠진 듯하나 고증하지 못하였다. ←



初生不乳證治 갇난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는 증상과 치료법

嬰兒初出胞胎, 其聲未發, 急以手拭掠其口, 令惡血淨盡, 不得下咽, 則無他病. 若拭口不前, 惡穢入腹, 則服滿氣短, 不能飲乳. 或產婦取冷過度, 胎中受寒則令兒腹痛, 不肯飲乳. 惡穢入腹, 宜用【伏苓丸】.

갇난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울지 않으면 빨리 손으로 입속의 피 찌꺼기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 이것을 삼키지 못하게 하면 다른 병을 앓지 않는다. 혹시나 입속을 닦기 전에 찌꺼기를 삼키면 배가 빵빵해지면서 숨을 짧게 쉬기 때문에 젖을 먹지 못하게 된다. 간혹 임신부가 찬 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한기를 받으면 아이가 배가 아프면서 젖을 먹으려 하지 않기도 한다. 찌꺼기를 삼켰을 때는 복령환을 써야 한다.

- 伏苓丸
- 복령환

赤伏苓、川黃連(去鬚)、枳殼(炒).

적복령、천황련(잔뿌리를 제거한다)、지각(볶는다).

右等分爲末, 煉蜜圓, 桐子大, 每壹丸, 乳汁調灌下.

이상 각각 같은 분량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젖에 개어 입에 흘려 넣어 준다.

• 【治胎寒腹痛方】

- 뱃속에서 한기에 노출되어 생긴 복통을 치료하는 처방

木香、陳橘皮、檳榔 各一分, 辣桂、川白薑(生)、甘草(炙) 各半分.

목향、진피、빈랑 각 1푼, 날계、천백강(생것)、자감초 각 0.5푼.

右末, 取壹捻, 水煎, 以綿蘸與之.

이상을 가루 낸 후 1념(捻)을 물에 달이고 천에 적셔서 빨아먹게 한다.

- 治惡穢入腹令兒嘔吐不止方
- 출산 때 찌꺼기를 삼킨 갇난아이가 구토를 멈추지 않는 경우를 치료하는 처방

木香、乾薑(生)、伏苓、甘草(焙) 各一分, 酸木瓜、丁香 各半分.

목향、건강(생것)、복령、감초(겉불에 말린다) 각 1푼, 시큼한 목과、정향 각 0.5푼.

右麤末, 一捻, 水煎, 以綿與之.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념(捻)을 물에 달이고 천에 적셔서 빨아먹게 한다.

【附方】

〔주송정 추가〕 처방

- 定命散
- 정명산

治初生兒口噤不乳.

구금(口噤)으로 젖을 먹지 못하는 갇난아이를 치료한다.

蟬退 六七枚(去觜脚), 全蝎 二七箇(去毒).

선향 6~7개(주둥이와 다리를 제거한다), 전갈 14개(독성을 제거한다).

右爲極細末, 入輕粉少許和研, 用乳汁乳遠調化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경분을 약간 넣고 잘 섞으면서 간다. 젖 먹은 지 한참 지났을 때 젖에 녹여서 먹인다.

† 變蒸 변(變)과 증(蒸)



變蒸方論 변(變)과 증(蒸)에 대한 설명

變蒸者, 陰陽水火蒸於血氣, 而使形骸成就, 是五臟之變氣而七情之所由生也. 三十二日一變, 其後三大蒸, 總五百七十有六日, 變者上氣, 蒸者身熱, 每經一變, 情態即異, 輕則發熱微汗, 其狀似驚, 重則壯熱, 脉亂而數, 或吐或汗, 或煩啼燥渴, 輕者五日解, 重者七八日解. 其候與傷寒相若, 亦有變蒸之餘, 續感寒邪者, 但變蒸則耳冷飢冷, 上唇發泡, 狀如濁珠, 若寒邪搏之, 則寒熱交爭, 腹中作痛, 而啼叫之聲日夜不絕. 變者易也, 蒸於肝則目昏微赤, 蒸於肺則嚏嗽毛聳. 凡五臟六腑, 筋脉骨節, 皆循環一匝, 各有證應其陰陽水火之變歟. 治法, 和平之劑微表, 熱實者微利之, 或不治亦自愈.

변(變)과 증(蒸)이란 음양의 기운인 수(水)와 화(火)가 혈과 기를 써서 몸의 형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오장이 기운을 변하게 하여 칠정의 감정이 생기게 된다. 32일에 1번 변(變)을 하고 그 후에 3번 크게 증(蒸)하니 총 576일이 걸린다. 변(變)을 할 때는 상기되고, 증(蒸)을 할 때는 몸에 열이 난다. 매번 변(變)을 겪을 때마다 상태가 곧바로 달라진다. 증상이 가벼우면 열이 나면서 땀이 살짝 나서 증상이 경풍과 비슷하다. 증상이 무거우면 심한 열이 나면서 맥이 어지러우면서 삭(數)하고 토를 하거나 땀을 흘리기도 하고 혹은 답답한 듯이 울면서 갈증이 생기기도 한다. 증상이 가벼우면 5일 정도에 열이 내려가고, 무거우면 7~8일 정도에 열이 내려간다. 이 증상은 상한의 증상과 비슷하기도 하고, 변(變)과 증(蒸)을 겪은 후에 연달아 한사에 감촉되는 경우도 있다. 변(變)과 증(蒸)만 있을 때는 귀와 엉덩이는 차갑고 윗 입술에 뿌연 구슬 같

은 수포가 생긴다. 이때 한사에 감촉되면 한사와 열사가 부딪혀서 배가 아프기 때문에 밤낮으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변(變)이란 바뀐다는 의미이다. 간장을 찌면(蒸) 눈이 어두워지면서 살짝 충혈된다. 폐장을 찌면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서 머리칼이 곤두선다. 오장육부와 근맥과 골절이 모두 이 과정을 돌아가면서 각각 음양의 기운인 수(水)와 화(火)의 변화에 감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겠는가. 치료법은 화평하게 만드는 약으로 살짝 발표시키는 것이다. 실열이 있으면 살짝 하법을 쓸 수 있지만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진다.



變蒸証治 변(變)과 증(蒸)의 증상과 치료법

- 【柴胡湯】
- 시호탕

治變蒸, 骨熱心煩, 啼叫不已.

변(變)과 증(蒸)으로 골증열과 심번이 생겨 계속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甘草(微炙)、麥門冬、柴胡 各二錢, 龍膽草、防風 各一錢.

인삼、감초(살짝 굽는다)、맥문동、시호 각 2돈, 용담초、방풍 각 1돈.

右剉散, 每服三字, 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번에 3자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紫陽黑散】
- 자양흑산

解利熱氣.

열기를 풀어준다.

麻黃 一兩(不去節), 大黃 半兩, 杏仁(去皮) 一分.

마황 1냥(마디를 제거하지 않는다), 대황 0.5냥, 행인(껍질을 제거한다) 1푼.

右件同一處擣和, 並略燒存性, 再以【㉔㉔¹】少許研膏和之, 密器盛, 每用一豆許, 乳汁和咽之.

이상의 약재를 한꺼번에 찢으면서 섞은 후 약성이 남도록 살짝 태운다. 그다음
고약처럼 간 행인을 약간 넣고 섞어 그릇에 담아 밀봉한다. 한번에 콩 1개 정도
씩 젖과 함께 삼키게 한다.

- 【紫丸子】

- 자환자

疎利積氣實熱.

적체된 기운과 실열을 소통시킨다.

代赭 一兩(燒醋淬, 以裂爲度), 赤石脂 七錢, 巴豆 二十枚(去心去油, 用紙托炒, 過
板), 杏仁 五十箇.

대자석 1냥(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하면서 갈라질 때까지 반복한다), 적
석지 7돈, 파두 20개(심과 기름기를 제거한 후 종이를 깔고 볶고 체에 친다), 행
인 50개.

右【代赭】、【赤石脂】先搗末, 和【杏仁】、【巴豆】, 搗三千杵, 若硬加蜜少許, 更搗,
圓如粟米大, 用密器收, 每服二圓, 以乳汁送下, 如更有熱不泄, 明日再與二圓. 此藥
兼治驚積痰, 消食癰, 溫壯諸疾.

대자석·적석지를 우선 빵아서 가루 낸 다음 행인과 파두를 섞고 3천번 찢는
다. 혹은 굳으면 꿀을 조금 넣고 다시 찢는다. 이것을 속미 크기로 환을 빚어 그릇
에 넣고 밀봉한다. 한번에 2환씩 젖으로 넘기게 한다. 만약 다시 열이 나지만

설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2환을 한번 더 먹인다. 이 약은 경풍이나 적취로 생긴 담연도 치료하며 식간(食癇)을 없애고 각종 병에 걸렸을 때 몸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만든다.

- 【當歸散】

- 당귀산

治變蒸有寒無熱.

변(變)과 증(蒸)으로 오한만 있고 열이 없는 증상을 치료한다.

當歸 二錢, 木香、官桂(辣者)、甘草(炙)、人參 各一錢.

당귀 2돈, 목향·관계(매운 것)·자감초·인삼 각 1돈.

右剉散, 每服一錢, 薑棗煎, 食前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번에 1돈씩 복용하되 생강과 대조를 넣고 물에 달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 【調氣散】

- 조기산

治變蒸吐瀉, 不乳多啼.

변(變)과 증(蒸)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젖을 먹지 못하고 계속 우는 경우를 치료한다.

木香、香附、厚朴(製)、人蔘、橘皮、藿香、甘草(炙) 各一錢.

목향、향부자、후박(법제한다)、인삼、굴피、곽향、자감초 각 1돈.

右爲末, 每服三字, 薑棗煎服.

이상을 가루 낸다. 한번에 3자씩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附方】

〔주승정 추가〕처방

- 【人參散】
- 인삼산

治變蒸, 骨熱心煩, 啼呌.

변(變)과 증(蒸)으로 골증열과 심번이 생겨 계속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甘草、麥門冬(去心)、柴胡 各二錢, 防風(去芦)、龍膽草 各一錢. 一方, 加升麻.

인삼、감초、맥문동(심을 제거한다)、시호 각 2돈, 방풍(노두를 제거한다)、
용담초 각 1돈. 어떤 서적에는 승마를 추가하기도 했다.

右剉散, 每服三字, 水一盞, 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번에 3자씩 물 1잔에 달여 복용한다.

- 秘傳平和飲子
- 비전평화음자

治嬰孩小兒變蒸, 前三日, 後三日, 進一服, 可免百病, 及百日內宜服.

갓난아이가 변(變)과 증(蒸)을 하기 3일 전부터 3일 후까지 한 번 먹이면 온갖 병을 피할 수 있다. 생후 100일 이전에 먹여야 한다.

人參(去芦)·甘草(炙) 各五分, 川升麻 二分(煨), 白茯苓(去皮) 一錢半.

인삼(노두를 제거한다)·자감초 각 5푼, 천승마 2푼(잣불에 굽는다), 백복령(겉질을 제거한다) 1.5돈.

右咬咀, 用水煎, 不以時候服, 稟受弱者, 加白朮一錢, 肥大壯實者不用.

이상을 거칠게 잘라 물에 달여 시간과 관계 없이 먹인다. 기질이 약한 아이는 백출 1돈을 추가한다. 튼튼한 아이는 이 약이 필요 없다.

1. ㉟ ㉟ ㉟ 杏仁 ※《천금방》←

† 驚 경풍



急風、慢風、慢脾風總論 급경풍、만경풍、만비풍 총론

小兒急慢驚風, 古所謂陰陽癇是爾. 急者屬陽, 陽盛而陰虧, 慢者屬陰, 陽虧而陰盛, 陽動而燥疾, 陰靜而遲緩. 其始也, 皆因臟腑虛而得之, 虛能發熱, 熱則生風, 是以風生於肝, 痰生於脾, 驚出於心, 熱出於肺, 而心亦主熱. [天官疾醫注云, 肺氣熱, 心氣次之.]

소아의 급경풍과 만경풍은 옛날에 양간(陽癇)과 음간(陰癇)이라고 말하던 것이다. 급성은 양에 속하니 양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음의 기운이 쪼그라드는 것이고, 만성은 음에 속하니 양의 기운이 쪼그라들어서 음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것이다. 양의 기운은 동적이면서 빠르고, 음의 기운은 정적이면서 느리다. 초창기의 경풍은 모두 오장육부의 기운이 허해서 생기지만 기운이 허하면 열이 생기고 열이 나면 풍사가 생긴다. 그러므로 풍증이 간장에 생기고, 담증이 비장에 생기고, 경풍이 심장에 생긴다. 열증은 폐장에 생기지만 심장 역시 주로 열증과 관계된다. [《주례周禮·천관총재天官冢宰》의 질의(疾醫) 항목에 달린 주석에 '폐장의 기운은 열을 주관하고 심장의 기운이 그 다음으로 열을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다.]

驚風痰熱, 合爲四證, 四證已具, 八候生焉. [搐、搦、掣、顫、反、引竄、視曰八候] 凡搭眼搖頭, 張目出舌, 唇紅臉赤, 面青, 眼青, 唇青, 瀉青, 太陽、髮際、印堂青筋, 三關虎口紋紅紫或青者, 皆驚風狀也. 大抵熱論虛實, 證別逆順, 治有後先, 蓋實熱爲急驚, 虛熱爲慢驚, 慢驚本無熱, 所以發熱者, 虛使然爾. 急驚屬陽, 用藥利寒, 慢驚屬陰, 用藥以溫, 甚不可以陰陽無別, 故曰, 熱論虛實者此也.

경풍과 풍증과 담연과 열을 합하여 4증이라고 하고, 4증이 모두 있다면 8후가 생기게 된다. [8후는 축(擣)、닉(擲)、제(掣)、전(顫)、반(反)、인(引)、찬(竄)、시(視)이다] 대체로 촛점이 멀어지면서 머리를 떨거나, 눈을 부릅뜨면서 헛바닥이 나오거나, 입술과 뺨이 붉어지거나, 얼굴이나 눈이나 입술이나 설사의 색깔이 푸르거나, 태양혈이나 발제나 인당 부위에 푸른 핏줄이 튀어나오거나, 삼관、호구의 핏줄이 보라색이나 푸른 색으로 되는 경우가 모두 경풍의 증상이다. 열이 날 때는 허실을 논해야 하고, 증상에는 순증과 역증을 구별해야 하며, 치료법에는 선후를 두어야 하는 법이다. 실열이면 급경풍이고 허열이면 만경풍이다. 만경풍은 원래 열이 없어야 하는데도 열이 나는 까닭은 기허 때문이다. 급경풍은 양에 속하니 소통시키고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써야 하고, 만경풍은 음에 속하니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써야 한다. 반드시 음증인지 양증인지 구별해야 하니 이 때문에 '열이 날 때는 허실을 논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男擣左視左, 女擣右視右, 男眼上竄, 女眼下竄, 男握拇指出外, 女握拇指入裏, 男引手挽左直右曲, 女引手挽右直左曲, 凡此皆順, 反之則逆, 亦有先擣左而後雙擣者, 但擣順則無聲, 擣逆則有聲, 其指紋形勢彎弓入裏者順, 出外者逆, 出入相半者難痊. [目屬肝, 肝受風熱則目直視, 或上竄, 或兩眦頻搭, 若無臉赤五心煩熱之證, 却不發擣, 必挾心熱, 則肝風、心火二者, 交爭而發擣也. 但竄視、直視者, 與【瀉青丸】, 更加發擣者, 以【導赤散】兼之. 大抵肝風、心火, 乃急驚受病之處, 【瀉青丸】去肝風, 【導赤散】降心火, 幼幼新書以爲要藥.] 故曰, 證別逆順者此也. [陽病陰脉, 陰病陽脉, 亦反.]

남아는 왼쪽에 축(搐)과 시(視)가 생기고, 여아는 오른쪽에 생긴다. 남아는 위쪽으로 찬(竄)이 되고, 여아는 아래쪽으로 된다. 남아의 제(掣)는 엄지가 바깥으로 나오고, 여아는 속으로 들어간다. 손으로 당기는 인(引)이 있을 때 남아는 왼팔이 펴지고 오른팔이 굽는데, 여아는 오른팔이 펴지고 왼팔이 굽는다. 이와 같은 경우는 순증이며, 방향이 반대라면 역증이다. 그밖에도 처음에는 왼쪽에 축(搐)이 생겼다가 나중에 양쪽 다 축(搐)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축이 생겼을 때 순증이면 소리를 내지 않고, 역증이면 소리를 낸다. 손금의 모양이 구부러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순증이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역증이며, 각각 절반 정도면 치료하기 어렵다. [눈은 간장에 속하는 부위이므로 간장이 풍사나 열사를 받게 되면 눈에 촛점이 없어지거나 위로 치켜뜨거나 양쪽 눈매가 자주 올라가기도 한다. 뺨이 붉어지거나 오심변열 증상이 없으면 축(搐)이 발작하지 않는다. 반드시 심장의 열이 있어야만 간장의 풍사와 심장의 열사가 부딪혀서 축이 발작한다. 이런 증상 없이 그저 눈을 치켜뜨거나 촛점이 없다면 사청환을 먹이고, 그 후에 축이 발작하면 도적산을 함께 먹인다. 대체로 간장의 풍사와 심장의 열사는 급경풍이 생기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청원으로 간장의 풍사를 제거하고, 도적산으로 심장의 열사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유유신서》에서 중요한 약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증상에는 '순증과 역증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양증일 때 음맥(陰脉)이거나 음증일 때 양맥(陽脉)인 경우도 반대이므로 역증이다.]

熱盛生痰, 痰盛生驚, 驚盛生風, 風盛發搐, 治搐先於截風, 治風先於利驚, 治驚先於豁痰, 治痰先於解熱, 其若四證俱有, 又當兼施並理, 一或有遺, 必生他證, 故曰, 治有先後者此也, 綱領如此.

열이 왕성하면 담연이 생기고, 담연이 왕성하면 경풍이 생기며, 경풍이 왕성하면 풍증이 생기고, 풍증이 왕성하면 축(搐)이 발작한다. 그래서 축을 치료하려면 우선 풍증을 끊어야 하고, 풍증을 끊으려면 우선 경풍을 빼내야 하고, 경풍을 치료하려면 우선 담연을 소통시켜야 하고, 담연을 치료하려면 우선 열을 내려야 한다. 이 4가지 증상이 모두 있다면 당연히 동시에 치료하면서 조리시켜야 하니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다른 증상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치료 법에는 선후를 두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若析急慢脾風而言之，則暴烈者爲急驚，沉重者爲慢驚，而慢脾則重而深矣。急驚之候，牙關緊急，壯熱涎潮，竄視反張，搐搦顛動〔搦者，十指開合。〕唇口眉眼，眨引頻併，口中熱氣，頰赤唇紅，大小便黃赤，其脉浮數洪緊。盖由內有實熱，外挾風邪，心家受熱而積驚，肝家生風而發搐，肝風、心火二臟交爭，血亂氣并，痰涎壅塞，所以百脉凝滯，關竅不通，風氣蕃盛而無所泄，故暴烈也。

급경풍과 만경풍과 만비풍을 분석하여 말하자면 갑자기 심한 증상이 생기면 급경풍이고, 축 까라지면 만경풍이며, 더 심하게 처지면 만비풍이다. 급경풍의 증상은 입을 악다물거나, 열이 심하면서 주기적으로 담연을 토하거나,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몸이 뒤로 꺾이거나, 축(搐)이나 낙(搦)〔열 손가락을 죄암죄암하는 것이다〕이나 전(顛)이 발작하거나, 입술이나 눈을 자주 씹룩거리거나, 숨이 뜨겁거나, 뺨과 입술이 붉거나, 대소변이 누렇게나 혹은 붉어지는 것들이다. 급경풍의 맥은 부삭(浮數)、홍긴(洪緊)하다. 급경풍은 몸속에 실열이 있는 상태에서 풍사에 외감되어 생긴다. 심장이 열사를 받으면서 점점 쌓이면 경풍이 되고, 간장에 풍사가 생겨서 발작하면 축닉이 된다. 간장의 풍사와 심장의

열사가 부딪히면 혈과 기가 모두 흐트러져 여기저기 담연이 짝 막히게 된다.

온갖 맥이 막히고 온몸의 구멍이 제대로 통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왕성해진 풍사가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갑작스럽고 심한 것이다.

治法大要, 用藥有序, 通關以後, 且與截風定搐, 痰熱尚作, 洒下之, 痰熱一泄, 又須急與和胃定心之劑, 搐定而痰熱無多, 則但用輕藥消痰除熱可也. 然急驚雖當下, 切不可過用寒涼及【銀】、【粉】、【巴】、【硝】輩, 蕩滌太驟, 【水銀】、【輕粉】、【巴豆】、【芒硝】、【鉛霜】、【蟾酥】、【腦】、【麝】等劑, 醫家不得已而用之, 僅去疾即止, 或不當用而用, 或當用而過焉, 往往由此成慢驚矣. [下痰熱, 不必須用銀、粉、巴、硝, 但能斟酌, 【大黃】可也.]

급경풍 치료의 핵심은 순서대로 약을 쓰는 것이다. 온몸의 구멍을 통하게 한 이후에 풍사를 꺾는 약을 먹여 축닉을 진정시키고, 담연과 열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법을 쓴다. 담연과 열을 한 번 빼준 다음에는 반드시 곧바로 위부를 안정시키고 가슴을 진정시키는 약을 먹여야 한다. 축닉이 진정되고 담연과 열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는 약성이 약한 약으로 담연을 삭이고 열을 내리는 편이 좋다. 하지만 급경풍에 하법을 쓰더라도 절대로 한량한 성질의 약재 또는 수은이나 경분이나 파두나 망초 같은 약재를 지나치게 써서 뱃속을 갑자기 씻어내면 안 된다. 수은이나 경분이나 파두나 망초나 연상(鉛霜)이나 섬수나 뇌자나 사향 같은 약재는 부득이할 때 쓰는 것이니 증상이 없어지는 듯하면 즉시 멈춰야 한다. 어떤 사람은 쓰지 말아야 할 약재를 쓰기도 하고, 꼭 써야 하지만 지나치

게 쓰곤 하는데 간혹 이 때문에 만경풍으로 악화된다. [담연과 열에 하법을 쓸 때 반드시 수은이나 경분이나 파두나 망초를 쓸 필요는 없다. 상태를 가늠하여 대항을 쓰는 게 좋다.]

欲下之法, 須當審問前人已下未下, 或曾經吐瀉否. 已下及吐瀉者, 不可再下, 但驅風化痰消熱而已. 大約痰熱十分, 且泄其三之二, 下劑中須以【枳殼】、【菖蒲】, 寬氣通心之類佐之. 蓋急驚急在一時, 治之不可寬緩, 稍緩則證候轉深, 若一時躰認未明, 又不可妄施藥餌.

하법을 쓰기 전에는 이전 의원이 하법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환자가 구토와 설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꼭 자세히 물어야 한다. 하법을 썼거나 구토와 설사를 했다면 다시 한번 하법을 써서는 안 되고, 풍사를 몰아내거나 담연을 삭히거나 열을 내리는 정도로만 대처해야 한다. 대략 담연과 열 증상이 10이라고 할 때 3분의 2 정도를 덜어내되, 약에는 지각과 창포를 반드시 넣고 기운을 조리하면서 가슴을 소통시키는 약재를 좌약(佐藥)으로 사용해야 한다. 급경풍 일 때는 시급함이 한 순간에 달려있어 천천히 치료하면 안 되니 조금 늦으면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다. 잠깐이라도 판단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함부로 약을 먹이는 일은 더욱 불가하다.

○截風定搐, 先與【通關】嚏驚輩, 次則【人參羌活散】、【截風圓】、【一字散】、【陽癇散】、【擒風湯】、【定搐散】、【瀉青丸】、【木通散】、【清寧散】、【阿膠散】以意擇用.

○풍사를 꺾고 축낙을 안정시키려면 우선 재채기로 몸의 구멍을 열어주는 약을 쓰고, 그 다음 인삼강활산, 절풍원, 일자산, 양간산, 금풍탕, 정축산, 사청환, 목통산, 청녕산, 아교산 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쓴다.

○下劑有三, 輕下則用【定命丹】、【利驚圓】、【防風湯】、【宣風散】、【枳殼散】、【小柴胡湯】輩. ○稍重下則用【揭風湯】、【朱砂膏】、【疎風散】、【柴胡加大黃湯】輩. ○重下則用【青金圓】、【天麻圓】、【蘆會散】、【牛黃涼膈圓】、【青金丹】、【王監驚墨圓】輩. ○下後和胃助氣, 如【生氣散】、【銀白散】、【伏苓二陳湯】、【異功散】、【天麻蘇合香圓】、【參苓白朮散】、【和中散】、【醒脾散】之類, 皆可選用. ○定志寧神, 則以【定志圓】、【溫膽湯】、【定心圓】、【百枝膏】與之. 他如【太乙保生丹】、【聚寶丹】、【蟬蝎散】不冷不熱祛風鎮驚之劑, 又當繼此以防其再發也. 下之後諸證猶存者, 未易痊愈, 更勿再下, 當作慢驚理之.

○하법에 쓰는 약은 3가지가 있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정명단, 이경원, 방풍탕, 선풍산, 지각산, 소시호탕 중에 쓴다. ○증상이 약간 심할 때는 갈풍탕, 주사고, 소풍산, 시호가대황탕 중에 쓴다. ○증상이 심할 때는 청금원, 천마원, 노회산, 우황양격원, 청금단, 왕감경목원 중에 쓴다. ○하법을 쓴 후에는 위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약을 써야 하니 생기산, 은백산, 복령이진탕, 이공산, 천마소합향원, 삼령백출산, 화중산, 성비산 중에 쓴다. ○정신을 안정시키려면 정지원, 온담탕, 정심원, 백지고 중에 쓴다. 그밖에 태을보생단, 취보단, 선갈산처럼 약성이 서늘하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서 풍

사를 제거하고 경풍을 진정하는 약을 이어 써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법을 쓴 후에 아직 각종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쉽게 치료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다시 하법을 써서는 안 되고, 만경풍이라 생각하여 조리시켜야 한다.

○其有搐搦、反張、斜視、而牙關不緊、口無痰涎者、未可直指以爲驚風、恐是傷風、傷寒、傷食成三等證、或夾驚而成、如錢氏假搐之說。[傷風夾驚、神困昏悸、頭疼氣輕、先用【人參羌活散】、【惺惺散】、【消風散】輩、微取其表、次與【天麻防風丸】。傷食夾驚、身熱溫壯、或吐不思食、大便酸臭、先用【人參羌活散】加【青皮、紫蘇】、取表消積、次用驅風鎮驚之劑。] 凡搐搦者、不可把握、但扶持之、否則風癇逆入經絡、遂使手足拘攣以成廢疾、此治急驚之大要然也。

○축닉이나 각궁반장이나 사시가 있긴 하지만 입을 악다물지 않고 입속에 담연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경풍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상풍이나 상한이나 상식 3가지 병이 있을 때 놀라서 이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전씨(전을)가 설명한 가축(假搐)이다. [상풍일 때 놀라서 정신이 혼미하면서 불안해 하고 두통이 가볍게 있을 때는 우선 인삼강활산、성성산、소풍산 같은 약을 써서 표부에 땀을 살짝 낸 다음, 천마방풍환을 먹인다. 상식일 때 놀라서 몸통이 매우 뜨겁고 간혹 구토를 하면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날 때는 우선 인삼강활산에 청피와 자소를 더하여 써서 표부에 땀을 살짝 내는 동시에 적취를 삭혀야 한다. 그리고 나서 풍사를 몰아내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을 쓴다.] 대체로 축닉이 발작할 때는 아이를 꼭 쥐지 말고 그저 부축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풍간(風癇)이 경락으로 거슬러 들어가서 결국 손발이 강직되고 장애가 된다. 여기까지가 급경풍을 치료하는 핵심이다.

【慢驚之候】，或吐或瀉，涎鳴微喘，眼開神緩，睡則露睛，驚跳搐搦，乍發乍靜，或身熱，或身冷，或四肢熱，或口鼻冷氣，面色淡白淡青，眉間唇間或青或黯，其脉沉遲散緩。盖由急驚過用寒涼，或轉下太驟，傳變成之，又有吐利不止而成者，有氣虛暴吐瀉而成者，[錢云，夏月脾胃伏熱，大吐瀉者，當解暑熱，不可專曰固陽。] 有臟腑虛洞泄成者，[風邪入於腸胃，故大便不聚而瀉。] 有久痢氣脫成者，有下積取瀉成者，有吐血瀉血成者，有感風不解誤藥成者，有傷寒傳變陰證成者，有得之久嗽作癇者，有得之發癇不已者，有得之虫積衝心者，有得之卵腫疝氣腹痛者，其或日夜汗出，脾困多睡，煩燥引飲，四肢浮腫，大小便閉，丹瘤腫毒，龍帶躄腰，走馬急疳，並傳慢候。惟吐瀉積痢成虛致之，則證變甚速。[纔經吐瀉，便是慢驚，須用溫中扶裏，或搐來緊急，乃慢驚初傳，尚有陽證，不可誤作急驚用藥。世言，搐慢爲慢驚，非也。若泥此，往往指慢脾爲慢驚矣。凡慢驚，男子以瀉得之爲重，女子以吐得之爲重。]

만경풍의 증상은 구토나 설사를 하거나,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서 약간 혈떡거리거나, 눈은 떴지만 정신이 풀어지거나, 잘 때 눈동자가 보이거나, 깜짝 놀라 뛰면서 축늑이 잠깐 발작했다가 금세 멀쩡해지거나, 몸통은 뜨겁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고, 사지가 뜨겁거나, 입과 코에서 나오는 숨이 서늘하거나, 낮빛이 창백하거나, 눈썹과 입술 주위가 검푸른 것이다. 맥은 침지(沉遲)、산완(散緩)하다. 만경풍은 급경풍에 찬 성질의 약재를 지나치게 쓰거나 혹은 갑자기 하법을 강하게 쓴 후에 악화되어 생긴다. 또는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기허한 상태에서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전율은 '여름철에 비위에 열이 잠복해 있다가 심하게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열(暑熱)을 풀어야지 양기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오장육부가 허할 때 죽죽 설사를 하다가 생기는 경우

도 있고 [풍사가 장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변이 뭉치지 못하고 설사가 된다.], 만성 설사를 앓아서 기가 바닥나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적취에 하법으로 설사시키는 약을 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누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풍사에 감촉된 후에 약을 잘못 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상한이 음증으로 악화되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만성 기침을 앓다가 간질이 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간질이 발작하여 멈추지 앓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회충이 심장을 치받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부랄이 붓는 산증과 복통이 있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혹여 밤낮으로 땀을 흘리거나, 음식을 먹으면 계속 졸거나, 번조로 계속 물을 찾거나, 사지가 붓거나, 대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새빨간 단류(丹瘤)가 생기거나, 교룡병(蛟龍病)이 허리에 둘러 생기거나, 주마아감이 생긴다면 모두 만경풍으로 악화되려는 조짐이다. 구토와 설사로 기허 때문에 생긴 만경풍은 증상의 악화가 매우 빠르다.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만경풍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표부보다는 이부를 돕는 약재를 써야 한다. 간혹 축닉이 발작하여 입을 악다물더라도 만경풍 초기라서 아직 양증이 남아있는 것이니 급경풍으로 착각하여 약을 쓰면 안 된다. 사람들은 축만(搐慢)을 만경풍이라고 하지만 틀렸다. 이 말을 고집한다면 만비풍도 만경풍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경풍은 남아의 경우 설사하다가 생겼을 때 위중하고, 여아의 경우 구토하다가 생겼을 때 위중하다.]

治法大要, 須當審問源流, 不可槩曰慢證. 如吐瀉得之, 則【理中湯】加【木香】以溫其中, 【五苓散】以導其水, 臟寒洞泄得之, 則先與【朮附湯】, 下積取轉得之, 則先與【調氣散】, 外感寒邪得之, 則先與【桂枝湯】・【解肌湯】輩, 其他可以類推矣. 然慢驚雖

屬陰, 亦須準較陰陽虧盛淺深如何, 不可純用溫藥及燥烈太熱之劑, 惟於生胃氣中, 加以截風定搐, 如【全蝎】、【花蛇】、【僵蚕】、【白附】、【天麻】、【南星】輩爲良.

치료의 핵심은 병의 원인을 잘 찾아야 하는 것이니 뭉뚱그려 만경풍의 증상이라고 해서 안 된다.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만경풍이 되었다면 이증탕에 목향을 추가하여 뱃속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오령산으로 수기를 빼내야 한다. 오장의 한사로 죽죽 설사하다가 만경풍이 되었다면 우선 출부탕을 먹여야 한다. 하법을 지나치게 써서 갑자기 만경풍이 되었다면 우선 조기산을 먹여야 한다. 한사에 외감되어 만경풍이 되었다면 우선 계지탕이나 해기탕 같은 약을 먹여야 한다. 다른 경우도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경풍이 음에 속하는 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음증과 양증의 강약이나 경중을 비교하여야 하니 일률적으로 따뜻한 약재만 쓰거나 혹은 너무 강하거나 뜨거운 약재들만 써서는 안 된다. 위기(胃氣)를 살아나게 하는 약재를 기본으로 한 후 풍사를 꺾고 축닉을 안정시키는 전갈、화사、강잠、백부자、천마、남성 같은 것을 추가하여 쓰는 게 좋다.

○方傳慢候而尙有陽證者 [八候尙在], 不必回陽, 但與截風調胃, 可冷可熱, 均平陰陽而已, 【太一保生丹】、【聚宝丹】、【蟬蝎散】、【神保既臍丹】、【來復丹】、【王氏惺惺散】、【醒脾散】、【大醒脾散】、【溫白丸】, 可選用之.

○이제 막 만경풍으로 되었으나 양증이 남아있는 경우 [8후가 남아 있는 경우] 에는 반드시 양기를 회복하려 하지 말고 그저 풍사를 꺾고 위기(胃氣)를 조리시키는 약을 먹이면서 약성이 냉하건 뜨겁건 간에 음양의 기운을 균등하

게 하면 그만이다. 태일보생단、취보단、선갈산、신보기제단、내복단、왕씨성성산、성비산、대성비산、온백환 중에서 골라 쓴다.

○若陽虧陰盛, 病已傳過, 純屬慢驚, 無搐、掣、反、引、竄、視之證, 而但昏沉者, 與【星香全蝎散】、【定命飲】、【四聖散】、【烏蝎四君子湯】、【天南星散】、【烏沉湯】、【沉香散】之屬. ○若手足冰冷者, 方可回陽, 用【硫黃】、【附子】.

○양증이 별로 없고 음증이 심하면 병이 이미 악화되어 완전히 만경풍으로 된 것이다. 축(搐)、제(掣)、반(反)、인(引)、찬(竄)、시(視) 증상이 없고 정신만 혼미하면서 까라지는 경우에는 성향전갈산、정명음、사성산、오갈사군자탕、천남성산、오침탕、침향산 같은 약을 먹인다. ○손발이 얼음장 같이 차가운 경우에는 우선 양기를 회복시켜야 하니 유향이나 부자를 쓴다.

○慢驚下痰身煖者, 【天南星丸】、【蘇合香白圓子】, 痰盛者, 【神保既臍丹】、【礞石散】, 虛甚而不可下痰者, 【靈脂圓】、【七珍圓】. 如腦麝銀粉巴霜, 寒涼通關利腸輩, 一切禁止. [麝雖溫, 然性屬陰, 能化陽通腠.] 其有陽已傳陰, 或者不知, 但見引搐, 誤用腦麝銀粉及寒涼輩, 必爲慢脾陰逆, 若慢驚之候, 其眼半開半合, 則當預作慢脾風調理之. 於斯時也, 陰氣易盛, 陽氣易微, 時刻少延, 則藥力不及, 頻併投藥, 則勢又不可, 纔進一二劑, 須審有無傳變, 稍定則和平爲愈, 勢篤則以剛劑投之, 此治慢驚之大要然也.

○만경풍을 앓을 때 각종 증상별 치료법이다. 담연을 대변으로 빼낸 후 몸통이 뜨끈한 경우에는 천남성환이나 소합향백원자를 쓴다. 담연이 심한 경우에는 신보기제단이나 몽석산을 쓴다. 기허가 심하여 담연을 대변으로 빼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지원이나 칠진원을 쓴다. 뇌자、사향、수은、경분、파두상처럼

약성이 차가우면서 구멍을 소통시키고 대변으로 빼내는 약재들은 절대 금한다. [사향의 약성은 따뜻하지만 음에 속하기 때문에 양증을 변화시키고 주리를 소통시킨다.] 양증이 이미 음증으로 변했지만 흑자는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축닉 증상만 보고 뇌자、사향、수은、경분 같은 약성이 차가운 약재를 잘못 쓰고 있다. 만비풍이 음증이면서 역증이라는 점은 확실하니 만경풍의 증상이 있을 때 눈을 반쯤 감았다면 미리 만비풍으로 여기고 조리해야 한다. 이 시점에는 음기가 왕성해지고 양기가 미약해진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약의 효과가 병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주 여러 약을 먹이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 1~2첩 정도를 먹이고 나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악화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증세가 조금 안정되면 화평한 약을 써서 좋아지게 하고, 증세가 위독해지면 약성이 센 약을 먹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만경풍을 치료하는 핵심이다.

【慢脾風之候】，面青額汗，舌短頭低，眼合不開，困睡中搖頭吐舌，頻嘔腥臭，噤口咬牙，手足微搐而不收，或身冷，或身溫而四肢冷，其脉沉微，陰氣極盛，胃氣極虛，十救一二。盖由慢驚之後，吐瀉損脾，病傳已極，總歸虛處，惟脾所受，故曰脾風。若逐風，則無風可逐，若療驚，則無驚可療，但脾間痰涎，虛熱往來，其眼合者，脾困氣乏，神志沉迷，痰涎凝滯然爾。世所謂慢風難療者，慢脾風是也。然慢脾一名虛風，凡小兒或吐或瀉之後，面色虛黃，大勢虛損，若因虛而發熱，繼此必得慢脾風，纔見搖頭斜視，以手摸人，昏困喜睡，額上汗多，身亦粘汗，其聲沉小而焦，即是脾風之證，不必皆由急慢風傳次而至，又當識之。

만비풍의 증상은 낮빛이 파래지면서 이마에 땀이 나거나, 혀가 짧아지면서 목을 움추리거나, 눈을 감은 채 뜨지 못하거나, 쓰러져 자면서 머리를 떨고 혀가 나오거나, 자주 구역질을 하면서 비린내가 나거나, 입을 악다물거나, 손발이 약간 경직된 채 가누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다. 몸통은 서늘하기도 하고, 몸통은 따뜻하지만 사지가 서늘하기도 하다. 맥은 침미(沉微)하다. 음기가 극도로 왕성하고 위기(胃氣)가 극도로 허하기 때문에 열에 하나 둘만 살 수 있다. 만비풍은 만경풍을 앓으면서 구토와 설사로 비장의 기운이 손상되고 병세가 이미 매우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장으로 사기가 모두 몰리는 것이다. 그래서 비풍(脾風)이라고 한다. 만비풍은 풍사를 몰아내려 해도 몰아낼 풍사가 없고, 경풍을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할 경풍이 없다. 다만 비장 부근에 담연이 있고 허열이 왔다 갔다 한다.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비장의 기운이 바닥나고 정신이 혼미해져 담연이 뭉쳐있어서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만풍(慢風)은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게 바로 만비풍이다. 그러나 만비풍을 허풍(虛風)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아이들이 구토하거나 설사한 후에 낮빛이 누렇게 뜬다면 허손된 상태이다. 허손 때문에 열이 난다면 그 다음에 필시 만비풍을 앓을 것이다. 이때 머리를 떨면서 사팔이 되거나, 손으로 사람들을 더듬거나, 정신이 혼미한 채 계속 자러나, 이마에 땀이 많이 나면서 몸통에도 끈적한 땀이 나거나, 목소리가 작게 가라앉으면서 갈라지는 증상을 보이면 만비풍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급경풍과 만경풍이 악화되어 생긴 만비풍만 있는 건 아니니 이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治法大要, 生胃回陽, 【黑附湯】、【川烏散】、【金液丹】、【白圓子】各半, 【生附四君子湯】可斟酌用, 胃氣漸復則【異功散】輩, 溫平而調理之, 如【蝎附散】、【陰癇散】、【靈砂】、【震寧】等, 亦可參用. ○若其眼半開半合, 手足不冷, 證候尚在, 慢驚則勿用回陽. ○或已入慢脾而陽氣未甚脫者, 亦不可用【硫黃】、【附子】. 凡服【回陽湯】劑, 手足漸煖者, 仍以【醒脾散】等, 繼其後以調之. ○慢脾下痰, 輕者【神保既濟丹】、【白僵蚕圓】, 重者【辰砂膏】, 甚則【七宝妙砂】矣. 慢驚慢脾逆惡證候, 諸藥不效者, 如有太衝脉, 則取【百會穴】灸之. 此治慢脾風之大要然也. [灸百會穴, 詳具于後.]

만비풍 치료의 핵심은 위기(胃氣)를 살리고 양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흑부탕、천오산、금액단、백원자、각반생부사군자탕 중 증상에 따라 쓰다가, 위기가 점점 회복되면 이공산 같은 약처럼 따뜻하고 평이한 성질의 약으로 몸을 조리해야 한다. 갈부산、음간산、영사(靈砂)、진녕(震寧)¹ 같은 약들도 함께 쓸만하다. ○눈을 반쯤 감은 아이가 손발이 서늘하지 않으면 다른 증상이 있더라도 만경풍에는 양기를 회복하는 약재를 쓰면 안 된다. ○이미 만비풍으로 약화되었으나 양기가 완전히 바닥나지 않은 경우에도 유향이나 부자를 쓰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양탕을 복용하고 나서 손발이 점점 따뜻해지는 경우에는 잇달아 성비산 같은 약으로 조리시켜야 한다. ○만비풍으로 담연을 설사할 때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신보기제단、백강잠원을 쓰고, 증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진사고를 쓰며, 매우 심한 경우에는 칠보묘사단을 쓴다. 만경풍이나 만비풍에 사증이 나타나 온갖 약이 모두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 이때 태충혈에 맥이 잡히면 백회혈에 뜸을 뜬다. 여기까지가 만비풍을 치료하는 핵심이다. [백회혈에 뜸을 뜨는 것은 뒤에 자세히 나온다.]

雖然小兒有病, 問之則幼不能言, 望之則易驚易喜, 診之則或惕或動, 自六歲以下, 黃帝不載其說者, 以其難也. 又況驚風一科, 古無全書, 則尤爲難. 如前所云, 固足以知三證之詳矣. 至於辨析體認通變之際, 有言而不能盡其蘊者, 可不深加之意乎? 驚風一也, 痙瘓、發癇、卒中²、天癇、撮口, 亦風之種類焉.

소아가 병에 걸렸을 때 질문해도 어려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바라보아도 잘 놀라거나 잘 웃기만 하며, 진맥해도 무서워하거나 움직인다. 6살 아래의 소아에 대해 《황제내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어려움 때문이다. 더구나 경풍이란 병증은 전체를 설명한 옛 의서라 없으니 더욱 알기 어렵다. 이것이 앞 부분에서 말한 '참으로 급경풍、만경풍、만비풍 3가지 병증을 자세히 알아차릴 만하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풍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깊은 뜻까지 전부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니 독자가 더욱 깊게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풍과 같이 나타나는 병증으로 치경(痙瘓)、발간(發癇)、중풍(中風)、천조(天癇)、찰구(撮口)가 있으니 이것들도 풍병의 종류이다.

○【痙】者, 手足³冷, 【瘓】者, 舉身僵仆, 【痙瘓】本一病, 當以陽剛陰柔別之. 剛者有汗, 柔者無汗, 肢體強直, 腰身反張, 甚於風癇, 大抵不治.

○치(痙)는 손발이 얼음처럼 싸늘한 것이고, 경(瘓)은 온몸이 뻣뻣한 것이다. 치와 경은 본래 같은 병이니 양기가 강한지 음기가 약한지를 가지고 구별해야 한다. 양기가 강한 경우에는 땀을 흘리고, 음기가 약한 경우에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사지와 몸통이 강직되고 허리가 뒤로 꺾이는데 증세가 풍간(風癇)보다 심하다. 대체로 치료하지 못한다.

○【癇】者，目睛涎流，神氣鬱勃，四体不收，沉默昏潰，似死似生，其聲惡呌，[身軟時醒有聲者爲癇，身強不醒無聲者爲瘥，凡治驚遇咬牙啼呌者，須與通心行小便秘。] 癇亦多種，錢氏有牛羊雞犬豬之說，大抵以風驚食三證別而治之。

○간(癇)은 눈을 부라리면서 담연이 입 밖으로 흘러 나오고, 정신이 불안정하며, 사지를 가누지 못하고, 말없이 정신을 잃으며, 죽은 듯하기도 하고 산 듯하기도 하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병이다. [몸에 힘이 없고 가끔씩 정신을 차리며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간(癇)이다. 몸이 뻣뻣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는 치경(瘥瘥)이다. 경풍으로 이를 악다문 채 소리치르면서 우는 아이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심규(心竅)를 통하게 만들고 소변을 내보내는 약을 먹어야 한다.] 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전율의 《소아약증직결》에서는 우간(牛癇)、양간(羊癇)、계간(雞癇)、견간(犬癇)、저간(猪癇)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풍사인지 놀래서인지 음식 때문인지 이 3가지로 증상을 구별하여 치료한다.

○【中風】者，五臟各有脉證，隨五臟俞以施灸法，與大科則同，特小小分劑耳。

○중풍은 오장마다 각각의 맥상과 증상이 있으니 오장별 수혈(俞穴)에 따라 뜸을 뜬다. 성인과 동일하고 분량만 적을 뿐이다.

○【天癇】者，身体壯熱，翻眼擡⁴精，手足搐掣，其狀如魚之上釣。[又內癇，腹痛多啼，唇黑陰腫，偃僂反張，眼有紅筋班血，乃寒氣壅結兼驚得之。]

○천조(天癇)는 온몸에 열이 끓고 눈을 뒤집거나 치켜뜨며 손발에 축늑이 생기는 것으로 전체적인 모양이 낚시에 걸린 물고기 같다. [내조(內癇)라는 것도 있으니 복통으로 계속 울고 입술이 까맣게 되며 부랄이 붓고 허리가 앞으로 굽거나 뒤로 젖혀지며 눈에 핏줄이나 핏덩이가 생기는 병증이다. 한사가 뭉쳐있을 때 놀라면 이 병증이 생긴다.]

○【撮口】者，一臘內之篤疾，臍風、胎風、鎖肚、吊腸、卵疝，俱至撮口，盖風入心脾，故令小兒氣促，口撮如囊而不乳也.

○찰구(撮口)는 생후 1달 미만의 갓난아이에게는 위독한 병이다. 제풍(臍風)、태풍(胎風)、쇄두(鎖肚)、조장(吊腸)、난산(卵疝) 모두 찰구가 될 수 있다. 풍사가 심장과 비장으로 침입하여 생기기 때문에 숨을 급하게 쉬고 입이 자루 입구처럼 오무려져 젖을 빨지 못하게 된다.

○其有初生百日，頻頻吐衄，呵來噴去，睡裏多驚，眼翻肚脹，手足緩怠，煩燥多啼者，當作胎驚風理之. ○又有變症，亦發微驚，不治自愈.

○생후 100일 미만의 갓난아이가 자주 토하거나 먹자마자 뱉거나 자면서 계속 놀라거나 눈이 뒤집히면서 배가 똥똥해지거나 손발이늘어지거나 번조 증상으로 계속 우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뱃속에서부터 생긴 경풍으로 생각하고 잘 조리시켜야 한다. ○그밖에 발작하면 살짝 놀라는 이상 반응도 있지만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좋아진다.

○又瘡豆欲發，亦或搐掣如風，若鼻冷、脚冷、尻冷，耳後有紅脉赤縷者，必是瘡豆之證，戒不可以【腦】、【麝】開腠及【銀】、【粉】、【巴】、【硝】轉下而冰壓之，是辨析之不可不審也。至若眼陷無光，白睛灌人，爪甲青黑，四体垂躄，[一臘氣絕，不可勉強下藥。] 面赤如緋，面青背冷，頭目仰後，足冷目青，腹脹胃高，手擎胃膈，唇舌鼻黑，魚口氣龜，顙腫顙坑，啼哭無淚，冷汗不止，汗出如珠如油，眼青，瀉黑血悶，涎入心肺，噓舌出口，咬人，五硬、五軟、五冷、五乾，皆惡證也。

○두창에 수포가 돋으려고 할 때도 간혹 경풍처럼 축낙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 코와 다리와 엉덩이가 서늘하고 귀 뒤에 붉은 싯핏줄이 생긴다면 필시 두창으로 수포가 돋으려는 증상이니 뇌자·사향으로 주리를 열어주거나 수은·경분·파두·망초로 갑자기 설사시키면서 얼음으로 누르는 일을 절대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 점을 반드시 자세히 살펴 분석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모두 역증이다. 눈이 움푹 들어가면서 생기가 없거나, 흰자위가 흘러 들어가거나⁵, 손발톱이 검푸른 색이 되거나, 사지를 힘없이 늘어뜨리거나 [생후 1달 미만의 갓난아이가 기절했을 때는 억지로 약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얼굴이 새빨개지거나, 얼굴이 창백하면서 등이 서늘해지거나, 머리와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거나, 발이 서늘하면서 눈이 파래지거나, 배가 똥똥해지면서 가슴이 튀어나오거나,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거나, 입술과 혀와 코가 까매지거나, 입을 벌린 채 숨이 거칠어지거나, 숫구멍이 붓거나 움푹 패이거나, 울면서 눈물이 나지 않거나, 식은땀이 많지 않거나, 구슬이나 기름방울 같은 땀을 흘리거나, 눈에 푸른 빛이 돌거나, 검은 피가 섞인 설사를 하면서 답답해 하거나, 담연이 심폐로 들어가서 혈떡이면서 혀가 나오거나, 사람을 깨물거나, 오경(五硬)·오연(五軟)·오랭(五冷)·오건(五乾)이 생기는 경우는 모두 역증이다.

○【急驚】，眼睛翻轉，口中出血，兩足擺跳，腹肚搐動，或神緩而摸躰尋衣，或證罷而神昏氣促，噴藥不下，通關不嚏，心中痛絕，忽大叫者，難愈。

○급경풍일 때 눈이 뒤집히면서 눈동자가 돌아가거나, 입에서 피가 나거나, 양쪽 발을 파닥거리거나, 배에 힘줄 같은 것이 튀어나오면서 떨리거나, 간혹 정신이 풀리면서 몸이나 옷을 더듬거나, 간혹 발작 증상이 멎은 후에도 정신이 혼미하면서 숨을 헐떡거리거나, 약을 먹이면 곧 뱉어내면서 넘기지 못하거나, 코에 약가루를 붙여 넣어도 재채기를 하지 않거나, 가슴을 아파하면서 기절하거나, 갑자기 크게 소리지르는 경우는 좋아지기 어렵다.

○【慢驚】，四肢厥冷，吐⁶瀉加嗽，面黯唇慘，胃痛鵝聲，兩脇動氣，口生白瘡〔胃閉損也〕，髮直搖頭，眼睛不轉，涎鳴喘噎，口眼手足一邊牽引者，難痊。

○만경풍일 때 사지 끝부터 서늘해지거나, 구토와 설사에 기침까지 하거나, 얼굴이 까매지면서 입술도 까매지거나, 배 아파하면서 까마귀 소리를 내거나, 양옆구리에 살이 떨리거나, 입에 흰 창이 생기거나〔위부가 손상된 것이다〕, 머리털이 곤두서면서 머리를 떨거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거나, 가래가 끓으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목이 막히거나, 입과 눈과 손발까지 한쪽 방향으로 강직된 경우는 낫기 어렵다.

○【慢脾】，身冷粘汗，直臥如尸，喘嗽頭軟，大小便不禁，背⁷，口噤頭搖者，最難爲力。

○만비풍일 때 몸통이 서늘하면서 끈적한 땀을 흘리거나, 시체처럼 곳곳이 누워있거나, 심한 기침을 하면서 머리가 돌아가거나, 대소변이 새어 나오거나, 등이 곳곳하거나, 입을 악다물면서 머리를 떠는 경우는 치료하기 가장 어렵다.

○或者慢驚欲絕之時，虛痰上攻，咽喉引氣，呼吸龐大，脉來浮數，是謂陰盛強陽，錯認以爲陽氣已復，直與峻藥下痰，痰隨藥下，氣隨痰絕，人以醫殺咎之，此則不識覆燈將絕之證，雖不下藥，亦無生意矣。

○혹자는 만경풍으로 기절하려는 시점에는 기허로 생긴 담연이 위로 치받아 목구멍으로 숨을 끌어당겨 호흡이 매우 거칠어지면서 맥은 부삭(浮數)하다고 한다. 이는 음기가 왕성해져 역지로 양증이 되었다는 신호인데, 착오로 양기가 회복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약성이 강한 약을 주어 담연을 대변으로 빼내면 담연이 약을 따라 나오긴 하지만 위기도 담연을 따라 끊어져버리니 사람들은 의원이 죽였다고 탓한다. 이는 등잔불을 얹어져 불이 꺼져가는 줄 모르는 것이니 하법을 쓰지 않더라도 살릴 방법은 없다.

○又有喉中痰涎，聲如拽鋸，一兩日間但閉目不開者，此爲虛候之極，虛痰飽養其氣然也。凌遽下痰，亦未可保，姑以【蘇合香】、【白圓子】輩與之。

○그 외에 목구멍에 담연이 끼서 톱질 같은 목소리가 나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눈을 감은 채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허증이 극심해진 것이니 기허로 생긴 담연이 그나마 배를 채워 기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갑자기 담연을 배출시켜도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니 우선 소합향원、백원자 같은 약을 먹인다.

○他如急驚安靜之後，兩日再發，面色變易，又三四日，定而復發，其後淹延，必至沉重，若急驚證候，徒知定搐，不去驚熱，纔見搐定，遂指爲安，未幾復搐，是爲過街候。

○그밖에 급경풍이 안정된 후 이틀 안에 재발하여 낮빛이 나쁘게 변했다가 또 3 - 4일 동안 안정되었다가 재발하여 그 뒤에 오래 끌면 필시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급경풍에 걸렸을 때 축닉을 진정시킬 줄만 알고 경열(驚熱)을 없애지 않으면 겨우 축닉만 진정된 다음에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축닉이 재발한다. 이 병은 자충(塵蟲) 때문에 생겼다고 하여 과가(過街)라고 한다. (자충은 신일(申日)에 길을 지나가기(過街) 때문에 과가라고도 부른다)

○若慢驚之後，藥服已痊，尙虛乏，數日未省者，或妄攻之，則前功俱廢，是牀認之不可不精也。[其或傷風、傷寒、傷暑、傷濕、傷食、停積、疳勞、煩渴、盤腸、肚癰、諸瘡疽證，皆因之而發風，須當牀認，隨某證療某病，正病去則風自去矣。] 按錢氏方小兒發搐，身熱喘急，目斜露睛，四肢逆冷。李醫槩以定驚搐一劑與之，殊無主對，錢遂別之曰，發搐爲肝實，身熱喘急爲肺虛，目斜露睛爲肝肺相勝，四肢冷爲脾虛。治法，先用益脾補肺，胃氣稍復，然後瀉肝涼驚而安。○一證。直視而不能食，或謂神祟使然，錢知其爲肝旺勝脾，與之瀉肺而愈。○一證。吐瀉或利，小便過多，以致脾虛不食，錢用【益黃散】作效，已經數日，忽爾不語。衆醫類以【失音湯】劑主之，竟無寸效。錢氏用【地黃圓】數劑補腎，於是能言，所以然者，前乎清利小便太過，遂使脾腎俱虛，雖已補脾，而腎尙虛故爾。

○만경풍에 약을 먹고 증상은 나았으나 여전히 기운이 허약하고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경우에 혹시라도 함부로 강한 약을 쓰면 이전에 치료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상풍、

상한、상서、상습、상식이나 적취、감로、번갈、반장、천조、창저 같은 병은 모두 풍증을 수반한다. 어떤 증상일 때 어떤 병으로 여겨 치료해야 하며 그 병이 나으면 풍증이 자연히 없어진다는 이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율의 《소아약증직결》을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 소아에게 축닉이 발작하여 몸통이 뜨겁고 숨을 헐떡이며 눈이 쏠리면서 뒤집리고 사지 끝부터 서늘하게 되었다. 이씨 의원은 으레 경풍으로 생긴 축닉을 진정시키는 약을 먹었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전율이 새로 설명하기를 '축닉이 발작한 것은 간기(肝氣)가 실하기 때문이고, 몸통이 뜨겁고 숨을 헐떡이는 것은 폐기(肺氣)가 허하기 때문이며, 눈이 쏠리면서 뒤집히는 것은 간장과 폐장의 기운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고, 사지 끝부터 서늘해지는 것은 비기(脾氣)가 허하기 때문입니다. 치료하려면 우선 비기와 폐기를 보익하여 위기(胃氣)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 그 다음 간기를 빼주면서 경풍으로 생긴 열을 식혀주면 좋아집니다.'라고 하였다. ○다른 증례. 눈에 초점이 없으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다. 혹자는 귀신이 들어 그런 것이라 하였다. 전율은 왕성해진 간기가 비장을 억눌러 생긴 증상임을 알아냈고, 약을 먹여 폐기를 빼주니 좋아졌다. ○다른 증례.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간혹 대변을 지리고 오줌을 많이 누던 아이가 결국 비기(脾氣)가 허해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전율이 익황산을 써서 효과를 보았으나 며칠 후에 갑자기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의원들이 실음탕 계역의 약으로 치료해보았으나 결국 효과가 조금도 없었다. 전율이 지황원 몇 첩을 써서 신기(腎氣)를 보익해주자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보다 앞서 소변을 너무 많이 빼내어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모두 허해진 상태라 비기를 보익하더라도 신기가 여전히 허했기 때문이다.

○至論肺虛痰實，治法當下，故下之必先益脾，然後瀉肺。[經云，欲瀉其子，先補其母，此錢氏要訣。錢氏方【瀉青丸】、【瀉白散】、【導赤散】、【瀉黃散】、【宣風散】，乃瀉五臟藥，【益黃散】、【白朮散】、【阿膠散】、【地黃圓】，皆補五臟藥。]

○폐기가 허하여 담연이 왕성할 때는 당연히 하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법을 쓸 때는 반드시 비기를 먼저 보익한 후에 폐기를 빼주어야 한다.

[《난경》에서 말한 '자격(子格)의 기운을 빼주려면 우선 모격(母格)을 보익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전율의 핵심 주장이다. 《소아약증직결》에 나오는 사청환、사백산、도적산、사황산、선풍산이 오장의 기운을 빼주는 약이고, 익황산、백출산、야교산、지황원은 모두 오장의 기운을 보익하는 약이다。]

○心中驚熱，清心而熱不退，則與之助胃，胃不虛則熱不生，或胃虛不食，又且大小便難，則不爲之疏利，盖利之則胃愈虛，而身必冷。

○경풍으로 가슴 속에 열이 있을 때 가슴의 열을 씻어내리는 약을 썼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위기(胃氣)를 복돋는 약을 먹어야 한다. 위기가 허하지 않으면 열도 생기지 않는다. 혹시나 위기가 허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데다가 대소변까지 잘 누지 못할 때는 대소변을 빼주는 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대소변을 빼주면 위기가 더욱 허해져서 몸통이 서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其有傷風寒而吐瀉者，欲止吐瀉，不特溫脾，須以發散之劑先之，風寒散而吐瀉自止矣。不特此爾，小兒平常服藥過多，頑玩臟腑，調和之劑不愈，則易之以攻擊，固守之劑太過，則時乎而疏利，主治在我，不可不問源流，不可徧徇病家所欲，圓機達變，

消息輕重而應之. 是通變之不可無法也. 大槩小兒臟腑柔嫩, 易實易虛, 易冷易熱, 兒有大小壯弱, 病有輕重淺深, 所貴乎目視指切, 意度心惟, 醫權藥衡, 斟酌對治, 用之得中爲上矣.

○풍사와 한사에 상한 상태에서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에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려면 비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만 써서는 어렵다. 반드시 발산시키는 약을 먼저 써서 풍사와 한사를 흘리면 구토와 설사가 자연스레 멎을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가 평소에 약을 너무 많이 먹어 오장육부가 망가진 경우가 있다. 이때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약으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증상을 공격하는 약재로 바꿔보고, 배출을 줄이는 약을 너무 많이 썼다면 가끔은 대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약을 써야 한다. 치료의 주도권은 의원에게 있으니 병이 생긴 원인을 꼭 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환자 쪽에서 하고싶은 치료만 따라서는 안 되니 융통성 있게 변화에 대처하되 증상의 경중을 살펴서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변화에 대처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까닭이다. 대체로 아이의 오장육부는 연약하여 쉽게 실증이 되고 쉽게 허증이 되며, 금세 서늘해졌다가 금세 열이 나기도 한다. 아이들 중에도 몸집이 크거나 작은 경우가 있고, 몸이 튼튼하거나 허약한 경우가 있다. 또한 병에도 증상의 경중이 있고, 병의 진행 단계가 깊고 얕음이 있다. 그러므로 눈으로 살피거나 맥을 짚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마음을 집중하며 의술과 약을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상황을 종합하여 증상에 따라 치료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상이다.

¹. 진녕(震寧) : 어떤 약 혹은 약재인지 모르겠다. ←

2. 卒中 中風 ※아래 내용 ←

3. 水 氷 ※문맥상 ←

4. 擡精 戴睛 ※문맥상 ←

5. 흰자위가 흘러 들어가거나 : 白睛灌人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

6. 呌 吐 ※문맥상 ←

7. 毋 直 ※문맥상 ←



虎口三關紋訣法 호구(虎口)와 삼관(三關)의 핏줄에 대한 노래와 설명

虎口者, 叉手處是也. 三關者, 第二指之三節是也. [除拇指爲第一指.] 近虎口第一節爲初關, 亦名風關, 第二節爲中關, 亦名氣關, 近指端第三節爲末關, 亦名命關. 男以左手, 女以右手側看之. 驚風初得, 紋出虎口, 或在初關, 多是紅色, 轉至中關, 色赤而紫, 看病又傳過, 其色紫青, 病勢深重, 其色青黑 [青而紋亂者, 病深重.] 若見純黑, 危惡不治. 大抵紅者風熱輕, 赤者風熱盛, 紫者驚熱, 青者驚積, 青赤相半, 驚積風熱俱有, 主急驚風, 青而淡紫, 伸縮來去, 主慢驚風, 紫絲青絲, 或黑絲隱隱相雜, 似出不出, 主慢脾風. 凡手紋在初關者易治, 過中關者難治, 透末關者不治, 三關直透, 大抵不治. 然紋勢彎曲入裏者, 病雖重而證順, 猶可用力, 若紋勢弓反出外, 駸駸靠於指甲者, 斷不可回, 其有三關紋如流珠流米三五點相連, 或形於面, 或形於身, 危惡尤甚. ○陽爲男, 陰爲女, 三關虎口紋, 男以左手, 女以右手驗之. 蓋取左手屬陽, 男以陽爲主, 右手屬陰, 女以陰爲主耳. 然男女一身, 均其此陰陽, 左右兩手, 亦當參驗. 左手之紋, 病應心肝, 右手之紋, 病應肺脾, 於此消息, 又得變而通之意.

호구(虎口)는 손바닥이 접히는 곳이고, 삼관(三關)은 검지의 안쪽 3개 마디이다. [검지는 엄지를 제외하면 첫 번째 손가락이다.] 호구와 가까운 첫 번째 마디를 초관(初關) 또는 풍관(風關)이라고 하고, 두 번째 마디를 중관(中關) 또는 기관(氣關)이라고 하며, 세 번째 마디를 말관(末關) 또는 명관(命關)이라고 한다. 남자는 왼쪽 손을, 여자는 오른쪽 손을 측면에서 살핀다. 경풍 초창기에는 핏줄이 호구에 나타나고(초관에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붉은 색이다.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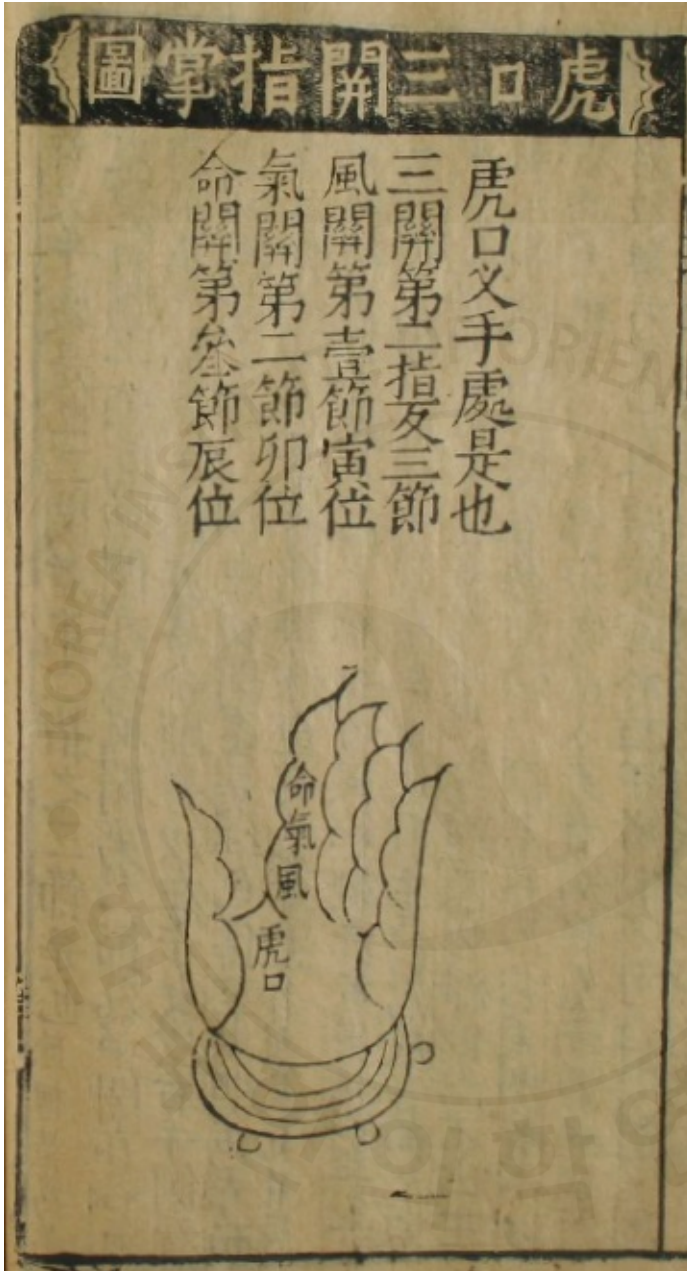
화되어 중관까지 뻗으면 색깔이 붉으면서 보라빛이 돈다. 병세를 살펴보았을 때 더 악화되면 색깔이 보라빛에 푸른 색이 돈다. 병세가 완전히 심해지면 청흑색이 된다. [색깔이 푸르고 핏줄이 복잡한 경우는 병세가 완전히 심한 것이다.] 혹시나 색깔이 새까맣게 나타난다면 사증이니 치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붉은 색은 풍증과 열이 가벼운 것이고, 빨간 색은 풍증과 열이 심한 것이며, 보라빛은 경풍으로 열이 있는 것이고, 푸른 핏줄은 경풍으로 적취가 있는 것이다. 푸른 색과 빨간 색이 반반이면 경풍으로 생긴 적취와 풍증 및 열이 모두 있는 것이니 주로 급경풍이다. 푸른 색에 옅은 보라빛을 띄고 핏줄이 신축하면서 길이가 변하면 주고 만경풍이다. 보라색과 푸른 색 실 같이 나타나면(검은 색 실이 언뜻 섞여서 보일 듯 말 듯 하기도 한다) 주로 만비풍이다. 핏줄이 초관에 있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중관을 넘어가면 치료하기 어려우며, 말관까지 넘어가면 치료할 수 없다. 삼관에 직선으로 핏줄이 생기면 대개는 치료하지 못한다. 그러나 핏줄이 구불구불하면서 중앙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면 병세가 깊더라도 겹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약하니 아직 치료를 시도해볼 만하다. 핏줄이 뒤집힌 활처럼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양이면서 손톱쪽으로 빠르게 향하는 경우에는 결단코 회생할 수 없다. 삼관의 핏줄이 구슬이나 쌀알이 흐르는 것처럼 3 - 5개의 점 모양이면(얼굴이나 몸통에 나타나기도 한다) 사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남자는 양에 속하고 여자는 음에 속하니 삼관과 호구의 핏줄은 남자는 왼손으로 따지고 여자는 오른손으로 따진다. 왼손이 양에 속한다는 의미를 취하여 남자는 양에 속하는 부분을 위주로 하고, 오른손이 음에 속한다는 의미를 취하여 여자는 음에 속하는 부분을 위주로 했을 뿐이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사람이라 음과 양이 모두 있으니 양손을 모두 따져봐야 한

다. 왼손의 핏줄은 심장과 간장의 병증을 나타내고, 오른손의 핏줄은 폐장과 비장의 병증을 나타내니 이렇게 살펴보면 '변하면 통한다'는 의미를 깨우칠 것이다.

【附】指掌圖

〔주송정 추가〕지장도





〈虎口三關指掌圖 호구삼관지장도〉

虎口叉手處是也, 三關第二指反三節, 風關第壹節寅位, 氣關第二節卯位, 命關第參節辰位.

호구(虎口)는 손바닥이 접히는 곳이다. 삼관(三關)은 검지의 안쪽 3개 마디이다. 풍관(風關)은 첫 번째 마디로 인(寅) 방향이고, 기관(氣關)은 두 번째 마디로 묘(卯) 방향이며, 명관(命關)은 세 번째 마디로 진(辰) 방향이다.

嬰兒生下一月至三歲, 當看虎口內脉兩邊.

생후 1달 갓난아이부터 3살 아이까지는 호구 안쪽 핏줄의 양 옆을 살펴보아야 한다.

【附】辨虎口手訣

〔주송정 추가〕 호구를 분간하는 수결

夫三歲已前若存患, 須看虎口脉, 次指表節爲命關, 次氣關, 次風關. 古人所謂'初得風關病猶可, 傳入氣命定難陳'是也. 湯氏云, '小兒初生至五歲, 血氣未定, 呼吸至數大過, 必辨虎口色脉, 方可察其病之的要'者, 正謂此也. 男以左手觀之, 女以右手觀之.

3살 이전에 병이 있으면 반드시 호구의 핏줄을 살펴보아야 한다. 검지의 바깥쪽 마디가 명관(命關)이고 다음이 기관(氣關)이며 그 다음이 풍관(風關)이다. 옛 현인이 말한 '풍관에 핏줄이 나타나면 그 병은 아직 치료할 수 있고, 악화되어 기관이나 명관까지 이어지면 치료를 말하기 어렵네'라는 게 이것이다. 양씨(湯氏)가 언급한 '갓난아이부터 5살까지는 혈과 기가 안정되지 않다. 호흡이나

맥박이 너무 빠르다면 반드시 호구의 색깔과 핏줄을 분간해야 어떤 병증인지 정확하게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 딱 이러한 경우이다. 남자는 왼손을 살피고, 여자는 오른손을 살핀다.

【附】定指上二¹關

〔주송정 추가〕삼관의 핏줄에 따라 치료 여부를 정한다

辰關〔指頭上節〕卯關〔指中節〕寅關〔指下節連掌〕

진관(辰關)〔검지 끝 마디〕묘관(卯關)〔검지의 가운데 마디〕인관(寅關)
〔검지의 손바닥쪽 마디〕

脉紋從【寅關】起不至卯關者, 病易治, 若連於【卯關】者, 有病難治, 如【寅關】連【卯關】侵過【辰關】者, 十難救一, 若脉紋小或短者, 看病不妨.

핏줄이 인관에서 시작하여 묘관까지는 닿지 않았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증이다. 묘관까지 닿았다면 치료하기 어려운 병증이다. 인관에서 묘관을 지나 진관까지 뚫고 나갔다면 열에 하나도 살리기 어렵다. 핏줄이 작거나 짧아도 병세를 살피는 데는 지장이 없다.

【附】指紋脉主病

〔주송정 추가〕핏줄의 모양에 따른 병증

初起【寅關】淺紋侵過卯沈

生技終不治 辰位實難禁

초기에 인관에 핏줄이 생기면 병세가 가볍고 / 핏줄이 묘관까지 들어가면 병세가 무겁네.

의술을 펼쳐도 끝내 치료하지 못하니 / 진관까지 들어가면 실로 죽음을 막지 못하리.

青色胎氣不全 [主驚積, 多搐掣]

指脉深青臥不寧 微青腹痛糞多青

青兼黑色盤腸癰 發搐牽抽不暫停

청색 핏줄은 태기가 온전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경풍으로 생긴 적취로 주로 나타나고 축낙도 많이 나타난다]

검지의 핏줄이 새파란 색이면 누워도 불편하고 / 푸른 빛이 돌면 배가 아프면서 파란 대변을 누네.

검푸른 색은 반장이나 천조이니 / 축낙이 발작하고 경직이 일어나 잠시도 쉬지 않네.

紅色驚入脾竅

孩兒指脉深紅色 發熱驚時身強直

微紅下痢腹中疼 吐瀉脾虛多不食

홍색은 경풍이 비장이나 몸의 구멍으로 흘러갔을 때 나타난다

갓난아이의 검지 핏줄이 새빨간 색이면 / 열이 나면서 놀랄 때 몸이 강직되네.

분홍색이면 똥을 지리면서 배가 아프고 / 구토와 설사를 하니 비기가 허하여 대부분 먹지 못하네.

紫色胎驚熱

紫中紋生紫色深 驚時哭泣又呻吟

微中紫色腸中痛 吐瀉紋彎主惡心

자색은 태경(胎驚)으로 열이 있을 때 나타난다

보라빛 피부에 짙은 보라색 핏줄이 생기면 / 놀란 후에 계속 울고 신음까지 하네.

그저 핏줄만 보라빛이면 대소장이 아프고 / 구토와 설사를 하며 핏줄이 구부러지면 주로 오심이 있네.

【附】脉指歌

〔주승정 추가〕맥지가(脉指歌)

小兒食指變三關 男左女右一般看

皆知初氣中風候 末是命門易亦難

要知虎口氣紋脉 倒指看紋分五色

黃紅安樂五臟和 紅紫依稀有損益

紫青傷食氣虛煩 【青】【黑】之時氣候逆

忽然純黑在其間 好手醫士心膽寒

소아는 검지의 삼관에 변화가 나타나니 / 남아는 왼쪽 여아는 오른쪽을 일반적으로 살펴야 하네.

초관과 중관이 중풍의 징후라는 건 모두 알고 / 말관은 목숨의 문이니 쉽고도 어렵네.

호구의 색깔과 핏줄을 꼭 알아야 하니 / 손바닥을 뒤집어 핏줄을 살피고 오색을 구분해야 하네.

누런 살에 살짝 붉은 핏줄은 편안한 상태라 오장도 조화롭고 / 살짝 붉은 살에 보라빛 핏줄은 모호하니 상태가 좋기도 나쁘기도 하네.

보라빛 살에 푸른 핏줄은 상식과 기허와 번열이 있고 / 푸른 살에 검은 핏줄이 나타나면 건강이 위독하네.

갑자기 새까만 것이 부근에 생기면 / 의술 좋은 의원도 가슴이 철렁하네.

若也直上到風關 粒米短長分兩端

如鎗衝射驚風至 分作枝叉有數般

弓反乘順外爲逆 順逆交連病已難

叉頭長短尤可救 如此醫士仔細看

핏줄이 곧장 올라가 풍관(초관)에 닿고 / 털끝만큼의 길이라도 양쪽으로 나누어지면,

창이 찌르듯이 경풍이 발작하며 /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수록 여러 증상이 생기네.

뒤집힌 활처럼 순탄한 방향이 틀어지면 겉에도 역증이니 / 순증과 역증이 번갈아 생겨 치료가 어렵네.

삼관에 생긴 핏줄의 길이를 보면 더욱 잘 치료할 수 있으니 / 이런 상태인지 의원들은 자세히 보게나.

男兒兩歲尙爲嬰 三歲四歲幼爲名

五六次第年少長 七齠八亂漸論情

九歲爲童十稚子 有病關格辯其因

十一癇疾號癲風 癇病還同勞病攻

남아는 2살이라도 갓난아이요 / 3 - 4살은 되어야 어린이라고 하네.

5 - 6살을 먹으면 조금 컸다 하고 / 7 - 8살이면 점점 생각을 말하네.

9 - 10살은 동자라고 하며 / 관격(關格)이 있으면 원인을 설명할 수 있네.

11살에 생기는 간질을 나풍(癲風)이라 하니 / 간질과 똑같이 치료가 어렵네.

痞癖定爲沉積候 退他潮熱不相同

初看掌心中有熱 便知身體熱相從

肚熱脚冷傷積定 脾熱額熱是感風

額冷脚熱驚所得 瘡疹發來耳後紅

비괴와 장벽은 심한 적취의 증상이니 / 여타 조열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네.

처음 진료 때 손바닥에 열이 있으면 / 몸통에도 열이 날 것을 알아차려야 하네.

배가 뜨겁고 다리가 서늘하면 적취로 판정하고 / 비장과 이마에 열이 나면 감
풍(感風)이네.

이마가 서늘하고 다리가 뜨거우면 경풍에 걸린 것이고 / 창진이 발작하면 귀
뒤가 붉어지네.

小兒有積宜與塌 傷寒三種鮮爲宜

食瀉之時須有積 冷瀉須用與溫脾

水瀉宜與澁臟腑 先將²滯腸散與之

孩兒無事忽大叫 不是驚風是天癇

大叫氣促長聲麤 誤喫熱毒悶心竅

急須吐下却和脾 若將驚藥直堪笑

적취가 있는 아이에게는 하법을 써야 하고 / 상한에 3가지 약은 적합한 일이 드무네.

음식을 먹고 설사하면 반드시 적취가 있는 것이고 / 찬 것을 먹고 설사하면 속 따뜻하게 하는 약을 써야 하네.

물같은 설사에는 오장육부의 진액을 잡아주는 약을 주되 / 우선 계장산을 갖다 먹여야 하네.

갓난아이가 이유 없이 갑자기 크게 소리지르면 / 경풍이 아니라 천조(天癇)라네.

크게 소리지르며 숨을 헐떡이고 목소리가 갈라지면 / 뜨거운 약재를 잘못 먹어 심장의 구멍이 막혀서 그러네.

빨리 토법이나 하법을 써서 속이 편하게 해야 하고 / 경풍에 쓰는 약을 쓴다면 그저 웃음거리가 되리.

痢疾努氣眉頭皺 不努不皺陽有風

冷熱不調分赤白 脫肛因毒熱相攻

十二種痢何爲惡 禁口刮腸 [一作活] 大不同

孩兒有病不可下 不熱自汗兼自瀉

神困顙陷四肢冷 乾嘔氣虛神怯怕

吐蟲面白毛焦穗 疳氣潮熱食不化

鼻塞咳嗽及虛痰 脉細腸鳴煩燥訝

若將有積與踈通 下了之時必生詫

이질은 성질을 내면서 눈썹을 찌뿌리고 / 성질도 안 내고 찌뿌리지도 않으면

양경(陽經)에 풍사가 침입한 것이네.

온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적리나 백리가 되고 / 탈항은 이질과 열독이 부딪혀서 생기네.

12가지 이질 중에 무엇이 더 위험한가 / 금구(禁口)와 괄장(刮腸) [어떤 책에는 활장(活腸)이라고 되어 있다] 은 전혀 다르네.

아이가 병이 있을 때 하법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 열이 없고 자한이 있으면서 설사하는 경우와,

정신이 혼미하면서 숫구멍이 움푹해지고 사지가 서늘할 때와 / 헛구역질 하고 기허하면서 쉽게 무서워하는 경우와,

회충을 토하고 낫빛이 창백하면서 머리카락이 푸석할 때와 / 감병과 조열이 있으면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와,

코가 꼭 막히고 기침하면서 허담(虛痰)이 있을 때와 / 맥이 가늘고 배에서 꾸룩 소리가 나면서 번조가 심한 경우라네.

적취가 있다고 대변으로 빼내는 약을 먹이면 / 대변을 누고 나서 필시 문제가 생기리라.

孩兒實熱下無訪 面赤睛紅氣壯強

脉大弦洪肚上熱 胛腮喉痛尿如湯

屎硬腹脹脇肋滿 四肢浮腫夜啼長

遍體生瘡肚隱痛 下之必愈是爲良

실열이 있는 아이에게 하법을 써도 무방한 경우는 / 낫빛이 붉으면서 눈이 충혈되고 기운이 튼튼한 경우와,
맥이 크고 현홍(弦洪)하면서 배가 뜨거운 경우와 / 볼이 붓고 목구멍이 아프며 오줌이 뜨거운 경우와,
조시(燥屎)를 누고 배가 뽕뽕하며 옆구리까지 부은 경우와 / 사지가 붓고 야제를 많이 하는 경우와,
온몸에 창이 생기면서 배가 살살 아픈 경우이니 / 이때 하법을 쓰면 필시 좋아질 것이니 훌륭한 치료라네.

【附】入門候歌

〔주승정 추가〕손가락 징후에 대한 기초

五指稍頭冷 驚來不可當

若逢中指熱 必定是傷寒

中指獨自冷 麻豆證相傳

女右男分左 分明仔細看

다섯 손가락 끝이 서늘하다면 / 경풍이 와서 막지 못하네.

중지가 뜨거우면 / 필시 상한이리라.

중지만 서늘하면 / 마진과 두창으로 되리.

여아는 오른손 남아는 왼손을 / 분명하고 자세히 살펴야 하네.

【附】三關詞

〔주송정 추가〕삼관(三關)에 대한 노래

左有紅紋似線形 定知發熱又兼驚

右有紅紋如左樣 脾腸驚積一齊生

紋頭若是三叉樣 肺熱風痰夜有聲

青赤應是傷寒候 只見空紅定瀉生

왼손에 붉은 핏줄이 실처럼 나타나면 / 발열과 함께 경풍이 생겼음을 분명히
알아채야 하네.

오른손에 왼손처럼 붉은 핏줄이 나타나면 / 비열(脾熱)과 괄장(刮腸)과 경풍과
적취가 일제히 생기네.

핏줄 끝이 세 갈래면 / 폐열과 풍담(風痰)으로 밤에 기침 소리가 나네.

청적색이면 상한의 징후이며 / 그저 텅 빈 붉은 색이면 설사가 생기리.

虎口亂紋多 因知氣不和

色青驚積聚 下亂瀉相和

青卽慢驚發 入掌內癰多

三關若通過 此病必沉痾

脉候若深青 情知四足驚

赤因水火得 紅色是人驚

曲反風熱盛 紋彎食上停

但看叉手處 方可辯直形

青色大小曲 人驚并四足

赤色大小曲 水火飛禽蹠

姿色大小曲 傷米麵魚肉

黑色大小曲 脾氣微作搐

호구(虎口)에 핏줄이 많으면 / 기가 조화롭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색이면 경풍과 적취가 있어 / 설사가 함께 오네.

청색이면 만경풍이 발작하고 / 손바닥 안쪽으로 들어가면 천조가 생기며,

삼관을 전부 통과하면 / 이 병이 반드시 깊어지리라.

핏줄이 짙은 청색이면 / 짐승에게 놀랐음을 알아차려야 하며,

적색은 오한발열로 인한 것이며 / 홍색은 사람에게 놀란 것이라.

구불구불하거나 뒤집히면 풍열이 왕성한 것이고 / 핏줄이 휘었으면 음식이 상

초에 정체된 것이니,

손이 접히는 곳만 살피면 / 올바른 증상을 분별할 수 있네.

청색의 크고 작은 곡선은 / 사람이나 짐승에게 놀란 것이며,

적색의 크고 작은 곡선은 / 물이나 불이나 날짐승에 당한 것이라.

자색의 크고 작은 곡선은 / 곡식이나 생선이나 고기에 상한 것이요,

흑색의 크고 작은 곡선은 / 비기가 허하여 약간의 축늪이 생긴 것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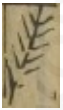
【附】詳解脉紋

〔주승정 추가〕삼관의 핏줄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流珠只一點子紅色, 環珠其形差大, 長珠其形圓長, 以上非謂圈子, 摠皆紅脉貫氣之如此. 來蛇卽是長珠散, 一頭大, 一頭尖, 去蛇亦如此, 乃分其上下³, 故曰來去. 角弓反張, 其裏外向裏爲順, 向外爲逆. 鎗形直上, 魚骨分開, 水字卽三脉並行, 針行卽過關一二粒米許, 射甲命脉射外, 透指命脉曲裏. 一十三位, 悉有輕重, 元由一氣, 有微至者, 從漸至摠, 輕重參詳, 前云五色者, 黃紅紫青黑, 由其病成, 色能可變. 又傳加進, 卽越黃紅之色, 紅盛作紫, 又有紅紫之色, 紫盛作青, 又有紫青之色, 青盛作黑, 又有青黑之色, 至於純黑之色者, 不可得而療治之也.

유주(流珠)는 붉은 색 점 하나이고, 환주(環珠)는 모양이 꽤 큰 것이며, 장주(長珠)는 모양이 둥글고 긴 것이다. 이상은 동그라미를 말한 게 아니라 모두 붉은 핏줄의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다는 것이다. 내사(來蛇, 오는 뱀 모양)는 장주가 흩어진 모양으로 한쪽은 넓고 한쪽은 뾰족하다. 거사(去蛇, 가는 뱀 모양)도 같은 모양이니 위 아래 방향을 나누어서 '오는 뱀'과 '가는 뱀'이라고 한다. 각궁반장(角弓反張, 활시위를 풀어서 활이 반대쪽으로 휜 모양)은 안쪽과 바깥쪽 중에 안쪽으로 강직되면 순증이고, 바깥쪽으로 강직되면 역증이다. 창형(鎗形, 창 모양)은 수직으로 올라간 것이고, 어골(魚骨, 생선 뼈 모양)은 핏줄이 갈라진 것이며, 수자(水字, 水의 전서篆書 모양)는 핏줄 3개가 함께 생긴 것이고, 침행(針行, 바늘 모양)은 마디를 지나는 핏줄 위에 쌀알 1 - 2개 만한 점이 생기는 것이며, 사갑(射甲, 손톱쪽으로 쏘는 듯한 모양)은 말관(明管)의 핏줄이 손등

쪽으로 쓴 듯한 모양이고, 투지(透指, 손가락을 관통한 모양)는 말관(明管)의 핏줄이 속으로 굽은 것이다. 이상 13가지 모양은 각각 증상의 경중이 있다. 원래는 같은 증상에서 시작하지만 살짝 생기는 증상도 있고 점점 심해져 완전한 증상도 있으니 증상의 경중을 자세히 참작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색깔은 황색、홍색、자색、청색、흑색으로 병증의 진행에 따라 색깔이 변할 수 있다. 병증이 점점 더 진행되면 황색과 홍색보다 진해진다. 홍색이 심해지면 자색이 되어 홍색과 자색이 섞여 있고, 자색이 심해지면 청색이 되어 자색과 청색이 섞여 있고, 청색이 심해지면 흑색이 되어 청색과 흑색이 섞여 있다. 완전한 흑색이 되면 치료할 수 없게 된다.



• 魚刺爲驚積

생선가시 모양으로 핏줄이 나타나면 경적(驚積)이고,*



• 蛇來肝氣麤

뱀 모양은 간기(肝氣)가 왕성해진 것이네.*



• 水紋知食積

수(水)자의 전서(篆書) 모양은 식적(食積)이요,*



- 針樣熱傷風

침 모양은 상풍(傷風)으로 열이 있는 것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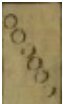
- 蟲捲脾虛散

애벌레가 말린 모양은 비기(脾氣)가 허한 것이고,*



- 咳嗽肝反弓

기침이 있으면 간기(肝氣) 때문이니 활시위를 풀어 뒤집힌 활 모양이 나타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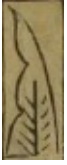
- 流珠中膈熱

구슬을 켜 모양은 가슴과 배에 열이 있는 것이요,*



- 惡受透關中

사증에는 핏줄이 말관(명관)을 관통하네.*



風關青如魚刺易治, 是初驚後, 黑色難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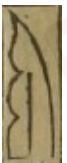
풍관(초관)의 핏줄이 청색이면서 생선가시 모양이면 치료하기 쉽다. 이곳이 전에 놀란 후에 흑색으로 되면 치료가 어렵다.

氣關青如魚刺, 主虛勞、身熱, 易治.

기관(중관)이 청색이면서 생선가시 모양이면 주로 허로나 신열이니 치료하기 쉽다.

命關青如魚刺, 主虛風邪傳脾, 難治.

명관(말관)이 청색이면서 생선가시 모양이면 대개 기허로 풍사가 비장을 침입한 경우이니 치료가 어렵다.



風關青黑如懸針, 主⁴水驚.

풍관(초관)의 핏줄이 청흑색이면서 바늘 모양으로 수직의 형태라면 주로 물 때문에 놀란 경우이다.

氣關赤如懸針, 主疰兼肺臟積熱.

기관(중관)이 적색이면서 수직의 바늘 모양이라면 주로 감병이 있을 때 폐장에 열이 쌓인 경우이다.

命關青黑如懸針, 主人驚. 有此凡五色皆是死候, 三關通度如懸者, 主慢驚風, 難治.

명관(말관)이 청흑색이면서 수직의 바늘 모양이라면 주로 사람 때문에 놀란 경우이다. 명관에 오색의 어떤 색이라도 있으면 모두 사증이다. 삼관에 모두 수직의 바늘 모양이 걸쳐있으면 주로 만경풍이니 치료하기 어렵다.



風關如水字, 主驚風入肺咳嗽面赤.

풍관(초간)에 수(水)자의 전서체 모양으로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경풍으로 사기가 폐장으로 들어가 기침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이다.

氣關如水字, 主膈上有涎并痰積停滯.

기관(중관)에 수(水)자의 전서체 모양으로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흉격이 담연으로 막힌 경우이다.

命關如水字, 主驚風疳極, 不拘五色, 三關通度者不治.

명관(말관)에 수(水)자의 전서체 모양으로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경풍이나 감병이 극심한 경우이다. 오색의 어떤 색이라도 삼관에 모두 나타나면 치료하지 못한다.



風關如乙字, 主肝臟驚風, 易治.

풍관(초관)에 을(乙)자로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간장 때문에 생긴 경풍이니 쉽게 치료할 수 있다.

氣關如乙字, 主驚風.

기관(중관)에 을(乙)자로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경풍이다.

命關如乙字, 青黑色, 主慢脾, 難治.

명관(말관)에 을(乙)자로 청흑색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만비풍이니 치료하기 어렵다.



風關如曲蟲者, 肝病蟲聚, 胃前如橫排筭子, 肚皮似吹起若猪胞.

풍관(초관)에 구불구불한 애벌레같은 핏줄이 나타나면 간장이 병들어 회충이 모여들이 때문에 가슴에 주판 같은 모양이 나타나거나, 배가 바람 넣은 돼지 오줌보같이 빵빵해진다.

氣關如曲蟲, 主大腸穢積.

기관(중관)에 구불구불한 애벌레같은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대장에 이물질이 쌓인 경우이다.

命關如曲蟲, 主心臟傳肝, 難治.

명관(말관)에 구불구불한 애벌레같은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심장의 병이 간장까지 전변된 것이니 치료하기 어렵다.



風關如環, 主肝臟疳有積聚.

풍관(초관)에 고리 같은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간장에 생긴 감병으로 적취가 있는 경우이다.

氣關如環, 主疳入胃吐逆, 不治.

기관(중관)에 고리 같은 핏줄이 나타나면 주로 감병이 위부로 흘러들어가 구토와 구역질을 하는 경우이니 치료하지 못한다.

命關如環, 難治.

명관(말관)에 고리 같은 핏줄이 나타나면 치료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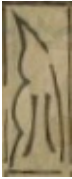
此紋若在風氣二關, 易治, 若在命關通度, 難治.

이 모양이 풍관(초관)과 기관(중관)에 나타나면 치료하기 쉽고, 명관(말관)에
까지 전체적으로 나타나면 치료하기 어렵다.



此紋若在上手, 或在面上, 或左右驗遍, 皆是死候.

구슬을 켜 듯한 모양의 핏줄이 손이나 얼굴이나 좌반신 전체나 우반신 전체에
나타나면 모두 죽을 징조이다.



脉曲向裏者是氣疢, 脉曲向外者是風疢.

핏줄이 안쪽으로 굽은 경우는 기감(氣疢)이고, 바깥쪽으로 굽은 경우는 풍감
(風疢)이다.



脉斜向右, 是傷寒, 身熱不食無汗.

핏줄이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향하면 상한이니 몸통이 뜨겁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땀이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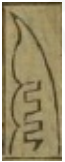
脉斜向左, 是傷風, 身熱不食有汗.

핏줄이 비스듬히 왼쪽으로 향하면 상풍이니 몸통이 뜨겁고 음식을 먹으려하
지 않으며 땀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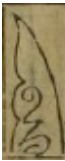
双勾脉者是傷冷.

쌍갈고리 모양으로 핏줄이 생기면 식은 것이나 음식을 먹고 손상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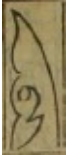
脉三曲如長虫, 是傷硬物.

핏줄이 세 번 구부러진 길다란 벌레 모양이면 딱딱한 물건을 삼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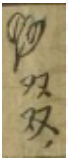
脉兩曲如鉤, 是傷冷.

핏줄 양쪽 끝이 갈고리 모양이면 식은 젖이나 음식을 먹고 손상된 것이다.



脉一頭如環又有脚者, 是傷冷.

핏줄의 한쪽 끝은 고리 모양이고 반대쪽은 다리처럼 생긴 모양이면 식은 젖이나 음식을 먹고 손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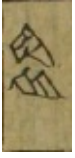
頭面肚上有大脉并青⁵, 並是食毒. [驚積難.]

머리나 얼굴이나 배에 큰 핏줄이 나타나거나 푸른 힘줄이 나타나면 모두 음식에 상한 것이다. [경적(驚積)은 치료하기 어렵다.]



面上有似點子, 並是再發之候.

얼굴에 점 같은 것이 생기면 직전에 앓았던 병증이 재발할 징조이다.



脉如亂虫, 是常疳亦有蛭疳, 蛔虫食積之疳, 治之必瘥. 凡脉不足細者, 并是風氣, 但消疳然後取虫爲效.

벌레가 이리저리 다닌 듯한 핏줄 모양이면 평소에 있던 감병 외에도 회충이 있는 것이니 회충과 식적으로 생긴 감병으로 여겨 치료하면 좋아질 것이다. 대체로 핏줄이 많지 않거나 가느다란 경우는 모두 풍증이 생기려는 상황이니 감병을 삭힌 후에 회충을 치료해야만 효과가 있다.

【附】辯三部脉證

(주승정 추가) 삼부(三部)의 핏줄에 따른 증상 설명

上黑須知腎臟傳 中關黑候又纏綿
人驚此患兩相雜 目多直視定痰涎
下黑須知是再驚 但宜風積便和平
上下是同因打撲 熱來悶閉沒心情
上青肝臟有風停 目直便青面更青
中是人驚并四足 渴來發燥便惺惺
下青原是再驚根 解熱宣腸是何論
上下俱青候是惡 十箇之中得一存
上赤風多入肺停 或來發熱嗽聲頻

中是風來入心臟 腸痛頻頻下瀉青

下赤重驚見本宗 但調心臟有神功

上下一同難治療 口開目下是知凶

上青肝臟本因留 目閉身疼四体柔

中是水瀉并再撲 熱來喘嗽不知休

下青因是再驚來 妙藥仙風定少灾

上下若青俱發熱 四肢逆令奄泉臺

上黑之時目上瞪〔兩般看〕大便流糞又兼青

中見之時狀消渴 下熱尿黃便安寧

下黑若見赤相隨 氣多下瀉候如斯

上下俱同須看手 虛煩燥渴速求醫

상부가 흑색이면 신장으로 병이 전변되었음을 알아야 하고 / 중관이 흑색이 되려고 하면 또한 병이 낫지 않으리.

사람에게 놀란 후에 이렇게 되면 두 병이 섞여서 / 눈에 촛점이 없어지고 분명히 담연히 생기리.

하부가 흑색이면 한번 더 놀랐음을 알아야 하니 / 풍사와 적취를 흠어주면 곧 편안해지네.

상부와 하부가 모두 흑색이면 구타를 당한 것이니 / 열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대소변이 나오지 않아 정신이 없어지리.

상부가 청색이면 간장에 풍사가 머무는 것이니 / 눈에 촛점이 없어지면서 푸른 빛이 돌고 낮빛도 푸르게 되네.

중부가 청색이면 사람에게 놀랐거나 짐승에게 놀랐을 때 나타나니 / 갈증과 번

조가 생겼다가 곧 정신을 차리네.

하부가 청색이면 이미 놀란 상태에서 다시 놀란 것이니 / 열을 풀어주고 대장을 소통시키길 논할 필요 없네.

상부와 하부가 모두 청색이면 역증이니 / 10명 중 1명 살겠네.

상부가 적색이면 풍사가 폐장에 침입한 것이니 / 간혹 열이 나고 기침소리 끊이지 않네.

중부가 적색이면 풍사가 심장에 든 것이니 / 계속 배가 아프면서 푸른 색 설사를 하네.

하부가 적색이면 중가집에서 거둬 놀란 것이니 / 그저 심장을 잘 조리하면 신표하다네.

상부와 하부가 모두 적색이면 치료가 어려우니 / 입을 벌린 채 눈동자가 내려와 홍조임을 아네.

상부가 청색이면 간장에 원인이 있으니 / 눈을 감고 몸살이 나며 사지에 힘이 없네.

중부가 청색이면 물같은 설사를 할 때 맞기까지 한 것이니 / 열이 오르며 심하게 기침하며 그칠 줄 모르네.

하부가 청색이면 한번 더 놀란 것이니 / 묘약과 명약라면 분명히 죽을 일 드무네.

상부와 하부가 청색이면 모두 열이 나고 / 사지 끝부터 서늘해지니 땅에 묻히리.

상부가 흑색일 때는 눈을 위로 치켜뜨고 [양쪽을 살펴보라] / 대변이 흘러나오면서 푸른 빛이 도네.

중부에 흑색이 나타날 때는 소갈 증상과 비슷하니 / 하체가 뜨겁고 오줌이 누
렇지만 곧 편한해지리.

하부가 흑색일 때 적색이 함께 나타나면 / 숨이 짧고 설사를 하는 증상이 이와
같네.

상부와 하부가 모두 흑색이면 반드시 손을 살펴야 하니 / 허번과 갈증이 있으
면 빨리 의원을 찾으라.

【附】小兒診脉論

〔주송정 추가〕소아의 진맥법

小兒脉三歲以上, 五歲以下, 然後可看候, 與大人有異者, 爲呼吸, 至八是常也, 九至
病, 十至病, 盖小兒純陽, 故脉息數促, 與大人者爲不同也. 小兒周歲以前, 脉息難憑,
周歲以後, 方有脉形, 寶鑑云, 五百七十六日乃成人, 血脉骨肉盖兼勞⁶, 方可診候也.

소아의 맥은 3 - 5살 정도가 넘어야 짚을 수 있다. 성인과 달리 1번의 호흡 동안
8번 뛰는 게 정상이며, 9 - 10번 뛰면 병이 있는 것이다. 소아는 순양지체(純陽
之體)라 맥과 숨이 빠르니 성인과는 다르다. 돌 이전의 아이는 맥이나 숨에 따
라 진료하기가 어려우니, 만 1살은 지나야 맥이 일정해진다. 《보감》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596일이 지나야 사람이 된다. 혈과 맥과 뼈와 살이 모두 영글어
야만 그때부터 증상에 따라 진료할 수 있다.'

【附】三關六脉生死謨

〔주송정 추가〕삼관(三關)의 육맥(六脉)에 따른 생사의 구별

小兒有證須憑脉 一指三關定數息

須知風熱脉浮洪 緊數驚風四肢掣

緊促之時 痘生 浮緩傷風身汗出

洪緊無汗是傷寒 醫士不辯誠無識

人迎緊盛傷於寒 氣口緊盛傷於食

分明妙訣請君知 三至爲脫二至卒

五至爲虛四至病 六至平和曰無病

七至八至病猶輕 九至十至病勢極

十一十二死無疑 此訣萬中無一失

소아에게 병이 있으면 반드시 맥을 짚어야 하니 / 한 손가락을 삼관에 대고 숨을 헤아리라.

꼭 알아야 할 것은 풍열은 맥이 부홍(浮洪)하고 / 긴삭(緊數)하면 경풍과 사지축닉이 있다는 것이라.

긴촉(緊促)하다면 은진이나 두창이 생기려는 것이고 / 부완(浮緩)하다면 상풍으로 몸통에 땀이 날 것이라.

홍긴(洪緊)하면서 땀이 없으면 상한이니 /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의원은 정말 식견이 없는 것일세.

인영맥이 긴성(緊盛)하면 한사에 상한 것이고 / 기구맥이 긴성하면 음식에 상한 것이네.

분명한 묘책을 그대에게 알려주노니 / 맥이 3번 뛰면 생기가 바닥난 것이요 2번 뛰면 죽을 상태라네.

5번 뛰면 기허한 상태요 4번 뛰면 병이 든 것이며 / 6번 뛰면 멀쩡한 상태니 병

이 없다 말할 만하네.

7 - 8번 뛰면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것이고 / 9 - 10번 뛰면 병세가 극심한 것이네.

11 - 12번 뛰면 의심 없이 죽을 상태이니 / 이 노래로 만일의 실수를 막아야 하네.

【附】訣脉逆順調

〔주승정 추가〕맥에 따른 순증과 역증

傷寒脉大最相宜 腫滿浮洪病可醫

微細心疼終是順 沉遲吐瀉必須危

蟲攻緊滑皆知急 渴飲沉微勢已衰

驚搐浮洪多易治 端⁷涎盛滑爲奇

상한일 때 맥이 대(大)하면 가장 좋고 / 부종과 복만에 맥이 부홍(浮洪)하면 치료할 수 있네.

가슴이 아플 때 맥이 미세(微細)하면 결국 순증이고 / 구토와 설사에 맥이 침지(沉遲)하면 필시 위험한 상태라네.

회충이 있을 때 맥이 긴활(緊滑)하면 위급한 상태임을 알아야 하며 / 갈증에 맥이 침미(沉微)하면 몸이 쇠약해진 것이라네.

경축이 발작했을 때 맥이 부홍(浮洪)하면 대부분 쉽게 치료하고 / 객객대면서 가래가 심할 때 맥이 활(滑)하면 심각한 상태라네.

附 脉証直訣

〔주송정 추가〕 맥에 따른 증상

小兒脉大多風熱 沉細元因乳食結
弦長多是肝膈風 緊數驚風四肢掣
洪浮胃口是火燒 沉緊腹中痛不歇
虛濡有氣又兼驚 脉芤大小便中血
四至洪來若煩滿 沉細腹中痛切切
滑中露濕冷所傷 弦急客忤分明說
小兒乳後多嘔逆 更兼脉亂無慮憂
弦急之時被氣纏 脉緩卽是不消乳
緊數細快亦少苦 虛濡驚風邪氣助
痢下宜腸急痛時 浮大之脉歸泉路

소아의 맥이 대(大)하면 대부분 풍열이고 / 침세(沉細)하면 젖이나 음식 때문에 막힌 것이네.

현장(弦長)하면 대부분 간장이나 흥격의 풍사 때문이요 / 긴삭(緊數)하면 경풍으로 사지가 강직된 것이네.

부홍(浮洪)하면 위구(胃口)에 열이 있는 것이요 / 침긴(沉緊)하면 복통이 멎지 않는 것일세.

허유(虛濡)하면 호흡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놀랄 것이고 / 규(芤)하면 대소변에 피가 섞은 것이네.

한 호흡에 맥이 4번 뛰면서 맥상이 홍(洪)하면 번만이요 / 침세(沉細)하면 복통이 심한 것이네.

활(滑)하면 습기나 냉기에 상한 것이고 / 현급(弦急)하면 객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네.

젖을 먹은 후에 구역질을 자주 하면서 / 맥이 불안정하더라도 염려치 말라.

현급(弦急)하면 숨이 막히는 것이고 / 완(緩)하면 젖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네.

긴삭(緊數)하거나 세쾌(細快)한 것도 약간 괴로운 상태이며 / 허유(虛濡)하면 경풍일 때 사기가 더 침입한 것이네.

이질로 설사하며 배가 당기고 아플 때 / 맥이 부대(浮大)하면 황천길로 가리.

【附】太衝尺脉

〔주송정 추가〕태충혈의 척맥(尺脉)

寸關無脉已昏沉 脚面猶看尺脉存

此理恰如枝葉悴 尙餘生意在其根

촌맥과 관맥이 없어 정신이 혼미할 때 / 발등을 살펴보면 척맥이 남아 있으니, 이 이치는 흙사 가지와 잎이 시들어도 / 아직 뿌리에 생기가 남아있는 듯하네.

【附】太衝陽脉

〔주송정 추가〕태충혈의 양맥(陽脉)

太衝穴, 在兩足大指本節後二寸陷中動脉是, 一云一寸半. 足厥陰之所注, 診此者可決男子之死生, 或診太谿, 命門外穴, 在足內踝後跟骨上動脉陷中.

태충혈은 엄지발가락의 뿌리쪽 마디 뒤쪽으로 2촌(일설에는 1.5촌이라고도 한다) 지점의 움푹한 곳으로 맥이 뛰는 부위이다. 족궤음간경이 지나는 곳이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면 남자가 죽을지 살지 판단할 수 있다. 혹은 태계혈을 짚어보기도 한다. 태계혈은 명문혈의 외혈(外穴)로 안쪽 복사뼈 뒤쪽 뒤꿈치뼈 위 움푹한 곳으로 맥이 뛰는 부위이다.

1. 二 ☞ 三 ※문맥상 ☞
2. 滯 ☞ 雞 ※문맥상 ☞
3. 朝 ☞ ※문맥상 ☞
4. 靑 ☞ ※문맥상 ☞
5. 驚 ☞ 筋 ※문맥상 ☞
6. 盖兼勞 ☞ 皆堅牢 ※문맥상 ☞
7. 端麗 ☞ 喘粗 ※문맥상 ☞

驚風方論 경풍의 이론

驚者, 虛惕怔忡, 氣怯神散, 痰涎來去, 其瀉必青, 漸生風而未至風也. 驚邪入心, 則面紅臉赤, 惕惕夜啼, 驚邪入肝, 則面目俱青, 眼睛竄視, 驚邪入腎, 則面黑惡叫, 啞妳咬牙, 驚邪入肺, 則面色淡白, 喘息氣乏, 驚邪入脾, 則嘔吐不食, 虛汗多睡, 面色淡黃. 據脉觀之, 虛則散而濡, 實則數而駛. 治法, 鎮驚化痰, 安神定志, 亦須究竟某臟受病之處而調理之. 然有所謂溫驚, 有所謂利驚, 有所謂涼驚, 虛者溫之, 實者利之, 熱者涼之, 是爲活法. [睡中驚啼, 聲浮者易治, 聲沉不響者難痊.]

경(驚)이란 지레 놀라 덜덜 떨면서 기운이 허약해지고 정신이 없으며 담연이 왔다갔다 하고 푸른 설사를 하는 병증으로, 점점 풍사가 생기지만 풍증까지는 아니다. 놀라서 생긴 사기가 심장으로 들어가면 얼굴과 뺨이 붉어지면서 깜짝 놀라며 밤에 운다. 간장으로 들어가면 얼굴과 눈이 모두 파래지면서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린다. 신장으로 들어가면 얼굴이 까맣게 되면서 괴성을 지르고 이를 갈거나 악문다. 폐장으로 들어가면 낮빛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호흡이 짧아진다. 비장으로 들어가면 구토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자려고 하고 낮빛은 살짝 누레진다. 맥법을 살펴보니 '허증은 맥이 산(散)하면서 유(濡)하고, 실증은 삭(數)하면서 결(駛)하다.'라고 하였다. 치료법은 놀람을 진정시키고 담연을 녹이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을 써야 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어떤 오장이 사기를 받았는지 따져서 조리시켜야 한다. 한편 경풍에 따뜻한 약재를 쓴다거나 경풍을 배출시킨다거나 경풍을 식힌다는 말이 있다. 허증이 많으면 따뜻하게 하고, 실증이 많으면 배출시키고, 열이

나면 식히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다. [자면서 놀라 우는 아이의 경우 목 소리가 높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목소리가 잠겨서 잘 나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驚風證治 경풍의 증상에 따른 치료법

- 【全蝎散】
- 전갈산

治小兒驚風不語, 通竅豁痰, 大人通用.

경풍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치료한다. 구구를 통하게 하고 담연에 막힌 구구를 뚫는다. 성인도 통용한다.

全蝎柒枚, 各用紫蘇葉包, 塗蜜炙, 重包, 又塗蜜炙.

전갈 7개를 각각 자소엽으로 싸고 꿀을 발라 굽는다. 다시 한번 자소엽으로 싸고 다시 꿀을 발라 굽는다.

右細末, 每服壹字, 薑汁入蜜搜和, 含化.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꿀을 넣은 생강즙과 잘 섞어 입에 머금고 빨아먹게 한다.

- 【羌活膏】
- 강활고

治小兒驚風痰涎.

경풍으로 담연이 생긴 아이를 치료한다.

天麻、赤茯苓 各半兩, 羌活、防風 各二錢半, 人參、全蝎、朱砂(研)、明硫黃、水銀 各一錢.

천마、적복령 각 0.5냥, 강활、방풍 각 2.5돈, 인삼、전갈、주사(간다)、투명한 유황、수은 각 1돈.

右【硫黃】、【水銀】同研如泥, 次以柒味末夾和, 煉蜜丸, 皂子大, 每壹粒, 薄荷湯調下.

유황과 수은을 한꺼번에 질게 간 다음 나머지 7가지 약재를 가루 내고 모두 잘 섞는다. 연밀에 개어 조각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알씩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來復丹】[方見暑門]
- 내복단 [처방은 서문(暑門)에 나온다]

治小兒驚風昏塞, 以貳參丸, 薄荷泡湯研, 灌下得泄即愈. 凡驚風對證用藥已效, 若覺未甚蘇省, 可與【來復丹】, 凡數酌量用.

경풍으로 정신이 혼미한 아이를 치료한다. 내복단 2 - 3환을 박하 우린 뜨거운 물에 갈고 아이 입에 흘려 넣어 설사를 하면 금세 좋아진다. 대체로 경풍으로 증상에 따라 약을 써 효과가 있었고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소생할 것 같을 때 내복단을 먹여도 되니 분량은 아이의 몸집을 감안하여 쓴다.

- 【星香散】
- 성향산

治小兒急慢風, 搐搦、竄視、涎潮.

급경풍이나 만경풍으로 축닉(搐搦)、찬시(竄視)、담연이 있는 아이를 치료한다.

南星(圓白者) 一錢半, 木香、橘紅 各半錢, 全蝎 一枚.

남성(등글고 흰 것을 쓴다) 1.5돈, 목향、귤홍 각 0.5돈, 전갈 1개.

右剉細, 入姜錢四片, 慢煎熟灌下, 大便出涎即愈.

이상을 잘게 썰어 생강 4조각을 넣고 약불에 푹 달인 후 아이 입에 흘려 넣어 삼키게 한다. 대변으로 담연이 나오면 금세 좋아진다.

- 【本事人參散】
- 본사인삼산

治慢脾風神昏痰盛.

만비풍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담연이 심한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 半兩, 圓白大南星 一兩(切片, 以生姜汁并漿水各半, 陰滿煮, 帶性曬).

인삼 0.5냥, 등글고 희고 큰 남성 1냥(절편으로 썰고 생강즙과 장수(漿水)를 절반씩 섞은 것에 담갔다가 그늘에서 달인 후 약성이 남을 정도로 볶에 말린다).

右末, 每壹錢, 水壹盞, 姜三片, 【冬瓜仁】搗細少許, 同煎取半盞, 作兩三次灌下.

이상을 가루 낸다. 1돈씩 물 1잔에 생강 3조각과 잘게 빻은冬瓜인 약간을 한꺼번에 넣고 0.5잔이 되도록 달인다. 이것을 2 - 3번에 나누어 아이 입에 흘려 넣는다.

- 【至寶圓】

- 지보원

治小兒驚風痰熱.

경풍으로 담열(痰熱)이 생긴 아이를 치료한다.

螺青 半兩, 京墨 四錢, 巴豆(去油) 一錢, 北五靈脂 二錢半, 輕粉・腦 各半錢, 史君子
十四个(連殼煨取肉), 麝 一字, 飛白麵 三錢.

나청(螺青) 0.5냥, 경묵 4돈, 파두(기름기를 제거한다) 1돈, 북오령지 2.5돈, 경
분・뇌자 각 0.5돈, 사군자 14개(껍질째 잿불에 묻어 구운 후 살을 쓴다), 사향
1자, 아주 곱고 흰 밀가루 3돈.

右末, 并水搜圓桐子大, 每一丸水研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물에 반죽하여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환씩 물에 갈아
서 넘긴다.

- 【驅癇散】

- 구간산

治諸癇, 口眼相引, 上視涎流, 手足抽掣, 頭項反張, 腰背強直.

각종 간질이나 구안와사나 눈을 치켜뜨면서 침을 흘리거나 손발이 강직되어
가 머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허리와 등이 강직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朱砂(研)、雄黃(研)、蛇皮(炙黃)、石膏(煨通紅, 出火毒一宿) 各一分, 蜂房(炒)、遠志(取肉, 薑製焙)、細辛(華陰者, 去苗土)、麻黃(去節)、直僵蚕(炒)、川大黃(生)、川芎、獨活 各一分半.

주사(간다)、웅황(간다)、사피(누렇게 굽는다)、석고(전체가 붉어지도록 달궈다가 하룻밤 화독을 뺀다) 각 1푼, 봉방(볶는다)、원지(과육만 발라 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세신(화음에서 난 것. 싹과 흙을 제거한다)、마황(마디를 제거한다)、곧은 강잠(볶는다)、천대황(생것)、천궁、독활 각 1.5푼.

右末, 每一錢, 釣藤入少蜜煎湯, 溫和調灌, 大兒增用.

이상을 가루 낸다. 조구등과 꿀을 약간 넣고 달인 물에 따듯할 때 가루 1돈을 잘 섞어 입에 흘려 넣는다. 몸집이 큰 아이는 용량을 추가한다.

- 【又方】
- 다른 처방

雄黃、朱砂 等分.

웅황、주사 각각 같은 양.

右末, 每一錢, 猪心血夾蠶水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1돈씩 저심혈을 탄 제수(蠶水)에 타 넘긴다.

- 【雌黃散】
- 자황산

治顛癇方發, 癱瘓嚙舌, 眼暗聲惡.

전간(顛癇)이 막 발작하여 경련이 나면서 혀를 물고 눈이 깜깜해지며 괴성을 지르는 경우를 치료한다.

雌黃、黃丹(微炒) 各一兩, 麝 一錢(研).

웅황·황단(살짝 볶는다) 각 1냥, 사향 1돈(간다).

右細末, 用【牛乳汁】半升, 撥熬成膏, 卽入上項藥, 築和, 杵三伍伯下, 丸如麻子大, 每三四丸, 溫熱水下, 日三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우유즙 0.5되를 저으면서 졸여 고약처럼 만든 후 약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이것을 300 - 500번 짚고 마자대 크기로 환을 빚는다. 3 - 4환씩 따뜻한 물로 하루에 3번 복용한다.

- 【消驚圓】
- 소경원

治諸驚.

무언가에 놀란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天麻、伏苓、朱砂、全蝎(焙)、直僵蚕(炒)、羚羊角、犀角 各一錢, 牛膽蘗南星 四錢, 麝 少許.

인삼·천마·복령·주사·전갈(겉불에 말린다)·곶은 강잠(볶는다)·영양각·서각 각 1돈, 우담남성 4돈, 사향 약간.

右爲末, 煉蜜丸, 桐子大, 每服一圓, 菖蒲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 하되 창포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壓驚圓】

• 압경원

治諸驚虛惕, 定心鎮痰, 所謂重可去怯之劑.

무언가에 놀라 무서워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마음은 진정시키고 담연을 가라 앉히니 이른바 무거움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약이다.

紫石英、代赭石、蛇黃(各燒紅, 米醋淬)、鐵粉(篩過淨者) 各二錢, 朱砂、龍齒、白附(焙)、遠志肉(姜汁浸炒) 各一錢.

자석영、대자석、사황(각각 붉게 달궈다가 쌀식초에 담금질 한다)、철분(체에 쳐서 고른다) 각 2돈, 주사、용치、백부자(겉불에 말린다)、원지육(생강즙에 담갔다가 볶는다) 각 1돈.

右爲末, 研極細, 稀麪糊丸, 桐子大, 每服一丸, 金銀煎湯調下. [凡煨石藥, 以裂爲度, 不拘遍次, 研十分細.]

이상을 가루 낸 후 아주 곱게 간다. 묽은 밀가루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금이나 은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돌 종류의 약재를 달굴 때는 균열이 생길 때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달군 후 충분히 곱게 갈아서 쓴다.]

- 【安驚圓】

- 안경원

治諸驚風癇, 或犬聲, 異物驚忤, 打墜不省人事, 並主之.

각종 경풍의 증상이나 간질을 치료한다. 개처럼 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물건에 놀라거나 떨어져서 인사불성된 경우도 치료한다.

遠志肉(薑汁浸, 焙)、淨鐵粉、朱砂、人參、伏神 各半兩, 全蝎 二十一个(焙), 南星 中者一个(薑汁浸一宿, 切細焙), 白附子(晷炮) 二錢半, 花蛇頭(酒浸肉, 焙), 麝 半錢.

원지육(생강즙에 담갔다가 겉불에 말린다)、철분(고운 가루)、주사、인삼、복신 각 0.5냥, 전갈 21개(겉불에 말린다), 남성 1개(중간 크기를 생강즙에 하루 밤 담갔다가 얇게 절편으로 썬 후 겉불에 말린다), 백부자(습지에 싸서 살짝 굽는다) 2.5돈, 화사 대가리(술에 담갔다가 겉불에 말린다), 사향 0.5돈.

右爲末, 煉蜜圓, 桐子大, 每服一圓, 菖蒲、燈心煎湯調下. 【健陽】劉參議方.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 하되 창포、등심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건양(健陽) 지역 유 참의(劉參議)의 처방이다.

- 【參砂膏】

- 삼사고

通心氣, 除膈熱, 去痰壅.

심기를 통하게 하고 흉격의 열을 없애며 막힌 담연을 제거한다.

朱砂、人參、南星(炮)、伏神、遠志肉(薑汁浸, 焙)、天麻、白附子、僵蚕(炒) 等分, 鵬砂(半焙), 麝 少許.

주사、인삼、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복신、원지육(생강즙에 담갔다가
겉불에 말린다)、천마、백부자、강잠(볶는다) 각각 같은 양, 봉사(겉불에 절
반 정도 말린다), 사향 약간.

右爲末, 煉蜜爲膏, 桐子大, 金箔衣, 每一圓, 麥門冬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연밀과 섞어 고약처럼 만들고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은 후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환씩 맥문동탕에 타서 넘긴다.

- 【定心圓】
- 정심원

溫驚用此.

경풍으로 허할 때 속을 따뜻하게 하려면 이 약을 쓴다.

伏神、白附子(炮)、南星(炮) 各三錢, 人參、遠志肉(姜製, 炒)、蝎梢 各一錢半, 直
僵蚕 十四个(炒), 乳香 三字.

복신、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3돈, 인삼、
원지육(생강즙에 법제하고 볶는다)、갈초 각 1.5돈, 곧은 강잠 14개(볶는다),
유향 3자.

右爲末, 【牛膽汁圓】, 桐子大, 每一圓, 金銀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우담즙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금이나 은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附方】

〔주승정 추가〕처방

- 【琥珀抱龍圓】
- 호박포룡원

抱龍之義, 抱者保也, 龍者肝也, 肝應東方青龍木, 木生火, 所謂生我者父母也. 肝爲母, 心爲子, 母安則子安, 況心藏神, 肝藏魂, 神魂既定, 驚從何生? 故曰【抱龍圓】. 理小兒諸驚, 四時感冒風寒, 溫痰邪熱致煩燥不寧, 痰嗽氣急, 及瘡疹欲出, 發搐, 並宜可投, 其藥性溫平, 不僭不燥, 常服祛風化痰, 鎮心解熱, 和脾胃益精神.

포룡(抱龍)에서 '포'는 보호한다는 뜻이고 '용'은 간장이라는 뜻이다. 간장은 동쪽과 청색과 용(龍)과 목(木)에 해당한다. 목(木)은 화(火)를 만드니 이른바 نار을 만든 분은 부모이다. 간장은 어머니인 셈이고 심장은 자식인 셈이다. 어머니가 편안하면 자식이 편안하다. 게다가 심장은 신(神)을 저장하고 간장은 혼(魂)을 저장하니 신과 혼이 안정되어 있으면 놀랄 일이 어디에서 생기겠는가? 그래서 포룡원이라고 한 것이다. 무언가에 놀라거나, 사계절에 상관없이 풍한의 사기에 감촉되거나, 담연과 열 때문에 생긴 번조로 불편하거나, 가래기침을 하면서 숨이 급하거나, 두창으로 수포가 돋으려 하거나, 축닉이 발작하거나 하는 아이의 증상을 다스릴 때 모두 쓸 수 있다. 이 약은 약성이 따뜻하면서 평이

하여 지나치게 세거나 건조하지 않다. 자주 복용하면 풍사를 없애고 담연을 녹이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열을 내리니 비위를 편안하게 하면서 정신을 이롭게 하는 약이다.

眞琥珀、天竺黃、檀香(細剉)、人參(去芦)、白茯苓 各一兩半, 粉草(去節) 三兩, 枳殼(去穰, 麩炒)、枳實(去穰, 麩炒) 各一兩, 硃砂(水飛過, 五兩, 先以【磁石】引去硃屑, 次用水乳鉢內細杵, 取浮者飛過, 淨器中澄清, 去土餘水, 不如此法一般精製, 見【硃砂】盡晒乾用), 山藥(去黑皮, 一斤, 堅作小塊, 慢火炒, 令熱, 速候冷用), 南星 一兩(剉碎, 用臘月雄【黃牛膽】釀經一夏), 金箔 百片(去護帑, 取見成藥一兩, 同在乳鉢內極細杵, 乃和同前藥末用).

호박(진품)、천축황、단향(잘게 썬다)、인삼(노두를 제거한다)、백복령 각 1.5냥, 분초(마디를 제거한다) 3냥, 지각(속을 파내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지실(속을 파내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각 1냥, 주사(수비한다. 5냥을 우선 자석으로 철가루를 제거하고 그 다음 막자사발에 물과 함께 넣고 곱게 찧는다. 물에 뜬 건 건어내고 깨끗한 그릇에 옮겨 맑아질 때까지 가라앉힌 후 흙과 물을 제거한다. 이 방법대로 정제하지 않으려면 주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別に 말려 썬다.), 산약(검은 껍질을 제거하고 1근을 작은 덩어리로 뭉친 후 약한 불에 볶아 뜨겁게 만들었다가 빠르게 식혀서 썬다), 남성 1냥(썰어서 뺑는다. 12월에 잡은 수컷 황소의 쓸개에 넣고 여름까지 숙성시킨다), 금박 100편(보호지를 제거하고 만들어진 약 1냥을 한꺼번에 막자사발에 넣고 아주 곱게 뺑은 후 앞의 약 가루와 함께 섞어서 썬다).

右前十二味, 除【硃砂】【金箔】不入碾, 內餘十味, 【檀香】不過火外, 九味或曬或焙, 同研爲末, 仍和勻【硃砂】【金箔】每一兩重, 取新汲井水一兩重, 入乳鉢內, 畧杵勻, 隨手丸此樣○大粒. 詠乾, 晴霽畧曬, 日色燥甚則拆裂, 宜頻放當風處, 取其自乾. 治法, 並用【葱湯】, 無時化服, 或【薄荷湯】, 痰壅嗽甚, 【淡姜湯】下, 痘瘡見形有驚, 【溫淨湯】下, 心悸不安, 【灯草湯】下, 暑天迷悶, 【麥門冬】熟水下, 百日內嬰孩, 每丸作三次投, 二歲以上者, 止一丸或二丸. 其品劑修合之時, 但缺一味, 不依制度, 必無效矣. 常用瓦瓶入【麝香】同收, 毋使被泄氣味, 入【玢珠】末一兩合和, 名【金珠散】. 盖【玢珠】能鎮心寧肝, 墜痰尤效. 治法, 湯使同煎, 此藥內家傳秘方, 嘗自精製出贖, 人多信用, 取者甚衆, 今推誠刊行, 願與天下共之, 非敢自矜, 特以全嬰爲念耳. 此方出活幼心書, 屢用神效, 故附於此.

앞의 12가지 약재 중에 주사와 금박은 연자에 넣지 않는다. 나머지 10가지 약재 중에 단향은 불에 달지 않도록 하고, 9가지 약재는 별이나 곁불에 말린 다음 한꺼번에 갈아서 가루 낸다. 그리고 나서 주사와 금박 1냥씩을 골고루 섞어 신급수 1냥을 막자사발에 붓고 대략 섞이도록 갈아준 후 이렇게 ○ 모양으로 큰 환을 빚는다. 그늘에서 말리다가 맑은 날 별에서 살짝 말린다. 날씨가 너무 건조하면 갈라지니 바람 드는 곳에 자주 옮겨 놓으면서 자연적으로 마른 것을 쓴다. 복용할 때는 모두 시간에 상관없이 총탕이나 박하탕에 녹여서 복용한다. 담연이 목구멍을 막아 기침이 심하면 묽은 생강탕으로 넘기고, 두창이나 무언가를 보고 놀란 경우에는 온정탕에 넘기며,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 하면 정초탕으로 넘기고, 여름철에 정신이 혼미하고 가슴이 답답하면 맥문동을 꼭 달인 물로 넘긴다. 생후 100일 이내 갓난아이는 1환을 3번에 나누어 먹이고, 2살 이상 아이는 1환 혹은 2환씩 먹인다. 약재를 다듬어 조제할 때 1가지 약재라도 빠지

거나 포제법을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항상 질그릇에 사향과 함께 보관하여 약성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진주 가루 1냥을 합하면 금주산 이라고 부른다. 진주는 심장과 간장을 진정시키고 담연을 떨어뜨리는 데 매우 효과가 좋다. 복용할 때는 물에 넣고 달여 먹는다. 이 약에 넣는 가전비방은 예전부터 정제하여 판매하여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고 찾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 이제 정성스런 보답으로 간행하여 천하의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감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를 생각할 뿐이다. 이 처방은 《활유심서》에서 나온 것으로 누차 써보았더니 신효하여 여기에 붙인다.

驚熱 경열(驚熱)

驚熱者, 內蘊實熱, 鬱勃發驚, 甚則搐掣, 變而癇耳. 治法, 疏導熱氣, 利驚定心, 亦有變蒸微驚, 以其熱盛得之, 但與輕藥, 或不治亦自愈.

경열(驚熱)이란 몸 속에 실열이 쌓이다가 꼭 막혀서 경풍으로 발작한 것으로 심하면 축낙이 생겼다가 간질로 악화될 수 있다. 치료할 때는 열을 대변으로 빼주어 경풍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 그밖에도 변(變)과 증(蒸)을 하는 과정에서 살짝 놀라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변과 증을 할 때 열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저 약성이 가벼운 약만 주면 되고, 혹은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좋아진다.

驚熱證治

경열(驚熱)의 증상과 치료법

- 【犀角湯】
- 서각탕

治心驚熱盛.

가슴에 경열(驚熱)이 왕성한 증상을 치료한다.

犀角、防風、木通、赤茯苓、桑白皮(炒)、甘草(炙) 等分.

서각、방풍、목통、적복령、상백피(볶는다)、자감초 각각 같은 양.

右剉細, 每三字, 水煎服.

이상을 잘게 썰어 한번에 3자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銀棗湯】
- 은조탕

治驚熱潮熱.

경열이나 조열을 치료한다.

麥門冬、地骨皮、遠志肉(姜制, 焙)、人參、茯苓、防風、甘草(焙) 各二錢, 大黃(濕紙煨) 二錢.

맥문동、지골피、원지육(생강즙에 법제하고 겉불에 말린다)、인삼、복령、방풍、감초(겉불에 말린다) 각 2돈, 대황(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2돈.

右爲末, 每半錢, 煎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0.5돈씩 달여 복용한다.

- 【清心丸】
- 청심환

治驚熱煩燥.

경열이나 번조를 치료한다.

人參、伏神、防風、朱砂、柴胡 各二錢, 金箔 三十片.

인삼、복신、방풍、주사、시호 각 2돈, 금박 30조각.

右爲末, 煉蜜丸, 桐子大, 每服一丸, 竹瀝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죽력에 탁 넘긴다.

- 【伏神丸】
- 복신환

治壯熱發驚, 痰壅直視.

열이 끓다가 경풍이 발작하여 담연이 가득한 채 눈에 초점이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南星、胡黃連、天麻、伏神 各三錢, 靑黛、牙硝、朱砂 各二錢, 麝 一字.

남성、호황련、천마、복신 각 3돈, 청대、아초、주사 각 2돈, 사향 1자.

右爲末, 粟米糊丸, 桐子大, 每服一丸, 【石菖蒲】、【荊芥】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좁쌀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석창포와 형개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膽星丸】
- 담성환

鎮心壓驚, 利痰解熱.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담연을 빼주며 열을 풀어준다.

牛膽南星 半兩, 朱砂、防風 各二錢, 麝 一字.

우담남성 0.5냥, 주사·방풍 각 2돈, 사향 1자.

右用臘月黃牛膽汁, 和南星末作餅子, 掛當風處四十九日, 和下項藥末研細, 浸【牛膽皮】湯, 爲丸如桐子大, 每服一丸, 井花水調下.

12월에 잡은 황소의 쓸개에 쓸개즙과 남성 가루를 섞어 떡처럼 뭉쳐 넣은 후 바람 드는 곳에 49일 동안 걸어 놓는다. 주사와 방풍과 사향 가루와 섞어 곱게 갈고 소 쓸개 껍질 달인 물에 담갔다가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 씩 정화수에 타서 넘긴다.

- 【羚羊角湯】
- 영양각탕

治諸驚壯熱.

무언가에 놀라서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羚羊角、蟬殼 半分, 伏神(去心)、麥門冬、柴胡、地骨皮 各一分, 黃芩、甘草(炒) 半分.

영양각、선각 0.5푼, 복신(심을 제거한다)、맥문동、시호、지골피 각 1푼, 황금、감초(볶는다) 0.5푼.

右剉散, 每一錢, 姜棗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번에 1돈씩 생강과 대조를 함께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附方】

〔주송정 추가〕처방

- 【祛風羌活散】
- 거풍강활산

敗風邪, 止驚搐, 退肌熱.

풍사를 물리치고 경풍으로 생긴 축닉을 멎게 하며 체표의 열을 떨어뜨린다.

羌活、粉草、天麻(生)、茯苓、川芎 各二錢, 荊芥穗、白殭蚕(炒)、白朮、白附子(炮) 各一錢, 桔梗 二錢半, 防風 一錢半, 全蝎(去皮) 半錢(炒), 硃砂 五分, 天南星 一字(炮熟).

강활、분초、천마(생것)、복령、천궁 각 2돈, 형개수、백강잠(볶는다)、백출、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돈, 길경 2.5돈, 방풍 1.5돈, 전갈(깍질을 제거한다) 0.5돈(볶는다), 주사 5푼, 천남성 1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右爲細末, 薄荷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박하탕으로 넘긴다.

胎驚 태경(胎驚)

胎驚方論

태경에 대한 설명

胎驚風, 以胎婦調適乖常, 飲酒嗜慾, 忿怒驚撲, 母有所觸, 胎必感之, 或外挾風邪, 有傷於胎, 故子乘母氣, 生下則病也. 其候, 月內溫壯, 翻眼握拳, 噤口咬牙, 身腰強直, 涎潮嘔吐, 搐掣驚啼, 腮縮顙開, 或頰赤, 或面青眼合. [胎風眼合, 不可誤作慢脾, 妄用溫藥.] 其有着噤撮口之類, 亦此一種之所發也. 視其眉間氣色, 紅赤鮮碧者可治, 若黯黑青黑者不治, 虎口指紋曲入裏者可治, 紋反出外者不治. 治法, 解散風邪, 利驚化涎調氣, 貼顙, 甚則以【朱銀丸】利之.

태경(胎驚, 태경풍胎驚風)은 임신부가 이상한 것을 마주치거나 술을 마시거나 성욕을 탐하거나 분노하거나 놀라거나 맞거나 하는 일 때문에 생기니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면 태아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혹은 풍사에 외감되어 태아까지 손상되어 생기기 때문에 자식이 어머니의 상태를 물려받아 태어나서 나타나는 병이다. 태경의 증상으로는 생후 1달 동안 몸이 뜨끈뜨끈하거나, 눈이 뒤집히면서 주먹을 꼭 쥐거나, 입을 다문 채 이빨을 악물거나, 몸통이 강직되거나, 담연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오며 구토하거나, 축닉이 발작하면서 놀라 울거나, 뺨이 당기면서 솟구멍이 열리는 것들이 있다. 간혹 뺨이 붉어지는 경우도 있고 낮빛이 창백해지면서 눈을 감는 경우도 있다. [태경으로 눈을 감는 증상을 민비풍으로 착각하여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밖

에 구금(口噤)이나 찰구(撮口) 같은 증상도 태경이 발작한 증상의 하나이다. 미간의 색깔을 살펴보아 붉거나 빨갛거나 푸른 빛이 도는 경우는 계속 치료해야 하지만, 색깔이 까맣거나 검푸른 경우는 치료하지 못한다. 호구 부분의 핏줄이 속으로 굽어 들어간 경우는 치료할 수 있으나, 핏줄이 바깥으로 뒤집혀 나간 경우는 치료하지 못한다. 치료할 때는 풍사를 흘리고 경풍을 배출시키며 담연을 녹여 숨을 고르게 해야 하며 숫구멍에 붙이는 외용약도 쓴다. 증상이 심하면 주은환으로 설사시켜야 한다.

胎驚證治

태경의 증상과 치료법

- 【太一散】
- 태일산

治胎驚.

태경을 치료한다.

天漿子(去殼, 微炒)、南星、白附子(各微炮)、天麻、防風、伏苓 各二錢, 全蝎、朱砂 各一錢, 麝 少許.

천장자(껍질을 제거하고 살짝 볶는다)、남성、백부자(각각 습지에 싸서 살짝 굽는다)、천마、방풍、복령 각 2돈, 전갈、주사 각 1돈, 사향 약간.

右爲末, 每服半錢, 乳汁化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젖에 녹여서 넘긴다.

• 【參蜎散】

- 삼갈산

治胎驚, 定心神.

태경을 치료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天漿子、天竺黃、人參、朱砂、全蜎、天麻、蟬殼 等分, 麝 少許.

천장자、천축황、인삼、주사、전갈、천마、선각 각각 같은 양, 사향 약간.

右爲末, 煉蜜丸, 桐子大, 每服一丸, 金銀湯下.

이상을 가루 낸다.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금이나 은 달인 물로 넘긴다.

• 【猪乳膏】

- 저유고

治胎驚最妙.

태경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다.

琥珀、防風 ①錢, 朱砂 半錢.

호박、방풍 각 1돈, 주사 0.5돈.

右爲末, 猪乳調一字式, 入口中.

이상을 가루 낸 후 저유에 1자씩 타서 입속에 넣는다.

• 【全蝎散】

- 전갈산

治諸驚胎癇.

무언가에 놀라서 태경이 간질로 악화된 경우를 치료한다.

全蝎 一个(焙), 琥珀、朱砂 各少許.

전갈 1개(겉불에 말린다), 호박、주사 각각 조금씩.

右爲末, 每服一字, 麥門冬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맥문동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朱麝散】

- 주사산

治胎風, 心熱痰壅.

태경으로 가슴에 열이 나면서 담연이 심한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朱砂 各一分, 牛膽南星、天竺黃、牙硝、鐵粉 各半分, 麝 少許.

인삼、주사 각 1푼, 우담남성、천축황、아초、철분 각 0.5푼, 사향 약간.

右爲末, 每服一字, 生姜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생강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獨活湯】
- 독활탕

治胎驚, 發散風邪.

풍사를 발산시켜 태경을 치료한다.

羌活、獨活 各一分, 檳榔、天麻、麻黃(去節)、甘草(炙) 半分.

강활、독활 각 1푼, 빈랑、천마、마황(마디를 제거한다)、자감초 0.5푼.

右剉散, 每服半錢, 水煎服. 於內加【南星末】蜜調, 可貼額用.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번에 0.5돈씩 복용하되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약 가루에 남성 가루를 추가하고 꿀에 개면 숫구멍에 붙이는 외용약으로 쓸 수 있다.

- 【朱銀丸】
- 주은환

治胎風, 壯熱痰盛, 翻眼口噤. 取下胎中蘊受之毒, 亦治驚積, 但量用之.

태경으로 열이 끓으면서 담연이 심하고 눈을 뒤집은 채 입을 악다문 경우를 치료한다. 뱃속에서 쌓인 독기를 빼내는 약이며 경풍으로 생긴 적취도 치료한다. 단, 아이의 몸집을 고려하여 써야 한다.

水銀 一錢(蒸棗肉, 研如泥), 白附子 一錢半, 蝎 一錢, 南星、朱砂 一分, 天漿子、牛黃、芦薈 各半分, 鉛霜 半錢(和水銀研), 腦 一字, 麝 半錢, 直僵蚕(炒) 七个.

수는 1돈(찐 대조 과육과 함께 질게 간다), 백부자 1.5돈, 전갈 1돈, 남성·주사 1푼, 천장자·우황·노회 각 0.5푼, 연상(鉛霜) 0.5돈(수는과 함께 간다), 뇌자 1자, 사향 0.5돈, 곧은 강잠(볶는다) 7개.

右爲末, 粟米糊丸, 芥子大, 每一丸, 薄荷湯下, 如未通利, 加至二丸.

이상을 가루 낸다. 좁쌀풀에 개어 개자(芥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약을 먹어도 설사를 하지 않으면 2환까지는 더 먹인다.

• 【千金龍膽湯】

• 천금용담탕

治胎驚, 月內氣盛, 發熱. 凡臍風撮口壯熱, 皆可用.

생후 1달 이내에 태경으로 호흡이 심하고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제풍(臍風)이나 찰구(撮口)나 열이 심할 때 모두 쓸 수 있다.

龍膽草、釣藤、柴胡、黃芩、北梗、赤芍藥、茯苓、甘草(炙) 各半², 蜣螂一枚(去翅足, 炙), 大黃 一分(濕紙煨).

용담초·조구등·시호·황금·북길경·적작약·복령·자감초 각 0.5냥, 강랑 1개(다리와 날개를 제거하고 굽는다), 대황 1푼(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右爲末, 每服一錢, 【北棗】煎服, 或加【防風】、【麥門冬】, 以導心熱, 【黃芩】減半用.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돈씩 복용하되 북조(北棗)와 함께 달여 복용한다. 방풍·맥문동을 추가하여 가슴의 열을 뺄 때는 황금을 절반만 쓰기도 한다.

【附方】

〔주송정 추가〕처방

- 【靑金丸】
- 청금환

治嬰孩小兒解散胎熱, 化痰涎, 鎮胎驚.

갓난아이의 태열을 풀어주고 담연을 녹이며 태경을 진정시킨다.

人參(去芦)、天麻(煨)、茯神(去皮木)、白附子(炮)、牛膽南星(炒) 各二錢, 甘草(炙) 一錢半, 靑黛 一錢, 硃砂(水飛) 半錢, 麝香 一字.

인삼(노두를 제거한다)、천마(젓불에 굽는다)、복신(껍질과 목질부를 제거한다)、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우담남성(볶는다) 각 2돈, 자감초 1.5돈, 청대 1돈, 주사(수비한다) 0.5돈, 사향 1자.

右爲極細末, 煉蜜丸, 桐子大, 用釣藤、皂莢子煎湯, 研化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다.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조구등、조협자 달인 물에 갈아서 먹인다.

【附】胎驚謠

〔주송정 추가〕태경에 대한 노래

胎驚搐搦口喎斜 筋骨拘拳臉似花

口唾涎沫哭聲短 手足相牽膽受邪

唇青齒齦多緊急 腹臍腫起似垂瓜

腹腹額頭青脉見 逐涎安魄命須賒

面腫鵝聲蛇眼視 名方謾說幾千車

태경으로 축닉이나 구안와사가 생기거나 / 근골이 오그라들거나 뺨이 붉거나,
입에서 끈적한 거품이 나오거나 울음소리가 짧거나 / 손발이 당기는 것은 담부
가 사기를 받은 것이네.

입술이 파랗거나 이빨을 악다물거나 / 배꼽 부근에 종기가 생겨 박이 매달린
듯하거나,

배와 이마에 푸른 핏줄이 나타나면 / 담연을 몰아내고 혼(魂)을 안정시켜야 목
숨을 반드시 부지하네.

얼굴이 붓거나 깍깍 소리를 내거나 뺨같은 눈이 되면 / 유명한 처방이나 부질
없는 설명이 몇 천 수레라네.

1. ① 各一 ※《보제방》(원본에는 해당 글자가 결락되었음. 보제방은 이 책보
다 후대의 책이지만 보제방에서 이 책을 인용한 기록 외에는 교감할 수 있는
책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후대의 책으로 교감하였음) ←

2. * : 兩 ※문맥상 ←



定驚 경풍을 진정시킴

通關定驚方論

막힌 구멍을 통하게 하고 경풍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

諸風搖擲, 關竅不通, 皆由痰塞中脘, 留滯百節所致. 痰之所爲潮塞者, 氣實使之, 治風痰, 雖不出【南星】、【半夏】、【全蝎】、【僵蚕】類輩, 亦須先用【蘇合香丸】入【朱砂】少許, 以姜汁浸, 薄荷湯調和與之. 盖使氣下則痰下, 痰下則關竅自通.

각종 풍증이나 축닉이나 몸의 구멍이 막히는 것은 모두 담연이 중완(中脘)을 막거나 여러 관절에 뭉치기 때문에 생긴다. 담연이 주기적으로 막히는 까닭은 어딘가의 기운이 실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풍담(風痰)을 치료하는 약재가 남성·반하·전갈·백강잠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주사를 약간 넣은 소합향환을 생강즙에 담갔다가 박하탕과 섞어서 먹여야 한다. 아마 실했던 기운을 내리면 담연도 내려갈 테고, 담연이 내려가면 몸의 구멍이 자연히 통하게 될 것이다.

通關定驚證治

막힌 구멍을 통하게 하고 경풍을 진정시키는 치료법

- 【開關散】
- 개관산

赤蜈蚣 一條(炙), 直僵蚕、南星(炮) 各一錢, 麝香 一字, 猪牙皂 二銚(畧燒存性).

붉은 오공 1개(굽는다), 곤은 강잠·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돈, 사향 1자, 저아조각 2개(약성이 남도록 살짝 태운다).

右爲末, 以水點姜汁, 蘸藥少許, 擦牙, 或用物引, 滴入藥兩三點, 涎出自開.

이상을 가루 낸다. 생강즙을 탄 물을 적신 다음 약가루 약간을 묻히고 이빨을 문지른다.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빨을 벌리고 약을 2-3방울 떨어뜨리면 담연을 흘리면서 입이 벌어진다.

- 【開牙散】
- 개아산

華陰細辛、南星、朴硝 各一錢, 麝 半錢, 蝎梢 五條.

세신(화음華陰에서 난 것)·남성·박초 각 1돈, 사향 0.5돈, 갈초 5개.

右爲末, 以少許, 用烏梅肉揉和擦牙, 兼用【細辛】、【皂角】、【荊芥末】, 吹入鼻中.

이상을 가루 낸 후 약간을 오매육과 섞어 이빨을 문지른다. 동시에 세신·조각·형개를 가루 내어 콧속에 넣어 넣는다.

- 【嚏驚散】
- 체경산

半夏(生) 一錢, 皂角 半錢.

반하(생것) 1돈, 조각 0.5돈.

右爲末, 用一豆許, 用管子吹入鼻, 立惶.

이상을 가루 낸 후 콩 1알 정도 분량을 코에 대롱으로 붙여 넣으면 바로 깨어난다.

• 【開關聖散】

• 개관성산

赤蜈蚣 一條(中分爲兩片, 各用葱汁浸一宿, 焙干), 全蝎 一个(亦中分爲兩片, 各記左右, 以二味記左右作兩處).

붉은 오공 1개(좌우로 잘라 2조각으로 나누고 각각 총백즙에 하룻밤 담가 놓았다가 곁불에 말린다), 전갈 1개(역시 좌우로 잘라 2조각으로 나누고 각각 좌(左)인지 우(右)인지 적어 놓는다. 2가지 약재 모두 좌우를 적어 양쪽에 따로 둔다).

右各爲末, 左眼翻左手搐, 以左藥末搐入左鼻孔, 右眼翻右手搐, 以右藥末搐入右鼻孔, 双眼翻双手搐兼用之.

이상을 각각 가루 낸다. 왼쪽 눈이 뒤집히고 왼손에 축닉이 생긴 경우에는 '좌(左)'라고 쓴 약가루를 왼쪽 코에 붙여 넣고, 오른쪽 눈이 뒤집히고 오른손에 축닉이 생긴 경우에는 '우(右)'라고 쓴 약가루를 오른쪽 코에 붙여 넣는다. 양쪽 눈이 뒤집히고 양손에 축닉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붙여 넣는다.

截風定搐治法

풍사를 꺾고 축닉을 진정시키는 치료법

- 【人參羌活散】 [方見瘡疹門]
- 인삼강활산 [처방은 창진문에 나온다]

散風邪, 除風熱. 初作急風, 每服三字, 輕者紫蘇薄荷湯調下. 搐掣緊急者, 【去節麻黃】煎湯調下, 或【惺惺散】加【荊芥】、【防風】, 亦可常用, 免得遽拖【腦】【麝】.

풍사를 흘리고 풍열을 없앤다. 발병 초기의 급경풍에는 한번에 3자씩 복용하되, 증세가 가벼우면 자소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축닉에 입을 악다문 경우에는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혹 성성산에 형개·방풍을 추가하여 써도 괜찮으니 급하게 뇌자와 사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 【截風丸】
- 절풍환

治驚風痰搐.

경풍으로 담연과 축닉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天麻、直僵蚕(炒)、南星(炮) 各二錢, 麝 少許, 赤蜈蚣 大者一條(酒浸, 炙), 白附子(炮)、防風、朱砂、全蝎(焙) 各一錢.

천마·곧은 강잠(볶는다)·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2돈, 사향 약간, 붉은 오공 큰 것 1개(술에 담갔다가 굽는다),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방풍·주사·전갈(겉불에 말린다) 각 1돈.

右爲末, 煉蜜丸, 桐子大, 每服一丸, 薄荷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
하되 박하탕으로 넘긴다.

- 【一字散】
- 일자산

截風定搐.

풍사를 꺾고 축닉을 진정시킨다.

全蝎 褐色者是一个, 赤蜈蚣 一條(並新瓦焙), 朱砂 半錢, 腦・麝 少許.

갈색 전갈 1개, 붉은 오공 1개(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기와에 올려 결불에 말린
다), 주사 0.5돈, 뇌자·사향 약간.

右爲末, 每服一字, 薄荷湯調下. 先以些少, 用管子吹入鼻中, 自然通竅.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약을 먹이기
전에 가루 약간을 대롱으로 코에 붙여 넣으면 자연히 구멍이 뚫린다.

- 【陽癇散】
- 양간산

治驚風搐痰熱.

경풍으로 축닉이나 담연이나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朱砂・蘆薈・白附子(生) 各一錢, 麝 少許, 輕粉 一字, 胡黃連 二錢, 蝎尾 十四个, 直
僵蚕 十个, 赤蜈蚣 一條(炙), 金箔 十片.

주사·노회·백부자(생것) 각 1돈, 사향 약간, 경분 1자, 호황련 2돈, 갈미 14개, 곧은 강잠 10개, 붉은 오공 1개(굽는다), 금박 10조각.

右爲末, 每服一字, 薄荷荊芥泡湯調下, 如口不開, 先吹入鼻中.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뜨거운 물에 박하와 형개를 담갔다
가 그 물에 타서 넘긴다. 아이의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선 콧속에 가루를 불
어 넣는다.

• 【擒風湯】

• 금풍탕

治急風定搐.

급경풍으로 생긴 축닉을 진정시킨다.

白附、僵蚕、全蝎(各焙) 一錢, 川姜黃、赤蜈蚣 一个(去足, 酒研生葱生薄荷浸一
宿, 焙干), 南星(炮)、麻黃(去節)、羌活 各一錢, 牙硝 半錢.

백부자·강잠·전갈(각각 곁불에 말린다) 1돈, 천강황·붉은 오공 1개(다리를
떼고 생충백과 생박하를 갈아 넣은 술에 하룻밤 담갔다가 곁불에 말린다), 남
성(습지에 싸서 굽는다)·마황(마디를 제거한다)·강활 각 1돈, 아초 0.5돈.

右爲末, 每服一字, 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定搐散】

• 정축산

治急風定搐.

급경풍으로 생긴 축닉을 진정시킨다.

赤蜈蚣 大者一條(酒浸, 炙), 麻黃(去節)、南星(炮)、白附子、直僵蚕(炒)、羌活、
代赭石(煨, 醋淬七次)、蝎梢、川姜黃 各一錢, 麝 半分, 朱砂 一錢.

볶은 오공 큰 것 1개(술에 담갔다가 굽는다), 마황(마디를 제거한다)、남성(습
지에 싸서 굽는다)、백부자、곶은 강잠(볶는다)、강활、대자석(불에 달궈다
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차례 반복한다)、갈초、천강황 각 1돈, 사향 0.5푼,
주사 1돈.

右爲末, 每服一字, 荊芥紫蘇煎湯調下, 如搐不止, 加【烏蛇肉】.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형개와 자소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축닉이 멎지 않으면 오사육(烏蛇肉)을 추가한다.

- 【瀉青丸】
- 사청환

治竄視發搐痰熱.

눈동자가 쏠리면서 축닉이 발작하고 담연으로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龍膽草(焙)、梔子仁、大黃(濕紙煨)、羌活、防風 各一錢, 川芎 一錢半.

용담초(겉불에 말린다)、치자인、대황(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강
활、방풍 각 1돈, 천궁 1.5돈.

右爲末, 煉蜜丸, 桐子大, 每服一丸, 煎¹葉泡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
하되 죽엽 달인 물이나²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木通散】

- 목통산

能瀉肝風, 降心火, 最利驚熱.

풍사를 배출하고 열을 내리니 경열(驚熱)에 가장 좋다.

山梔 二錢, 大黃(濕紙煨)、羌活、木通、赤茯苓、甘草 各一錢.

산치 2돈, 대황(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강활、목통、적복령、감
초 각 1돈.

右爲末, 每服一字, 紫蘇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자소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清寧散】

- 청녕산

凡驚熱出於心肺, 須從小便利之.

일반적으로 경열(驚熱)은 심장과 폐장에서 나오니 반드시 소변으로 배출시켜
야 한다.

桑白皮(炒)、葶藶(炒)、赤茯苓、車前子、梔子仁 等分, 甘草(炙) 減半.

상백피(볶는다)·정력(볶는다)·적복령·차전자·치자인 각각 같은 양, 자감초 절반.

右爲末, 每服半錢, 姜棗煎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0.5돈씩 생강과 대조를 함께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 【阿膠散】

• 아교산

治風熱、涎潮、喘促、搐掣、竄視.

풍열이나 주기적인 담연이나 천식이나 축낙이나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透明阿膠(炒) 二錢半, 紫蘇 一錢.

투명한 아교(볶는다) 2.5돈, 자소 1돈.

右爲末, 每服一錢, 入【烏梅肉】少許同煎灌下, 神效. 熱出於肺, 熱則生風, 【阿膠】清肺行小便故也, 肺風用之尤妙.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돈씩 오매육을 약간 넣고 함께 달여 입에 흘려 넣으면 신호하다. 열은 폐장에서 나오고 열이 나면 풍사가 생기는 법이니 아교는 폐장의 열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폐장에 풍사가 있을 때 쓰면 더욱 신호하다.

治驚輕下法

경풍을 치료할 때 가볍게 설사시키는 방법

- 【定命丹】
- 정명단

治急驚天吊撮口, 通利痰熱.

급경풍이나 천조(天吊)나 찰구를 치료하니 담열(痰熱)을 배출하는 처방이다.

全蝎 七个, 天麻、南星(炮)、白附 各二錢半, 朱砂、青黛 各一錢半, 輕粉、麝 各半錢, 腦 一字.

전갈 7개, 천마·남성(습지에 써서 굽는다)·백부자 각 2.5돈, 주사·청대 각 1.5돈, 경분·사향 각 0.5돈, 뇌자 1자.

右爲末, 粟米糊丸, 菉豆大, 每服一丸, 荊芥薄荷湯調下, 先研半丸, 吹入鼻中.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형개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약을 먹이기 전에 환 절반을 갈아서 콧속에 넣어 넣는다.

- 【利驚丸】
- 이경환

利驚下痰消熱.

경풍과 담연을 배출시키고 열을 끈다.

龍膽草、防風、青黛、芦薈、南星(炮)、釣藤 各二錢, 牙硝、鐵粉 各一錢, 腦、麝
少許.

용담초、방풍、청대、노회、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조구등 각 2돈, 아초
、철분 각 1돈, 뇌자、사향 약간.

右爲末, 麪糊丸, 麻子大, 每服二丸, 煎金銀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풀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
용할 때 2환씩 금이나 은 달인 물로 넘긴다.

- 【防風湯】
- 방풍탕

治風熱痰壅, 大便不通.

경풍으로 열이 나고 담연이 심하며 대변을 누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羌活、防風、枳實 各半兩, 川芎、甘草(炒)、大黃(濕紙煨) 各二錢半.

강활、방풍、지실 각 0.5냥, 천궁、감초(볶는다)、대황(습지에 싸서 잿불에
문어 굽는다) 각 2.5돈.

右剉末, 每服三字, 姜棗煎服.

이상을 썰어 가루 내고 한번에 3자씩 복용하되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
용한다.

- 【宣風散】

- 설팡산

疎導風熱.

경풍으로 나는 열을 배출시킨다.

雞心檳榔 二个, 甘草、橘紅 各半兩, 牽牛 二兩(半生用, 半炒熟).

계심빈랑 2개, 감초、귤홍 각 0.5냥, 견우 2냥(절반은 생째로 절반은 볶아서 쓴다).

右爲末, 每服半錢, 蜜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0.5돈씩 복용하되 따뜻한 꿀물에 타서 넘긴다.

- 【枳殼散】

- 지각산

小兒虛中壅實, 以此導之.

기운이 허한 아이에게 기운이 한 곳에 막혀 실증이 나타날 때 이 약으로 배출시킨다.

【小柴胡湯】加【枳殼】、【防風】, 最能利風熱, 解血熱, 免得用銀粉巴硝輩.

소시호탕에 지각、방풍을 추가하면 풍열을 배출시키고 혈의 열을 풀어주는 데 가장 좋다. 굳이 수은이나 경분이나 파두나 망초 같은 약재를 쓰지 않아도 된다.

治驚稍重下法

경풍을 치료할 때 약간 강하게 설사시키는 방법

- 【揭風湯】

- 게풍탕

利下痰熱.

담연으로 생긴 열을 배출시킨다.

靑黛、蘆薈、全蝎 各一分, 南星 半兩(爲末, 水調作餅, 包裹前項), 全蝎(煨, 令赤色)

、朱砂 一錢半, 牙硝、輕粉 各三字.

청대、노회、전갈 각 1푼, 남성 0.5냥(가루 낸 후 물에 개어 떡처럼 뭉친 후 앞
의 약재를 감싼다), 전갈(젓불에 묻어 붉어지도록 굽는다)、주사 1.5돈, 아초、
경분 각 3자.

右爲末, 每服一字, 煎金銀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금이나 은 그릇에 달인 박하탕에 타
넘긴다.

- 【朱砂膏】

- 주사고

治驚風痰盛.

경풍으로 담연이 심한 증상을 치료한다.

朱砂、馬牙硝 二錢, 川靈脂、蘆薈 各一錢半, 麝 半錢, 腦 一字.

주사、마아초 2돈, 천령지、노회 각 1.5돈, 사향 0.5돈, 뇌자 1자.

右研細, 【甘草膏】爲圓, 菉豆大, 金箔衣, 每服一圓, 薄荷湯調下.

이상을 곱게 갈고 감초고와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은 후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疎風散】
- 소풍산

治驚風痰熱俱盛.

경풍으로 담연과 열이 모두 심한 경우를 치료한다.

檳榔、陳皮 各二錢, 牽牛、大黃 各三錢(濕紙畧煨).

빈랑、진피 각 2돈, 견우、대황 각 3돈(습지에 싸고 잿불에 묻어 살짝 굽는다).

右爲末, 每服半錢, 生蜜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생꿀에 타 넘긴다.

- 【小柴胡湯】
- 소시호탕

最利熱實. [方見發瘥門] 加【大黃】少許.

실열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다. [처방은 발치문(發瘥門)에 나온다] 대황을 약간 추가한다.

治驚重下法

경풍을 치료할 때 강하게 설사시키는 방법

- 【青金圓】
- 청금원

治風痰壅盛. 驚重下法³

경풍으로 담연이 심한 증상을 치료한다.

巴霜(巴豆去油, 淨盡如霜者) 一字, 青黛、南星(炮) 各一錢, 輕粉 半分, 滑石 二錢, 全蝎 一錢(焙).

파두상(파두의 기름을 제거하고 서리처럼 낀 것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1자, 청대、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돈, 경분 0.5푼, 활석 2돈, 전갈 1돈(겉불에 말린다).

右爲末, 稀麪糊圓, 麻子大, 每服一圓, 薄荷湯點送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묽은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天麻圓】
- 천마원

利驚下痰, 凡釣腸鎖肚撮口可通用.

경풍을 흘리고 담연을 배출시킨다. 천조나 반장이나 쇠두(鎖肚, 신생아의 대변 불통)나 찰구에 통용할 수 있다.

南星(炮) 二錢, 白附子(炮)、牙硝、天麻、川靈脂、全蝎(焙) 各一錢, 輕粉 半錢, 巴霜 一字.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2돈,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아초、천마、천령지、전갈(겉불에 말린다) 각 1돈, 경분 0.5돈, 파두상 1자.

右爲末, 稀麪糊丸, 麻子大, 每服一丸, 薄荷姜棗泡湯送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묽은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박하와 생강과 대조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이것으로 넘긴다.

- 【蘆薈散】
- 노회산

治驚風痰盛發搐.

경풍으로 담연이 심하고 축닉이 발작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全蝎 五个(焙), 巴霜 一字, 輕粉 半錢, 南星(炮)、朱砂 各一錢, 川鬱金 一分(皂角水煮, 焙干), 腦、麝 各一字.

전갈 5개(겉불에 말린다), 파두상 1자, 경분 0.5돈,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주사 각 1돈, 천울금 1푼(조각 우린 물에 끓였다가 겉불에 말린다), 뇌자、사향 각 1자.

右爲末, 每服一字, 煎金銀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번에 1자씩 복용하되 금이나 은 그릇에 달인 박하탕에 타 넘긴다.

- 【牛黃凉膈丸】
- 우황양격환

治熱盛涎潮.

열이 심하고 담연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馬牙硝、寒水石(煨)、硬石膏、甘草 各半兩, 牛膽南星 二錢半, 紫石英 一錢, 牛黃、腦、麝 各半錢.

마아초、한수석(불에 달군다)、경석고、감초 각 0.5냥, 우담남성 2.5돈, 자석영 1돈, 우황、뇌자、사향 각 0.5돈.

右爲末, 甘草膏爲丸, 菉豆大, 每服一丸, 橘皮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감초고와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굴피탕에 타 넘긴다.

- 【靑金丹】
- 청금단

踈風利痰.

풍사를 흘리고 담연을 배출시킨다.

蘆薈、牙硝、青黛 各一錢, 史君子 三个, 南鵬砂、輕粉 半錢, 蝎梢 十四个.

노회、아초、청대 각 1돈, 사군자 3개, 남봉사、경분 0.5돈, 갈초 14개.

右爲末, 用香墨水丸麻子大, 每服一丸, 薄荷泡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향묵(香墨) 간 즙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 【王監京墨丸】
- 왕감경묵환

治痰熱驚積.

담연으로 생긴 열과 경풍으로 생긴 적취를 치료한다.

青黛、史君子(焙熟)、芦薈、牛膽南星、川墨 各二錢, 膩粉、麝 半錢, 腦 一字.

청대、사군자(겉불에 익힌다)、노회、우담남성、천묵 각 2돈, 이분、사향 0.5돈, 뇌자 1자.

右爲末, 飛白麵糊丸, 桐子大, 每服一丸, 薄荷湯調下. 楚州王監, 賣此藥著名, 大利痰熱驚積疳積.

이상을 가루 낸 후 아주 곱고 흰 밀가루로 쏜 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초주(楚州)의 왕감(王監)이란 사람이 이 약을 팔아서 유명해졌다. 담연으로 생긴 열과 경풍으로 생긴 적취와 감적(疳積)을 강하게 배출시킨다.

和胃助氣治法

위기(胃氣)를 편안하게 하는 치료법

- 【生氣散】

- 생기산

諸風疏利後, 以此調氣.

각종 풍증을 배출시킨 후에 이 약으로 위기를 조리해야 한다.

丁香 三字, 白朮、青皮 各二錢, 甘草(微炙)、木香、人參 一錢.

정향 3자, 백출·청피 각 2돈, 감초(살짝 굽는다)·목향·인삼 1돈.

右爲末, 每服半錢, 沸湯點服, 或用【和劑方調氣散】亦得.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0.5돈씩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화제방》의 조기산을 써도 좋다.

- 【銀白散】

- 은백산

助胃祛風, 嘔吐作慢驚者通用.

위기(胃氣)를 복돋고 풍사를 제거한다. 구토하다가 만경풍이 된 경우에도 통용한다.

石蓮肉、白扁豆(制)、伏苓 各一分, 人參、天麻、白附(炮)、全蝎(炒)、木香、甘草(炒)、藿香 半分, 陳米(炒香) 三錢.

석련육, 백편두(법제한다), 복령 각 1푼, 인삼, 천마,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전갈(볶는다), 목향, 감초(볶는다), 곽향 0.5푼, 진미(향이 나도록 볶는다) 3돈.

右爲末, 每服一錢, 姜錢一片, 入【冬瓜子仁】七粒同煎, 或用陳米飲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1돈씩 복용하되 생강 1조각과 동과자인 7알을 넣고 한꺼번에 달여 복용한다. 혹은 묽은 쌀로 쑨 미음에 타서 넘긴다.

• 【伏苓二陳湯】

• 복령이진탕

和胃助氣, 加【蓮子肉】【石菖蒲】, 用姜棗煎.

위기(胃氣)를 복돋으려면 연자육과 석창포를 추가하여 생강, 대조와 함께 달여 복용한다.

• 【異功散】

• 이공산

溫中正氣, 吐瀉不食用此.

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기(胃氣)를 바로잡는다. 구토와 설사로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이 약을 쓴다.

人參、伏苓、白朮、甘草(炒)、橘紅、木香 各等分.

인삼, 복령, 백출, 감초(볶는다), 굴홍, 목향 각각 같은 양.

右爲末, 每服三字, 姜棗煎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한번에 3자씩 복용하되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天麻蘇合香丸】、【天麻防風丸】、【蘇合香丸】等分, 姜棗煎湯調下.

천마소합향환, 천마방풍환, 소합향원 각각 같은 양을 생강과 대조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參苓白朮散】
- 삼령백출산

用【酸棗仁】、【石菖蒲】煎湯調下.

산조인, 석창포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和中散】
- 화중산

和胃氣, 止吐瀉.

위기(胃氣)를 편안하게 하고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한다.

伏苓、石蓮肉 各一分, 藿香、人參、天麻、白扁豆(制)、木香、白朮、甘草(炒) 各半分.

복령、석련육 각 1푼, 곽향、인삼、천마、백편두(법제한다)、목향、백출、감초(볶는다) 각 0.5푼.

右剉散, 每服三字, 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번에 3자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醒脾散】
- 성비산

二方并【王氏惺惺散】見初傳慢驚門, 皆和胃助氣.

성비산과 왕씨성성산 2개 처방은 만경문(慢驚門)에 나온다. 모두 속을 편하게 하고 위기(胃氣)를 복돋는 약이다.

定志寧神治法

정신을 안정시키는 치료법

- 【定志丸】
- 정지환

驚風已退, 神志未定, 以此調之.

경풍 증상은 줄었으나 정신이 불안정하면 이 약으로 조리시킨다.

琥珀、伏神、遠志(姜制, 焙)、人參、白附子(炮)、天麻、天門冬、酸棗仁、甘草(炙)等分.

호박、복신、원지(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인삼、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천마、천문동、산조인、자감초 각각 같은 양.

右爲末, 煉蜜丸, 梔子大, 【朱砂】爲衣, 每服一丸, 灯心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조각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한번에 1환씩 등심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溫膽湯】

- 온담탕

治驚悸煩痰.

경계(驚悸)와 번조와 담연 증상을 치료한다.

半夏(制)、枳實 各二錢半, 伏苓 半兩, 橘紅、甘草 各一錢半, 酸棗仁(溫湯浸, 去殼) 二錢半.

반하(법제한다)、지실 각 2.5돈, 복령 0.5냥, 귤홍、감초 각 1.5돈, 산조인(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껍데기를 제거한다) 2.5돈.

右剉散, 每服一錢, 入【竹茹】少許, 用姜棗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번에 1돈씩 복용하되 죽여를 약간 넣고 생강과 대조와 함께 달여 복용한다.

- 【定心丸】

- 정심환

治驚悸煩燥.

경계(驚悸)와 번조 증상을 치료한다.

北參、遠志(姜制, 焙)、伏神、天麻、犀角 各一分, 防風、朱砂 一錢, 麝 一字.

북삼、원지(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복신、천마、서각 각 1푼,
방풍、주사 1돈, 사향 1자.

右爲末, 煉蜜丸, 梔子大, 金箔衣, 每服一丸, 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조각자 크기로 환을 빚고 금박을 입힌다. 한번
에 1환씩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百枝膏】
- 백지고

安心寧神.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人參、防風、天麻、伏神 各稱一錢半, 白附子、酸棗仁、琥珀、石菖蒲 各一錢, 麝
少許.

인삼、방풍、천마、복신 각 1.5돈, 백부자、산조인、호박、석창포 각 1돈, 사
향 약간.

右爲末, 煉蜜丸, 梔子大, 麥門冬湯調下一圓.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조각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맥문동탕에 1환을
타 넘긴다.

【附方】

〔주송정 추가〕 처방

- 【秘傳經驗定驚丸】
- 비전경험정경환

治小兒一切驚風, 熱甚發燥, 或因痘疹初出, 傷寒發熱, 跌撲而發驚風, 牙關緊急, 目竄上視, 並皆治之.

경풍으로 열이 심해져 번조까지 생긴 모든 증상을 치료한다. 혹은 두창에 수포가 처음 돋을 때나 상한으로 열이 날 때나 구타를 당한 후 경풍이 발작했을 때나 이빨을 악물면서 눈을 치켜뜨는 경우까지 모두 치료한다.

南星(製法, 每兩切片, 用白附子、枯礬、姜黃各三分, 同入黃牛膽內, 懸於陰處一年, 取出听用)、蟬退(去頭足土)、鵬砂、孩兒茶、礞石(金心者, 煨過用)、薄荷、防風(去芦)、全蝎(去足尾, 用荊芥湯漂過, 晒乾听用)、殭蚕(洗去灰, 去頭觜, 炒去絲) 已上各三錢, 雄黃(明者) 四錢, 硃砂、胡黃連、姜黃、羌活、天麻 已上各三錢, 天竺黃 二錢, 甘草(直者) 五錢, 石膏、滑石 各二兩, 牛黃(直者)、玢珠(用豆腐煮過)、琥珀 各一錢, 冰片、麝香 各八分.

남성(매 1냥을 절편으로 썰고 백부자、고반、강황 각 3푼과 함께 황소의 쓸개 안에 넣고 그늘에 1년 동안 걸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쓴다)、설퇴(대가리와 다리와 흙을 제거한다)、붕사、해아다、청몽석(속이 황금색인 것을 불에 달궈 쓴다)、박하、방풍(노두를 제거한다)、전갈(다리와 꼬리를 떼고 형개탕으로 씻어 벌레에 말려두었다가 쓴다)、백강잠(흰 부분을 씻어 내고 대가리를 제거한 후 볶아서 실을 제거한다) 이상 각 3돈, 응황(투명한 것) 4돈, 주사、호

황련、강황、강활、천마 이상 각 3돈, 천축황 2돈, 감초(곶은 것) 5돈, 석고、
활석 각 2냥, 우황(곶은 것)、진주(두부와 함께 삶았다가 쓴다)、호박 각 1돈,
빙편、사향 각 8푼.

右將【硃砂】、【牛黃】、【冰片】、【麝香】、【珍珠】、【琥珀】六味, 另研爲極細末, 餘
藥亦研爲細末, 和勻, 用占米糊爲丸○大, 用【硃砂】一兩, 研極細末爲衣, 再用金箔二
帖爲外衣, 每服一圓, 薄荷燈心湯下.

주사、우황、빙편、사향、진주、호박 6가지를 따로 갈아 아주 곱게 가루 낸
다. 나머지 약재도 갈아서 곱게 가루 내고 모두 잘 섞은 후 쌀풀을 떨어뜨리면
서 ○ 모양 정도 크기의 환으로 빚는다. 주사 1냥을 아주 곱게 갈아서 겉에 입히
고 한번 더 금박 2겹을 입힌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박하등심탕으로 넘긴
다.

【附】驚風握拳圖

〔주승정 추가〕경풍악권도(경풍일 때 주먹을 쥐는 모양)



〈驚風握拳圖 경풍악권도〉

握指於外 / 握指於內 / 叉指

엄지를 바깥쪽으로 쥐는 경우 / 엄지를 안쪽으로 쥐는 경우 / 엄지와 검지를 교차하는 경우

【附】驚風搐握拳

〔주승정 추가〕경풍으로 축닉이 발작할 때 주먹을 쥐는 모양

夫驚搐握拳者, 有陰陽兩證, 陰者拇指在內, 陽者拇指在外, 陽拳者順, 陰拳者逆. 又曰, 男子握拳於外爲順, 於內爲逆, 女子握拳於內爲順, 於外爲逆, 叉指者惡候也.

경축으로 주먹이 쥐어지는 것은 음(陰)의 형태와 양(陽)의 형태가 있다. 음의 형태는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양의 형태는 엄지가 밖으로 나온다. 양의 형태로 주먹이 쥐어지는 경우는 순증이고, 음의 형태로 쥐어지는 경우는 역증이다. 이렇게 설명한 곳도 있다. '남아가 경풍으로 주먹이 쥐어질 때 엄지가 바깥으로 가면 순증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역증이다. 여아는 엄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순증이고, 바깥으로 가면 역증이다. 엄지와 검지가 교차되면 나쁜 징조이다.'

【附】急驚握拳詞

〔주승정 추가〕급경악권가(급경풍일 때 주먹이 쥐어지는 모양)

急驚欲發先握拳 盖因胃中有毒涎

陰錯陽差爲逆頻 男左女右搐須痊

目白唇白應少睡 口喎舌卷更驚眠

大忌腹高頭手汗 神昏氣促豈能安

급경풍이 발작하기 전에는 주먹이 쥐어지니 / 아마 가슴에 있는 담연이 심해서
리락.

음양의 형태로 튀어나와 역증이 되니 / 남아는 왼손 여아는 오른손을 주먹 쥐
면 반드시 낫네.

눈과 입술이 창백하면 제대로 자지 못하고 / 구안와사와 설권(舌卷)은 자면서
한번 더 놀라네.

배가 뽕뽕해지거나 머리와 손에서 땀나는 건 매우 조심해야 하니 / 정신이 혼
미해지면서 숨이 짧아지면 어찌 편안하리.

又

하나 더

纔發驚風看握拳 指分內外細須言 [握指在內外]

內陰陽外斯爲順 女右左男令搐先

太極悶涎衝入肺 [喘急] 入心之內不能安

更將形證重重看 用藥開關双眼前

速與凉心爲治療 解驚調氣用湯圓

搐忌手心汗如水 此命端的屬九泉

경풍 초기에는 주먹 쥔 모양을 살펴야 하니 / 엄지 위치에 따라 자세히 말해야 하네. [주먹 쥔 엄지의 위치가 안쪽과 바깥쪽이 다르다]

엄지가 안쪽이면 음(陰)의 형태이고 바깥쪽이면 양(陽)의 형태니 이것으로 순증을 따지고 / 여아는 오른손 남아는 왼손이 경풍 발작 전에 쥐어지네.

기혈이 담연으로 답답해지면 폐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혈떡거림을 뜻한다] /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편안할 수 없네.

다시 모습을 살살히 살피고 / 약을 쓴다면 관문 열리는 모습을 두 눈 앞에서 볼 것이네.

빨리 심장의 열을 식히는 약을 먹여 치료하고 / 경풍을 풀며 기운을 조리하는 약을 써야 하네.

축닉에는 손바닥에 땀이 흐르는 경우가 가장 나쁘니 / 이런 경우는 목숨이 황천으로 가리.

1. 首 竹 ※문맥상 ←

2. 죽엽 달인 물이나 : 원본에는 '煎首葉泡'라고 되어 있고, 首葉은 문맥상 竹葉인 듯하나 구절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 ←

3. 驚重下法 ※연문 ←

해제

개요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은 남송(南宋)의 인재(仁齋) 양사영(楊士瀛)이 저술한 소아과 전문서적이다.

서지사항 및 판본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은 초간본을 구하지 못하여 명대 주송정(朱崇正)이 본인의 처방을 추가하여 간행한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을 저본으로 삼았다. (일본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야09 00183 7) 저본에 누락되거나 탈락된 경우 또는 내용상의 오탈자는 교감기를 달고 번역에 반영하였다.

흔히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 또는 《직지直指》라고 통칭하는 양사영의 저서는 4종이 있고, 《인재직지소아방론》은 그 중 하나이다.

- 《상한유서활인총괄傷寒類書活人總括》 : 《인재상한유서仁齋傷寒類書》, 《활인총괄活人總括》이라고도 한다. 총 7권. 간행년 미상(1260년 이전). 《상한론》과 《유증활인서》에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여 만든 책이다.
-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 : 《영아지요嬰兒指要》, 《인재소아방론仁齋小兒方論》

》이라고도 한다. 남송 경정(景定) 원년인 1260년에 간행하였다. 총 5권이며, 12개 문(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맥진경醫脉眞經》: 《맥서脉書》, 《의학진경醫學眞經》, 《인재직지방론의맥진경仁齋直指方論醫脉眞經》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1권이나 주송정이 본인의 의견을 추가하여 2권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남송 경정3년인 1262년에 간행하였다. 송대 이전의 맥학의 오류를 빼고 핵심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인재직지방론仁齋直指方論》: 《인재직지仁齋直指》,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이라고도 한다. 총 26권. 양사영의 저서 4종 중에 대표작이라 할 수 있고, 조선에서도 간행한 적이 있다.

양사영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인재직지방론仁齋直指方論》은 초간본이 대만 고궁박물관에 선본으로 남아 있고 영인도 되었으나, 본 책은 소장처를 찾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초간본을 구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일본 와세다대학에 소장된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을 저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주송정이 추가한 부분에는 모두 '附'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양사영의 초간본 부분과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사항

양사영의 자는 등보(登父)이고, 인재(仁齋)는 그의 호(號)이다. 그는 복주(福州) 회안(懷安) 사람이다. 《북건통지福建通志》나 《고금의통古今醫統》에 이름이 보이지만 자세한 생애에 관해서는 고찰할 방법이 없다. 《인재직지방론》 앞머리에 수록된

자서(自序)에는 '경정갑자(景定甲子)', 즉 '경정 연간(1260~1264)의 갑자년'이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는 경정 5년(1264)이고, 그 이듬해는 도종(度宗)이 즉위한 함순(咸淳) 원년(1265)이니, 그는 송대 말기의 인물이다.

주송정의 자는 중유(宗儒), 호는 혜재(惠齋)이며, 휘주(徽州) 출신이다.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총 13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의 병증별로는 대개 방론(方論, 설명) - 증치(證治, 증상별 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송정이 추가한 부분은 대부분 암기를 위한 가결(歌訣) 형태와 부방(附方, 추가한 처방)이다.

- 권1: 初生, 變蒸, 驚
- 권2: 驚(권1과 이어짐), 中風
- 권3: 疳, 積, 熱
- 권4: 傷寒, 痰涎, 脾胃, 丹毒, 雜證
- 권5: 瘡疹

의의 및 특징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 또는 《직지直指》라고 통칭하는 양사영의 저서는 대부분 의서의 인용서목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본서는 현재도 책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양사영의 저서 4종 중 대부분은 《인재직지방론仁齋直指方論》을 가리키지만 처방의 출처 일부는 본서를 가리키기도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양사영의 저서를 400회 이상 인용하면서 '直指'와

'直指小兒'로 표기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양사영의 저서가 종류에 관계 없이 조선에서 많이 읽었고 그 결과 의과 취재 과목에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양사영의 저서 4종은 각각의 책으로도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통칭하여 《인재직지방》 또는 《직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 저본으로 사용한 와세다대학 소장본 역시 4종의 책을 하나의 책으로 편철했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 참고자료

中醫古籍珍本集成 方書卷《仁齋直指方論》해제 사고전서 총목제요 권103
(한의학고전DB. 양휘웅 번역) 고금도서집성 의부전록 권508 (한의학고전DB.
김혜일 번역)

일러두기

판본 및 구성

- 이 책은 인재직지의서 4종인 《상한유서활인총괄傷寒類書活人總括》,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 《의맥진경醫脉眞經》, 《인재직지방론仁齋直指方論》 중 《인재직지소아방론》을 번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은 초간본을 구하지 못하여 명대 주송정(朱崇正)이 본인의 처방을 추가하여 간행한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을 저본으로 삼았다. (일본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 청구 기호 야09 00183 7)
- 주송정이 추가한 부분은 모두 원문에 '附'라고 표시되어 있으니(附方 포함), 양사영의 초간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하시길 바란다.

표기법

- 처방의 구성은 가독성을 위하여 형태를 약간 변형하였으나 글자의 차이는 없다. 포제법은 괄호로 묶었고, 나열은 '·'으로 구분했으며, 용량은 공백으로 구분하였다.
-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는 兩/냥, 錢/돈, 分/푼, 寸/촌, 字/자, 圓/환 등으로 통일하

여 번역하였다.

- 인명이 아닌 龜의 독음은 구흉(龜胸)과 같이 '구'로 표기하였다.
- 두음법칙에 따라 尿, 衄, 泥 등이 첫음절인 경우에는 '요', '육', '이' 등으로 처리하였다.
- 목단(모란), 목과(모과), 앵도(앵두) 등 현대 한글과 발음이 다른 경우는 한자의 독음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 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은 오동자 크기·속미 크기와 같이 풀었다.
- 원본의 음각은 원문과 번역문에 각각 다르게 표시하였다. 원문에는 가능한 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였고, 번역문에는 가독성을 위하여 음각을 대부분 표시하지 않았다.
- 천황련(川黃連)처럼 약재 앞에 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독음으로 번역하였다.
- 글자가 마멸되거나 책이 손상되어 알 수 없는 글자는 원문에 𐄀 기호로 표시하였다.
- 의미가 동일한 이체자나 이형자는 가능한 현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로 수정하였다.
- 원본에서 각 문(門)의 제목은 꾸밈 무늬(목판 판심의 화문어미와 비슷하다)와 함께 큰 글자로 되어 있으나, 본문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인재직지소아방론 1 / 仁齋直指小兒方論 1

원저자 : 양사영(楊士瀛)

국 역 : 이정현

해 제 : 이정현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4년 11월 30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4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SN1923111)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ISBN 978-89-5970-575-7 (PDF)